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주 영 애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남북 차(茶)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 형성 연구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곽 미 숙

남북 차(茶)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 형성 연구

주 영 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곽 미 숙

# 인 준 서

곽미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4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기조는 헌법과 여러 법률에 명시된 바처럼 자주·평화·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로서, 평화로운 통일의 지향과 통일을 위한 ‘민족동질성회복’이다.

장기화된 분단의 현실과 단선적이고 간헐적인 교류는 민족동질성을 공고히 유지하지 못하고, 통일 지향성에 대한 많은 회의를 갖게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남북 문화·학술교류나 체육 교류가 과연 능동적 주체의 행위를 통한 교류였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남북관계의 회복과 성장, 평화와 번영의 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내딛는 걸음으로서의 교류는 주춧돌과 같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남북교류는 관계가 우호적일 때에 동원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되고 굴절된 가운데서도 교류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쌓여 연구와 실천역량은 성숙해지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즉 통일과 북한사회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고민으로서 일상성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통일문화콘텐츠를 연구하고 제시하면서 생활문화연구자가 아님에도 통일문화콘텐츠 연구자 중에는 생활문화 영역에서 통일문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 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 환경 속에서 남북문화통합의 과제는 생활문화연구자들이 담당해야 할 바가 시나브로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은 개인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일상적 삶의 환경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문화정서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프로그램의 구안을 통해서 가능하다.

며, 생활문화연구에서 더욱 현실성과 실천성을 담보하고 정서적 공감의 형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상적 연구 관점과 생활문화 연구 관점으로 차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을 형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면접연구방법을 통하여 남북한의 차문화 개념과 향유의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상적 생활의 실천 가운데 형성되는 정서적 공감에 관하여 부르디외의 아비투스과 장이론을 차용하여 교류의 주체를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로, 이러한 아비투스에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서 각 아비투스가 속한 장으로서 삶의 조건, 생활조건, 환경적 조건 등이 조응하여 형성된 정서가 교류주체들 간에 공감 형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교류의 주체는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교류의 속성상 쌍방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므로 교류의 대상도 그 주체가 된다. 남북 민족구성원 전체는 남북문화 교류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남북교류의 주체로서 실천성이 담보되는 통로와 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통일과 평화로운 한반도의 지향성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교류의 매개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류 시 상호 수월하고 간단하게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정서가 바탕이 된다면 다양한 매개물을 통한 교류가 활성화 되고 확장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남북한이 상호이해와 이익 증진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에 방점을 두고 교류 정책을 펴나가며 실천하여야 한다. 전 국민이 지금 당장 교류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더라도 정서적 공감의 형성 가능한 매개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평양냉면 한 그릇으로 적대감과 혐오의 감정이 완화되어 호기심과 관심으로 표출되었던 것은 우리의 문화 DNA속 정서를 교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연예술이나 음악 등도 이념과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지만 직접적이지 않으므로 자칫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기 쉬우나, 먹고 마시는 일은 직접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공감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다져 나갈 수 있는 실천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가 인간의 일상적 삶을 둘러싼 총체적인 복합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문화로서 상징되는 차문화교류를 통한 남북 정서의 공감대를 발견하고자 했다. 통일의 시대적 과제를 담당하는 현시점의 남북 주민들 간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차문화교류의 근거를 과거 차문화를 함께 향유했던 역사와 함께 현재 향유하고 있는 차문화 속에서 정서적 유사점을 발견하고, 창조적 계승을 위한 미래지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남북문화교류에 있어서 차문화교류를 통한 민족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민족문화의 복원과 생활문화정서적 공감의 형성, 그리고 교류·협력사업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면접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남북한의 격차는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그러한 현실에서 기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고 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차문화의 역사를 새로이 써나갈 수 있는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후속 연구에서는 통일공감대와 민족동질성회복,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관하여 학제간의 융복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교류의 공간에 관한 연구와 교류의 다양한 매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단절되었던 고려시대 이전 차문화역사에 대한 연구, 차문화 유물, 유적 등 차문화연구와 실천적 통일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 구안에 대하여 생활문화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과정 및 전개 .....	7
II. 이론적 배경 .....	8
1. 남북 문화정책과 문화교류 .....	8
1) 남북 문화정책 .....	8
2) 남북 문화교류 .....	15
2. 남북 차문화교류의 배경 .....	30
1) 민족문화의 복원 .....	30
2) 남북 생활문화의 상호이해 .....	34
3. 정서적 공감 .....	38
1) 정서적 공감의 개념 .....	38
2) 정서적 공감장으로서의 교류 .....	56
4. 선행연구의 검토 .....	65
III. 연구방법 .....	70
1. 연구관점 .....	70
1) 일상성 연구의 관점 .....	70
2) 생활문화적 관점 .....	73
2. 문헌연구 .....	75

3. 면접연구 .....	78
1) 면접방법(FGI) 및 절차 .....	79
2) 면접대상자의 특성 .....	82
IV. 연구결과 및 분석 .....	88
1. 남북한의 차(茶)문화 역사에 관한 문헌 고찰 .....	88
1) 남한 차문화 역사 .....	89
2) 북한 차문화 역사 .....	100
2. 남북한 차 생산과 소비 .....	107
1) 남북한 차 재배와 생산 .....	107
2) 남북한 차 소비 .....	113
3. FGI를 통해 본 남북차문화교류의 전망 .....	120
1) 차문화교류와 민족문화의 복원 .....	120
2) 차문화교류와 생활문화 .....	124
3) 차문화교류와 협력사업 .....	126
4. 소결 .....	127
V. 논의 및 결론 .....	131
1. 논의 .....	131
1) 남북 차문화역사에 기초한 민족문화복원 .....	131
2) 남북 간의 정서적 공감 .....	132
3) 남북 차문화산업 활성화 .....	135
2. 결론 .....	13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2-1> 남북한 문화교류의 단계별 실천방안 .....	9
<표2-2> 남북한 문화정책 .....	13
<표2-3> 법률상 의미의 교류 .....	20
<표2-4> 통일부 연도별 협력사업의 승인현황 .....	22
<표2-5> 남북교류협력의 종류 .....	24
<표3-1> 남북 차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 형성 연구에 활용한 자료 ..	76
<표3-2> 남한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84
<표3-3> 북한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87
<표4-1> 남한의 『한국차문화의 역사』와 북한의 『차문화의 력사』 내용구성 비교 .....	89
<표4-2> 차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추이 현황 .....	108
<표4-3>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 .....	109

## 그림 목 차

<그림1-1> 연구전개과정 .....	7
<그림2-1> 성신여대 탈북청소년 차문화교육(좌)과 예절교육(우) .....	35
<그림2-2> 남양주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통일기원 ‘茶(차) 문화 지역사랑 탐방’ .....	35
<그림2-3> 2018.6.29. 50+서울중부재단 ‘모두의 축제’ 협찬(좌)와 강원도 고성 에서 녹차 제다실습과정(우) .....	36
<그림4-1> 『차문화의 역사』 의표지 .....	101
<그림4-2> 고구려춤무덤벽화에 그려진 차마시는 장면 .....	102
<그림4-3> 차례로 보내진 김일성(좌), 김정일(중), 김정은(우)의 차나무 모 .....	107
<그림4-4> 황해남도 강령 은정차재배원(좌), 『차문화의 역사』 부록에 실린 강령등암차재배원(우) .....	110
<그림4-5> 강령녹차를 판매하기 위한 세트상품, 노컷뉴스2015.07.26. [사진-조선신보](좌), 2017년도 강령녹차의 앞면과 좌우측면에 기재된 설명(우) .....	111
<그림4-6> 평양창전거리 은정차집(좌), 그 차집내부에서 차를 즐기는 사람들(우) .....	117
<그림4-7> 녹차냉면(좌)와 조선의 차문화 소개 우표(우) .....	118
<그림5-1> 남북차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 형성 연구와 기대효과 .....	144

# I. 서 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기조는 헌법과 여러 법률에 명시된 바처럼 자주·평화·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로운 통일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sup>1)</sup> 통일을 향한 ‘민족동질성회복’에 두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제시 후 ‘화해협력의 단계, 남북연합의 단계, 통일국가의 완성이라는 3단계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통일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전략적 관점에서의 통일정책의 기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하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통일 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일관성 있는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대화 및 교류의 재개를 통해 남북합의를 법제화하여 ‘한반도 신경

---

1) 대한민국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69조, 제92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2018년 통일교육원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에서도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라고 평화통일교육의 중점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과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강화하여 '통일공감대'를 확산할 것을 공표<sup>2)</sup> 하였다. 통일공감대의 형성과 확산의 노력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의 재외동포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외동포와 국제사회, 그리고 주변국<sup>3)</sup>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통일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국민협약'<sup>4)</sup> 사업과 '통일+센터'<sup>5)</sup> 설치의 시범적 운영,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활성화 기반<sup>6)</sup>을 마련하고, 단절되었던 남북의 민간 교류 재개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평양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체육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개된 남북 교류협력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남북철도·도로협력, 남북체육교류, 남북산림협력, 계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 등 남북교류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 주도의 참여는 제한적인 단계이며 민간교류의 범위 확대와 절차 등의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된다.

- 
-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 3) 2019통일백서,42-47: 재외동포의 통일문제 관심고조를 위한 통일정책설명회, 대학생통일퀴즈 대회 지원, 현지 동포신문에 통일관련 전문가의 기고문 게재 지원과 독일 통일과 통합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는 한독통일자문회의와 독일 통일통합관련 주요 정책문서 사본의 이관과 번역, 독일통일총서를 발간하여 공개하고 있다.그 밖에 한반도국제포럼의 개최를 통해 미중일러유럽아세안 등의 나라들과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 4) 2019통일백서,28: 2020년 통일국민협약(안)을 목표로 민간 중심 정부 지원의 사업으로 2018년 국민소통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이 통일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채널 통일국민협약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7월~10월간 실시된 '사회적 대화'는 국민 약 1500여명의 참여 속에 총 20차례 개최되었다.
  - 5) 2019통일백서,32: 각지역별로 산재한 통일 관련 인프라를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업무적으로 연계하여 통일정책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통일+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 6) 남북철도연결사업은 활성화기반의 하나로써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준비와 실행이라 할 수 있다. 2018년12월26일 개성 관문역에서 남북철도연결착공식을 가졌는데, 10년 여간 끊겼던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재추진하는 사업이지만 10년 전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 엄격해져 '연결'을 위한 조건은 더 까다로워져 1~2년간은 설계와 조사 위주로 되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8.12.26)고 전하였다. 남북교류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한 시민과 사회단체, 기업들의 추구하고 요청에 대해 현 정부는 재개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 합의와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오마이뉴스2019.03.04).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중단되는 동안 쌓여진 불신과 적대의 감정이 쉽사리 극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남한에서는 남북의 대립이나 갈등만이 아니라 남남갈등의 현상도 강화되어 나타났다. 현 통일담론 지형에서 정부의 통일정책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담론에의 참여는 전문가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에 대해 공감하는 세대가 점점 감소<sup>7)</sup>하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합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관점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도 한 몫을 한다. 이제는 과거의 당위적 차원에서의 일방적인 통일 담론이란 더 이상 수렴되기 어려워진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 환경에서 통일을 만병통치약처럼 내세우기보다 통일과 인간안보<sup>8)</sup>, 통일과 경제성장, 통일과 민

- 
- 7) 박명규 (2015).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지식의 지평, (19), 8: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젊은 세대는 통일을 당위적이거나 최우선적 과제로 보기보다는 통일은 여러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고 다른 가치들과 연관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강하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어떤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정옥, 정동준, 조동준, 김희정, 정근식, 송영훈, 임수진, 황정미, 김선, 천자현, 문인철(2018). 2017 통일의식조사. 통일의식조사, 2017(0), 36: 연령별 응답의 특징은 20대와 30대, 50대와 60대 사이의 인식의 격차가 2016년에 이어 계속 확고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대와 30대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4%와 39.6%였는데, 50대와 60대는 62.0%와 67.0%였다. 40대는 57.8%로 두 그룹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윤민재(2017).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특징: 세대별 통일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8(5), 83: 다른 세대들과 20,30대와의 통일인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 20,30대의 통일 인식은 통일로 기대되는 자기 이익이 가장 중요하며, 개인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성향,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통일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전용(2004).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44(1), 25-49.; 김민수(2016). 인간안보의 헌법적보장과 국가안보와의 조화. 법학논집, 21(1), 129-161: 안보라는 말은 안전보장의 줄임말로써 주로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용된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안전보장은 개인, 국제체계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되면서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여 인간안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또 무척 중요해져가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전쟁보다 내전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인간이 위협되면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인간안보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등장했는데, 유엔개발계획에서 보고된 인간 안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식량안보는 기아로부터의 자유, 경제안보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개인안보는 폭력과 범죄 등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안보는 오염된 물과 공기로부터의 자유, 건강안보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안보는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자유와 같다.

주주의, 통일과 다문화적 통합, 통일과 저출산, 통일과 인구이동 등 수많은 쟁점들에 대한 토론과 비전 확인에 주력할 필요<sup>9)</sup>가 있으며, 통일이 장기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과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sup>10)</sup> 통일이란 다차원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상이한 체제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고찰은 물론 남북 주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를 다루는 생활문화 차원에서의 논의<sup>11)</sup>와 보다 구체적으로 서로의 삶과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맞추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계에서는 남북 상호간 일상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등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는 2015년부터 문화행사를 통해 통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통일박람회’와 ‘통일문화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해오고 있고, 2017년에는 ‘평화로 2017’로 이름을 변경하여 통일관련 다양한 문화체험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통일문화기획행사’<sup>12)</sup>와 통일부의 「Uni TV」의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주민 앞에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라는 연설을 하였다. 대통령연설문에서 민족과 동포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법률과 정책으로서 밝히고 있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

---

9) 박명규(2015), 위의 책, 9.

10) 민성길, 전우택,윤덕용(2002).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3.

11) 이기춘, 나종연(2007). 북한이탈주민의 북한과 남한에서의 소비생활경험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3(2),102.

12) 2019통일백서, 33: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전시행사로 구성하여 개최하였는데, 「뜨개질아트」는 오두산전망대에서 개최한 특별전시, 「평화의 한걸음,DMZ투어」는 입진강역·도라 산전망대·통일플랫폼 등 DMZ일대 투어 프로그램이며, 「통일공감광장」은 남북정상회담·북한일상사진전, 북한음식 체험전, 통일사료 전시회, 포토존 등 체험·전시행사로 평화문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의 전통문화 창달'<sup>13)</sup>을 통일정책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남북관계가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증폭된 반목과 적대, 편견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서로 이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이질감을 일깨우는 것은 오히려 차별과 반목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의 유발 또는 유사한 정서의 발견이 용이한 기제를 매개로한 통일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직접 체험과 경험의 공유 가능한 생활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2) 연구 목적

분단 70여 년 세월 동안 남북의 교류가 40여 년 간 진행되었지만, 간헐적이고 특정 계층과 분야에 집중 되어 있고, 단절을 거듭하면서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분단이라는 사회적 구조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정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반목과 적대감이라는 부정적인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남북교류는 주목할 바로 사료된다. 교류의 종류와 범위, 참여 주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남북 주민 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는 일상적 삶에서의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활동이 되며, 행위로서의 교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과정

---

13) 대한민국헌법 제9조, 제69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적용한 ‘작은 걸음의 정책’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처럼 통일을 위한 여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남북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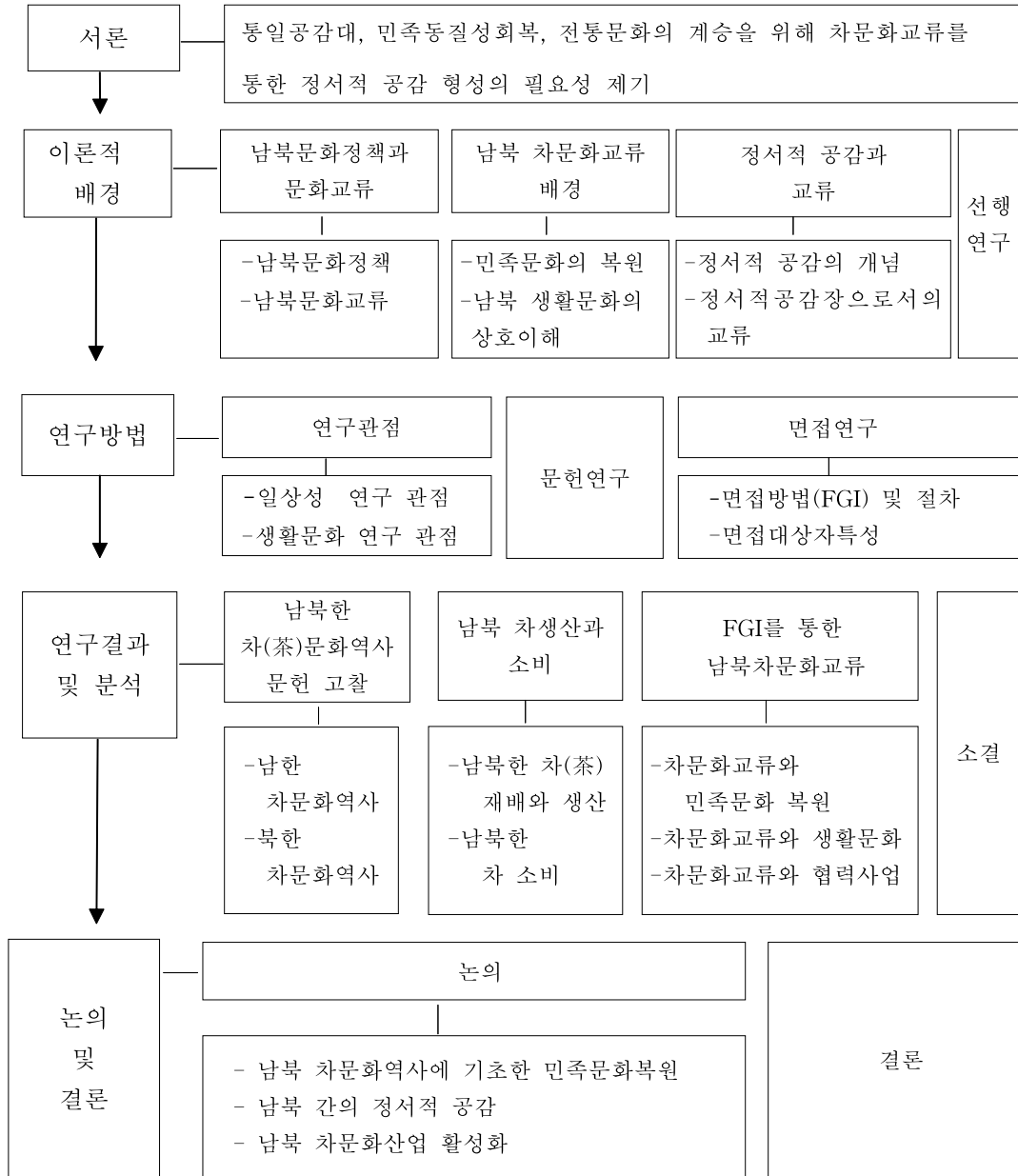
차문화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남북공동의 민족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차문화교류는 민족문화의 복원과 생활문화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고, 남북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전망하는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생활환경과 그 안에서 영위되는 인간의 삶이 생활문화로서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sup>14)</sup>으로 한다고 할 때, 생활문화척도로서 차문화가 헌법 및 법률과 정부의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과 통일문화를 위한 전제로서 통일공감대의 형성 및 민족동질성의 회복, 이를 통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구체적 방안으로 그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바 정서적 공감 형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4) 문숙재(1999). 생활과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영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움, 1998(0), 15: 생활과학은 가정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개인 및 가정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지향하며, 사회와 인류전체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연구의 과정 및 전개



<그림1-1> 연구전개과정

## Ⅱ. 이론적 배경

### 1. 남북 문화정책과 문화교류

#### 1) 남북문화정책

##### (1) 남한 문화정책

남한의 경우 정부수립 이후 제5공화국 정부까지의 문화정책은 근대국민 국가의 형성과 그에 따른 최소한의 문화기반의 조성을 이루는데 그쳤다.

정부의 문화정책 가운데 통일을 위한 남북문화교류 정책의 반영과 변화 과정을 고찰해보면 박정희시대의 문화정책에서 문화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으나 정치적 정통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문화재 복원을 중시했다.<sup>15)</sup> 제5공화국은 새문화정책의 목표는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 문화혜택의 복지적 분배, 창조적 문화역량의 제고, 각종 문화시설의 사회교육 역할 제고로 설정<sup>16)</sup>하였지만 문화교류가 국정 홍보적 기능으로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문화정책의 계획이나 반영이 없었다.

1990년 문화공보부를 공보처와 문화부로 분리하여 ‘문화부’를 독립된 문화정책의 정부 주무부처로 발족하고 다양한 정책기조를 제시하였는데,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은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기틀이 되었으며, 문화분야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문화주의 시대 개막, ②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정책, ③국민 문화향수권 및 참여권 신장, ④문화운동의 전

15) 박광무(2010). 한국 문화정책론. 과주: 김영사, 161-163.

16) 구광모(1998).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목표와 특성 -80년대와 90년대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12(0), 4; 오양열(1995).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50년. 문화정책논총, 7, 53.

략화추진, ⑤문화창조력과 문화역량 제고, ⑥국제 문화교류와 통일문화기반 조성 등과 같다. 통일문화기반조성을 위한 남북문화교류 5대원칙은 ①분단 이전 전통문화 우선 교류, ②승부 및 경쟁적 분야 배제, ③전통문화 원형의 훼손 표현 지양, ④쉽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 ⑤공동실행을 위한 지속 노력<sup>17)</sup>이다.

1993년 김영삼정부는 문화부와 청소년체육부를 통합하고 관광 업무를 추가한 ‘문화체육부’를 창설하고, ‘새문화·체육·청소년 진흥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문화 부문인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계획’에서 ‘분단에서 통일로’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남북관계는 긴장과 교착의 연속이어서 남북한 접촉은 3공화국이후 최소를 기록하였다.<sup>18)</sup>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1990년 ‘문화예술 10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통일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이 보다 구체화 되면서 다음 <표2-1> 과같이 남북문화교류의 단계별 실천방안을 확정하였지만 김일성 사망 이후 남북한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문화교류를 한 단계별 실천방안은 실현되지 못했다.<sup>19)</sup>

<표2-1> 남북한 문화교류의 단계별 실천방안

단계	세부내용
1단계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관련 자료와 정보 교환
	문화제, 미술품 교환전시
	출판목록과 체육정보자료 교환
	문헌자료 작품교류
	관문집 등에 ‘통일문화정부자료센터’설립 운영
2단계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등 인적 교류와 공동행사 개최
	남북예술단 교환공연
	통일축구대회 개최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 교류

17) 박광무, 앞의 책, 190

18) 김연철, 정경환(1998). 공백의 5년: 김영삼 정부 통일정책의 반성과 비판. 한국민족문화, (12), 366.

19) 정철현(2006).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37(2), 9-10.

	설날, 단오, 추석 등 남북공동민속절기를 계기로 '남북문화예술축전' 개최
3단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사업 수행
	문화유적 공동조사
	월드컵 축구회 공동유치 등 민족동질성 회복 실천
	남북언어통일회의 개최
	남북공동문화예술단 구성 및 운영
	문화유적지의 공동발굴 및 상호방문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t.go.kr)

한편 남북정상회담(2000.6.15.)과 금강산관광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이 남북 화해와 평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에서의 문화정책의 추진방향은 자율, 참여, 분권과 연계통합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이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이념이자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의 구현을 위해 제시된 3대 목표는 ①창의적인 문화시민, ②다원적 문화사회, ③역동적 문화국가 지향이며,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 5대 방향은 ①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②문화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③국가발전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 ④국가균형비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⑤평화,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이 거론되었다<sup>20)</sup>. 특히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증진의 주요 정책은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강화와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및 남북문화교류확대를 내용으로 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표방하여 4대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중 '문화가 펼쳐지는 나라'와 '콘텐츠로 부유한 나라'가 문화정책이 달성해야할 2대 목표에 해당한다. 이 시기 문화교류는 한·일문화교류의 정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공식적인 문화교류

20) 박광무. 앞의책, 280.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 21)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평화통일을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대북통일정책이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견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다”<sup>22)</sup>라고 하였으나 현실적인 정책성과를 생산하기보다 대결적인 국면으로 치달아 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sup>23)</sup>

## (2) 북한 문화정책

북한에서 ‘문화교류’라는 용어는 『조선중앙년감』(1949) 창간호에서 ‘조소 문화교류(朝索文化交流)’라는 항목에서 대외문화교류 활동을 정리하였는데, 선진국과의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시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민족 대단결론’에서부터 김정일시대 ‘민족공조론’에 이르기까지 북한당국은 ‘민족’우위의 이념들을 통일담론과 결합시켜 나가며,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중앙위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sup>24)</sup>라고 선언하였는데, 1980년대 후반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리식 문화’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북한의 문화를 규정짓는 기본노선이 되었다.<sup>25)</sup>

21) 박광무. 앞의책, 314-317.

22) 통일대박론은 2009년 골드만삭스사가 제시했던 보고서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GDP규모가 30~40년 내에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선진 7개국(G7)을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서 제시된 것이다.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76>, 2014. 1. 6)

23) 정용하, 강성훈(2015).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대학생의 남북관계 인식변화. 한국민족문화, (55), 138-139.

24) 김정일(1997).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 선집.9(1987-198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443.

25) 주강현(2000). 북한의 우리식 문화. 서울: 당대, 130.

김정일시대의 남북교류에 대한 정책의 근간을 살펴보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 민족 공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이질적인 리념과 체제가 대립하고 있고 따라서 상호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를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로 대왕, 접촉하고 교류를 활발히”<sup>26)</sup>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연설을 보면 경제·문화적 교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문화침투와 문화유입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방어적 태도<sup>27)</sup>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문화정책이 철저한 국가 관리와 통제 하에서 전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세대의 등장에 따라 혁명성 일변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sup>28)</sup> 1990년대 들어서게 된 장마당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유입에 대해 통제와 단속은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sup>29)</sup>

김정은의 정권 승계이후 북한은 ‘민족’ 보다는 ‘국가’를 앞세우며 새로운 애국주의 담론을 제창하면서 민족주의는 다소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13년 이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

26) 최기환(2004). 6.15시대와 민족공조. 평양: 평양출판사, 120.

27) 김정일(2000). 김정일선집 14 (1995-199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77.: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사회주의국가는 평등과 호혜원칙에서 세계의 나라들과 경제·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부르조아 반동사상과 썩어 빠진 부르조아 문화와 생활풍조가 침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웅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국가기관들이 대외경제문화교류에 사회주의원칙을 망각하고 경제문화교류와 협조를 망탕 조직하면 제국주의 사상문화가 침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게 되며 사회주의를 위협에 빠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 낼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법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28) 양정훈(2011). 남북문화정책에 따른 사회문화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 8, 220.

29) 박영정(2011), 오양렬(2006) 등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한류는 초기에 대중가요와 드라마 등 낯한 대중문화의 수용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옷차림, 미용이나 말투, 기호식품 등 일상의 생활문화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남한 유행 따라 하기 등은 북한 당국의 통제와 단속을 피해가며 비공식문화로 향유되다가 공공연하게 묵인하는 상황으로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자” 고 언급하며 ‘민족자주’, ‘우리민족끼리’ 로 대변되는 종래의 민족담론을 통해 남북관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민족 화해의 방향으로 선화해 나가고 있다.<sup>30)</sup>

북한 정부 수립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시대에 이르기까지 남북교류에 있어서는 민족주의 담론이 일관되어 있으며, 문화교류는 정치·경제와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전개된 측면이 강하다.

남북한의 문화정책을 정권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2-2>와 같다.

<표2-2> 남북한 문화정책

		남한	북한
이 념 성 격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주체사상
		목적가치 지향	수단가치 지향
구 분	3,4 공 화 국	문화행정담당 부처와 관계법령의 제정, 공표 문예진흥 5개년계획의 문화정책기조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 문화정책수단은 문예진흥기반 조성사업, 문화유산전승 및 개발사업, 예술창작 지원사업,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	김 일 성 시 대
	5 공 화 국	<새문화정책발표> 문화적 주체성, 문화혜택의 복지적 분배, 창조적 문화역량의 제고, 문화발전위한 지원체계강화, 각종 문화시설의 사회교육적 역할 증진 등	
	6 공 화 국	문화부신설 문화발전10개년 계획, 문화복지국가 실현 통일문화기반조성의 남북문화교류5대원칙: 전통문화우선교류, 승부 및 경쟁분야 배제,	김 정 일 시 대
			민족문화정책: 문화재 발굴과 보존, 전통문화수용의 원칙 방향설정, 민족문화수용, 유일사상체계 확립, 김일성유일사상의 문화정책으로 전환, 주체사상 정립
			민족문화정책: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사회주의, 혁명전통과 민족문화 전통의 결합

30) 전미영(2018). 김정은시대 북한 민족주의: 담론·문화·정책. 북한학보, 43(1), 219,234.

	전통문화원형의 훼손 표현 지양, 쉽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 공동실행위한 지속노력		
문 민 정 부	문화예술10개년계획: 통일문화구축의 정책대안 최초 구체화한 단계별 실천방안 마련 다양성과 통합성의 조화 풍요로운 삶과 민주주의 문화, 문화의 산업화와 상업의 문화화, 통일지향의 민족문화, 문화의 세계화와 보편화		민족공조론: 민족적 화해와 단합, 민족공조위한 래왕, 접촉, 교류 주장 강조 민족문예강조 문화정책
국 민 정 부	문화복지국가건설 새문화정책		
참 여 정 부	문화정책의 추진방향: 자율, 참여, 분권과 연계한 창의성 정책추진 5대 방향: 문화참여 통한 창의성 제고, 문화정책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문화, 국가균형비전의 문화적 토대구축,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증진		사회주의 문명강국건설 목표 국가우위의 애국주의 담론 제창 2018년 신년사: 민족담론을 통한 남북 관계개선 촉구로 선회 민족문화발전 명분으로 세계문화 수용 대외문화교류를 통한 '평화이미지'구축 문화외교를 통한 글로벌 지도자 이미지 강화
이 명 박 정 부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의 4대 목표 중 2대 목표: '문화가 펼쳐지는 나라' '콘텐츠로 부유한 나라' 문화교류의 사실상 중단	김 정 은 시 대	
박 근 혜 정 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우영(1994).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오양열(1995). 한국의 문화행정 체계 50년. 문화정책논총, 7, 29-74; 전영선 (2015). 남북 문화공동성 창출을 위한 방안. 통일인문학, 61, 207-233; 정철현(2006).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37(2), 1-24.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 2) 남북문화교류

### (1) 교류의 개념

교류의 사전적 의미는 ①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여 흐름, ②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문화나 사상 따위의 성과나 경험 등을 나라, 지역, 개인 간에 서로 주고받음, ③일정한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전류를 뜻한다.<sup>31)</sup>

이러한 의미를 인간관계에 사용하면, ‘서로 사귀고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며, 교류에 해당하는 영어의 interchange나 exchange도 같은 뜻이다. 독일의 W.Mueller가 교류를 ‘교환의 과정’ 또는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전적 의미로 풀이한 것으로 교류는 만남·접촉·교환·역할분담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은 내면의 기쁨과 충족감을 얻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며, 인간관계를 조절하는 힘을 기르게 되고 나아가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sup>32)</sup>

31) 다음 한국어사전(<http://dic.daum.net/index.do>), 네이버 사전(<https://dict.naver.com/>)

32) 조영성(2000). 남북화해와 협력에 있어서 남북청소년교류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논집, 44(1), 287-288.;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2002). 21세기정치학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아 리서치, 795: 문화교류는 이질문화를 배경으로 한 조직이나 국가 혹은 인간 간의 접촉이나 교류를 의미하며, 문화를 공유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문화충격이라는 심리적 혼란 상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현대의 문화교류는 기본적 평등성을 인정하고, 세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문화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며,; 두산 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index.do>: 이질문화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군사·경제적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수직·확산적 형태가 아니라 인류문화의 기본적 평등성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 간 상호이해를 깊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교류는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념·조직의 연구, 인물교류, 유학생제도의 확충과 각국 문화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학교 및 사회교육계획의 입안과 실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 예로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류, 학교 짓기와 다양한 봉사활동 및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은 국위를 선양할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세계구성원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통일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사업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에 협조하는 사업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류는 쌍방향을 전제한다. 서로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해 없는 교류는 불필요한 오해와 사건·사고<sup>33)</sup>들을 발생시키며 상호 관계를 경색시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교류에 있어서 상대방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정수일(2013)<sup>34)</sup>은 교류의 배경에 관한 역사적 배경, 정치적 배경, 경제적 배경, 교통사적 배경, 민족사적 배경, 인적교류에 관한 연구에서 교류의 역사적 필연성과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이뤄지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의 불가피성과 영향을 고찰하였다.

교류의 경제사적 배경과 교통사적 배경의 고찰은 남북의 교류에 관하여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남북의 사회·문화교류에 있어서 ‘남북교류’ 및 ‘남북의 관계 발전의 법률’ 등에서 상정하고 있는 교류의 원활함과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먼저 경제사적 배경의 교류 및 교통사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경제사적 배경의 교류는 항시성과 연속성, 자율성과 순기능적 속성으로 교류의 확대와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고, 교통사적 배경의 교류는 사람과 문물의 공간적 및 물리적 이동을 수월하게 하여 교류의 내용이나 규모·양·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33) 나무위키<https://namu.wiki/>: 남북의 교류에 있어서 2008년 7월 11일, 북한으로 금강산 관광을 간 대한민국의 민간인 박왕자씨가 조선인민군 육군 초병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해가 뜨기 직전 혹은 막 해가 뜨기 시작한 오전 5시 경 당시 몸이 그다지 좋지 않은 박왕자씨(53)는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인민군 육군 해안 초소의 초병이 등 뒤에서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그냥 한 명 죽은 단순한 총격사건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끼친,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천안함사건 및 연평도 포격 등의 굵직한 사건을 제공하는 데 일조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지구로 남한 관광객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해 개성관광도 중단되면서 햇볕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후 남북관계는 2016년에는 개성공업지구까지 폐쇄되면서 악화일로를 걸었다. 금강산 피격사건 등은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다.

34) 정수일(2013). 실크로드 사전. 파주: 창비출판사, 36-39, 82-188.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4차 산업 혁명으로 나아가는 현재에 있어서는 공간적 및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교류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적인 대북제재로 인하여 남북교류에서의 난제를 해결해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남북출입국관리소의 정비와 관리 및 활용, 유라시아 횡단철도사업일환의 남한 내에서 경원선 등의 정비와 연장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류에 관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률<sup>35)</sup>들에서의 규정을 살펴보면 교류에 관하여 직접 정의한 규정은 없다. 대체로 법률들은 제1조에서 그 법의 목적을 두고,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해당 법률에서 필요한 개념들에 대한 정의(定意) 규정을 두는데,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률임에도 교류의 정의와 내용, 형식, 방법 등에 대한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1조<sup>36)</sup> 목적 조항, 제2조<sup>37)</sup> 정의 조항

- 
-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 3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1.30] [[시행일 2009.7.31.]]; 이석범(2015).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확보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8, 16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한계에 대해노태우 정부 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의 초기부터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제정 당시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었던 남북교류와 협력이 지원과 촉진의 대상으로 변함에 따라 종전에 비해 훨씬 확대·발전된 남북관계에 대한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조차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19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개성공단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교류환경이 변한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인적·물적 교류를 포괄하기에 그 내용이 충분치 않다. 북한 당국은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로서 2002년7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였다.
- 3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

제2호 및 제4호, 제3조<sup>38)</sup> 타 법률과의 관계 조항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3조에서 교류와 협력을 구분하고 있고, 제2조 제2호에서의 교역은 제3조의 문맥으로 보아 교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4호 “협력사업”은 실제 행해지는 남북사회·문화교류의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제3조에서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을 언급하고 있는데, 교류와 협력을 구분하는 법률의 명칭과 제1조와 3조에서의 구분 등을 미루어볼 때 남북한의 교류는 왕래와 접촉, 교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등을 포괄하는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류의 성격과 목적 및 정부의 의무, 주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조<sup>39)</sup>의 남한과 북한의 관계조항에 따라 남북의 교류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교류가 아니라 내부교류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민간차원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8조<sup>40)</sup> 제1항과 제2항에서 교류의 목적으로 민족동질성 회복

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9) 이석범(2015). 앞의 글, 169-17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합의된 2000년 6·15 선언 이후 남북 당국자 간에 여러 수준과 부문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 왕래와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미비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는데, 특히, 남북 간의 합의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2005년 12월 29일 마침내 남북관계의 성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정부의 책무, 남북회담 등 대표의 임명절차, 남북합의서 체결·비준·공포절차 및 효력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여 각종 남북 회담과 교류협력행위, 합의서의 효력 등을 법치주의의 제도 내부로 끌어 들임으로서 실질적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을 남북관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과 남북한 간 상호이해의 도모 및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41)제3장에서 남북교류의 성격과 교류의 종류, 방법 및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sup>42)</sup> 용어의 정의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 이라고 규정한 내용을 미루어볼 때 교류는 합의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법률상 의미의 교류는 합의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남북한 민족구성원 전체의 교류와 이산가족의 왕래와 접촉, 또는 서신거래와 상봉 및 방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기본합의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의 교류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2-3>와 같다.

---

40) 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41)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42)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표2-3> 법률상 의미의 교류

	내용	해당 조항
정의	남북한의 교류는 왕래와 접촉, 교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남북주민 간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한 협력사업과는 구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3조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목적	민족동질성회복, 민족공동의 이해 도모, 민족의 전통문화장달, 평화통일, 민족경제의 통일적 균형적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8조
성격	남북한 특수 관계에 기인한 민족 내부거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3조 남북기본합의서제15조
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남북 민족구성원, 이산가족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남북기본합의서제17조, 제18조
종류	경제교류, 과학·기술·교육·문화·예술·보건·체육·환경신문·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사회문화교류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 제16조
실천방안	왕래와 접촉, 교역,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 등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철도와 도로, 해로와 항로개설,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	남북기본합의서제20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기본합의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발췌하여 수정·요약하여 작성하였음.

## (2) 남북문화교류의 전개 과정

1971년 8월12일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전반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왔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간 예술교류는 1985년 9월에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남북의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에서 교환공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남북을 왕래하는 형태의 예술교류는 1998년 5월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공연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43)</sup>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남북한 문화교류협력의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성향은 계속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남북사회·문화교류가 평양과 서울 등 한반도 내에서 직접 이루어졌고, 상징성이 큰 대형 이벤트 중심으로 활성화추세였으며, 남북한 주민의 왕래를 수반하는 행사들이 성사되었고,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도 재개되고 문화예술 공연단의 초청행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2년 부시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으로 북미관계 악화, 이로 인해 교류가 다시 현저히 축소되었는데, 이는 남북의 문제가 더 이상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정세의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6.12북미정상회담 등을 살펴보면 남한 사회의 노력만으로, 또는 남북한 공동의 노력만으로 국제질서의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의 시행 등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북 상호주의 원칙 고수로 인하여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고, 남북교류는 격감하게 되었지만,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경제교역은 꾸준히 증가했고 종교·체육 및 민족동질성 분야 등의 사회문화교류와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6년 초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는 등 교류·협력을 잠정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추진했다. <표2-4>의 통일부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현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후 남북의 모든 교류가 단절되는 상황에

---

43) 1998년까지 이루어진 남북문화교류는 1990년 10월과 12월 남북 정부당국간합의에 의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1991년 남북 탁구단일팀으로 일본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것이 전부가 될 수 있다.

이르렀다.

<표2-4> 통일부 연도별 협력사업의 승인현황 (단위 : 건)

구분	1991-20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민간경협	16	1	2	6	10	4	6	9	1	19			19						93
경제	개성공단	승인			17	26	15	163	53	10	6	1	6	5	3	3			308
		신고									12	11	18	22	10	2	7		82
사회문화	23	7	13	16	47	26	19	3		1	1			1	2			6	165
계	39	8	15	39	83	45	188	65	23	37	20	28	34	6	12			6	648

※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의 주요사업통계 자료

현재까지 남북문화교류는 사회와 하나의 범위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의 남북문화교류<sup>44)</sup>는 사회·문화교류 안에서 분류되는 협의의 문화교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통일부의 『2018통일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을 남북경제교류<sup>45)</sup>와 남북사회·문화교류로 구분하고 있다. 남북사회·문화교류는 문화유산교류와 종교 및 문화·예술·학술교류, 체육교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교류로 나누고 있다. 문화유산교류는 비교적 꾸준히 지속되어 온 사업이며, 공동의

44) 남북문화교류의 유형의 분류를 살펴보면, 강석승(2007)은 남북문화교류를 6.15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시기별로 살펴보는 가운데 6.15남북정상회담 이전의 교류현황을 고찰할 때는 남북문화교류에 대해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종교분야, 언론출판, 관광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교류현황을 고찰할 때의 구분은 남북공동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부문별 교류로 구분하고, 부문별 교류는 다시 체육교류, 종교교류, 문화예술교류, 학술교류, 출판·언론 교류로 구분하고 있다. 박영정 등(2012)은 남북문화 교류를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생활문화의 네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45) 통일부(2018). 2018 통일백서, 56-76: 남북경제교류는 남북경협기업의 지원과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추진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남북경협기업 지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한 실질적·직접적 피해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개성공단기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향후 기업들의 투자 교류를 위한 지원방안의 내용이다.

역사 가운데 민족의 동질성, 함께 하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문화원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문화교류에서는 문화유산의 교류에 강조를 두고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유산 교류의 사업으로는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재개하여 진행하고 있다. 종교 및 문화·예술·학술교류를 살펴보면 종교교류는 각 종교단체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종교 그 자체로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북한 내부에서 반응을 크게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문화·예술·학술교류는 하나로 범주화하여 축제와 공연에 초청하는 방식과 제3국에서의 학술대회에 관계자로서 공동참가하는 방식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체육교류는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에도 국제체육경기에 북한이 참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체육의 다양한 종목에 따른 교류, 행사 참여 방식의 교류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에 치러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개막식에서 시민들의 ‘4·27 대합창’ 공연은 새로운 방식의 체육교류이다. 융복합의 시대에 경계를 넘나들며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 확산적이고 파급력과 감동의 여운이 오래 남는다.

지방자치단체 교류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지는 재량에 따라 경제교류와 사회·문화교류 등 교류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2018년 통일백서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표<2-5>와 같다.

<표2-5> 남북교류·협력의 종류

구분	통일정책	정책추진	
남북 교류 협력	남북경제교류	남북경협기업 지원	남북경협기업피해지원
			남북경협기업지원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추진	
	남북사회·문화 교류	문화유산교류	
		종교 및 문화·예술·학술교류	
		체육교류	
		지방자치단체교류	
인적교류	이산가족,		

※ 2018년 통일백서를 기준으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였음.

남북의 사회·문화교류는 제도적·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업의 진행이 가능함을 ‘개성만월대밭굴작업’과 ‘겨레말편찬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sup>46)</sup>에서는 문화교류의 유형을 문학 및 언어 분야, 공연예술 분야, 시각예술 분야, 문화산업 분야, 문화유산 분야, 종교 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다른 분야의 교류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에 의해 완전한 단절<sup>47)</sup>을 겪기도 하였으나 문화교류는 이미 시작하여 놓은 사업들의 특성상 남북 당국 및 민간 사업자들에게 향후 남북문화교류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였다.

공연이나 전시 등 대규모 행사들은 분단체제 안에서 형성된 남북한의 적

46) 문화체육관광부(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37-54.

47) 2016년 개성공단의 폐쇄를 보면 아직도 우리의 경제는 정치적 영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갑작스런 개성공단의 폐쇄는 많은 논란을 가져왔고, 부수고 폐하는 것은 쉽지만 다시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폐쇄했던 공단을 바로 다시 재개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들과 정치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의식을 일부 완화시켜 통일을 향한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만월대발굴조사사업'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2013)<sup>48)</sup>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본 남북문화교류의 성과로 적시해 놓은 것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의 조성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문화 동질성 확인 및 남북 문화 이질성 완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유산분야나 종교분야<sup>49)</sup>의 담당자들의 경험을 통한 중요한 성과는 '민족문화 동질성'의 확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북한 문화예술 개방화 가능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비공식 채널로만 접하던 남한의 한류를 공식채널을 통해 직접 접하게 된 북한의 문화단체나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문화분야별 교류·협력의 발판 마련 및 상호 신뢰 기반을 구축<sup>50)</sup>하였다. 다섯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 등장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시절 시작된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과 '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 그리고 '금강산신계사복원사업' 등은 2008년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군사적 갈등의 심화와 개성공단의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여섯째, 교류분야 다양화 및 사업 주체 다변화를 들 수 있다. 초창기에는 공연예술, 특히 음악 분야의 교류행사와 종교분야

48) 문화체육관광부(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74-78.

49) 북한문화재특별전(2006년)을 통한 북한 문화유산감상으로 민족문화의 유구성과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성의 만월대발굴조사사업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남북이 공감할 수 있었고, 이념사상 등을 떠나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가극<금강>공연을 통해 남한의 관객에게 통한 정서적 부분이 북한 주민에게도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금강산의 신계사 복원은 남북 불교 간 유대 강화와 인적·물적교류의 확산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기초와 계기를 마련하였고, 봉수교회 예배활동을 통한 남과 북 주민들 간 접촉과 교류는 신앙인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향한 믿음과 의지가 향상되는 계가 되었다.

50) '안학궁 공동조사'를 통해 일본 및 중국의 역사왜곡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남북 역사학자 간 신뢰를 구축한 것이나 기관 간(국립문화재연구소-조선중앙력사박물관), 학자 간 신뢰 구축 등의 예를 보면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에 관계하고 있는 남북한 분야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로 관계 기관, 담당자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 및 신뢰기반이 일정 수준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에는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분야가 다양화되고 남북 합작의 협력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남북문화교류의 한계로서는 첫째,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한 남북문화교류 사업의 중단에 대한 것이었다. 문화교류 사업은 그 속성상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분야이지만,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다는 것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수월해져야하는 요구가 발생하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와 구속력 있는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교류·협력의 발전에 따라 상호이해와 정체성 변화를 위한 남북한 사회의 노력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서로 다른 사회·경제체제 속에서 형성된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의식 구조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상호이해를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켰다. 특히 남한 사회 내부에서는 대북관과 통일관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해소가 중대한 과제로 등장<sup>51)</sup>했고, 북한주민이나 관계기관의 경직된 태도와 폐쇄적인 태도의 극복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셋째, 대중적 참여가 부족했던 남북문화교류의 제한성을 들 수 있다. 여전히 남북 문화교류는 제한적인 인사나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교류의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배려와 예의가 필요하였다. 특히 북측의 문화는 우리와는 다른 부분이 많다. 동상이나 특별한 공간에서의 요구되는 예의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예로써 지키는 마음이 필요한 듯하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무례를 범하기도 하였다.<sup>52)</sup>

---

51) 박순성(2002).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과정(1988~2002년)과 평화통일. 북한연구학회보, 6(2), 181.

52) 문화체육관광부(2013). 앞의 글, 99 : 남한의 악단 중 한 명이 이탈리아 사진기를 들고 여자 교통보안원의 사진을 찍다가 걸려서 스파이 취급을 받고 공연을 취소하는 사건이나 동상이나 국제친선관에서 작가들이 청바지에 손을 넣고 뼈뺀 자세를 보여 보위부가 문체를 삼기도 하였다.

### (3) 남북문화교류의 의의

남북문화교류의 전개과정을 통해 그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남북문화교류는 정치·경제체제의 상이함으로 형성된 생활양식의 차이로 이질화된 생활문화 현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적 난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출현, 중국과의 경제교류 등 외부의 영향에 의한 시장의 형성으로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지만 부유층의 출현은 고급한 생활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시장을 통한 충족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물 향유는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유입의 주기도 짧아지고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실제로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각종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식료품, 기호식품, 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남한 제품이 인기를 모으며 거래되고 있다.<sup>53)</sup> 이에 따라 패션과 주거, 음식 등이 고급화되고 있는데, 고급화의 표준은 남한이다. 남한의 생활양식은 발전되고 세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데다 같은 민족의 것이므로 낯선 서구식이나 중국식보다 더 북한 사람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의 말씨, 남한의 노래와 춤, 남한의 패션과 인테리어 등을 빠르게 모방하고 있다.<sup>54)</sup> 한류를 접한 북한 주민들의 남북한 대조에 의한 남한 ‘동경’이나 남한 체제에 대한 경계심의 완화, 남북한 사람에 대한 동질감 형성, 남한 스타일 모방 등의 현상은 북한 주민의 생활문화적 욕구에 기반한 문화수용으로서 생활과 문화정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조건에서 질의 제고는 가족의 건강과 더불어 행복의 기본조건이며 필수적 조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생활문화적 욕구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여 담보할 수 있는 교류는 긍정적인 문화교류의 효과

53) 박영정(2011). 북한에 부는 ‘한류열풍’의 진단과 전망. JPI, 2011(3), 5.

54) 현인에(2015). 남북한 생활양식. 지식의 지평,(19),16-17.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는 유형·무형 상품 등의 거래를 통한 것으로서 강요에 의한 주입과 수용이 아니라 자율성에 의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교류이다.

언어의 동일성<sup>55)</sup>과 생활정서의 유사성으로 인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등의 콘텐츠들을 자막 없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은 분단으로 달라진 생활과 문화정서의 간격을 메우는 기제로 작동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남북문화교류에서 문화유산 교류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서 남북이 한민족으로서 공유하는 역사를 바탕으로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민족 공동의 자산인 문화유산<sup>56)</sup>은 남북 주민이 같은 역사, 같은 문화 속에서 형성한 것이며, 감정이나 유대감이 담겨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어느 분야보다도 남북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고 보면

---

55) 남북의 이질성 심화에 대한 예로써 언어의 이질성을 들기도 하는데 언어와 어휘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북한주민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의 이질성이라기보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외래어가 많이 섞여 있고, 시대적 상황에 따른 어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봉수(2007)에 의하면, ‘소쉬르는 사회제도로서의 언어(la langue)와 개인이 개성에 따라 사용하는 말(la parole)을 구분하는데, 여기서 말은 시대변화와 개성에 예민하지만 언어는 역사와 사회변화에 쉽사리 변치 않은 공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개인이 자기 개성에 알맞게 쓰는 말도 사회적 제도나 체계 또는 문법으로서의 언어의 주어진 체계 내부에서의 놀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문화일반을 해독하는 방법으로 원용할 때, 말은 특정시대에 유행한 주류문화이고, 언어는 주류문화를 구조화시키는 문화문법에 해당한다. 전자를 결합체적 사술이라 부르고, 후자를 계열체적 집합이라 부르는데 계열체적 집합은 한국문화의 불변적 요소이고 결합체적 사술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가변적 요소이다’ (통일교육의 생활문화적 접근 모색. 윤리교육연구,14,11-12).

56) 장영기(2017). 기업사회공헌, 문화재와의 만남. 서울: 역사문화, 15-16: 문화유산은 문화재의 다른 표현인데, 그 차이에 대해 문화재는 문화재의 기본 법률체계를 보여주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행정을 총괄하는 정부기관 ‘문화재청’ 등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어의 의미는 ‘문화’의 산물이며 그 증거로서 ‘가치[財]있는 대상’을 뜻한다. 문화유산은 문화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서도 문화재를 소중히 잘 가꾸고 지켜 후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는 ‘유산(heritage)’적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다. 이외에도 문화자원, 문화자산 등의 용어도 있는데 생활 속에서 가치 있게 사용될 만한 대상물을 자원이라고 하며, 재산과 유사한 표현으로 유무형의 가치 있는 대상을 자산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문화재라는 용어대신 문화유산을 사용하며, 유네스코세계유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서 정서적 공감의 형성이 자연스럽고 용이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다양성과 고유성이 응축된 문화유산이 남북한 곳곳에 산재해 있거나 우리의 삶 속에 묻어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어느 분야보다 높고 절실하다.

남북문화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에 관광을 통해 북한사회를 경험하거나 북한 주민을 접촉했던 사람의 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압도적 다수이다. 이는 향후 남북문화교류가 원활해졌을 때 역사적인 유물·유적지나 차생산지 등에 관한 관광문화콘텐츠로서 고려해볼 사항이다.

셋째, 남북문화교류를 통해 남북한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상흔의 치유와 오랜 적대감과 및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확인한바 통일의 과정에서 통합의 전제가 된다.

남북문화교류의 접촉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치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촉은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상호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온존한 상호이해 기반체제를 이루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한 사회내부에 여전한 냉전문화라든가 반쪽의 역사를 통해 훼손된 전통과 언어, 그리고 각종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에 의해 상업화된 우리의 민속문화와 문화적 아노미 현상 등을 성찰하게 되는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sup>57)</sup>

세계적으로는 이미 이념적 냉전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냉전문화는 사람들을 서로 반목하게 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대적으로 편을 가르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상처를 깊게 하여 왔다. 그러나 빈번한 교류는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해 할 수 있는 범

---

57) 박신의. (2007). 남한과 북한, 통일의 문화적 조건. 국학연구, 10, 82.

위를 확장할 수 있다. 통번역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건의 남북문화교류는 냉전문화가 더 이상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넷째, 남북문화교류는 불필요한 비용<sup>58)</sup>과 통제들을 거둬내는 계기로서 남북주민들에게 보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분단은 남북한의 균형 있는 사회 발전을 근본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고, 남북관계 진전과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였으며, 학문의 연구에 한계로 작용하고 개인의 일상적 삶을 제약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남북문화교류가 당장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한 긴장완화, 전쟁방지, 평화통일, 대북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수단으로 일조할 수 있다.

## 2. 남북 차문화교류의 배경

### 1) 민족문화의 복원

남북한 주민이 분단 70년으로 인한 공유할 수 없는 역사와 문화보다 분단 이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공유가 더 깊고 크며, 오랜 세월 동안 공유해온 언어와 문화가 유사하다는 것은 일치감을 부여한다. 따라서 정서적 측면에서 이질화보다는 소통지점이 훨씬 많으므로 통일

---

58) '5.24'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의 폐쇄'결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비용은 남북관계가 좋아서 남북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었다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

을 대비한 문화통합·정서적 공감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공동체에서 언어가 서로 통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서적 공감이 용이하다. 공동의 역사와 문화 바탕 위에서 그 언어에 내포된 본질의 의미를 달리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sup>59)</sup>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하면서 형성한 문화정서는 어휘의 쓰임이 달라졌어도 언어의 느낌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민족공동의 문화유산이 문화와 언어가 동일한 시대에 남겨진 남북 분단 이전 시기까지의 문화자산을 구체화한 시킨 용어<sup>60)</sup>라 할 때, 차문화는 남북 분단 이전시기에 공유했던 역사성을 갖는 문화로서 민족문화 복원의 근거가 된다. 민족공동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이 해당되는데, 차에 관하여 우리 정부는 차(茶) 만드는 전통 기법 ‘제다(製茶)’를 국가무형문화재<sup>61)</sup>로 지정하였다. ‘제다(製茶)’는 삼국 시대부터 차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고,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가 저술한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등의 다서(茶書)가 전해지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차 제조기술이 변화·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제다(製茶) 기법이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다. 차 만드는 과정과 마시는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차문화교류를 통한 민족문화의 복원이란 무형의 ‘제다’ 뿐만 아니라 차 관련

---

59) 김종근, 앞의 글, 6.

60) 정호섭(2013). 민족공동 문화유산관련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평가. 한성사학, 28(0), 3.

61)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서 제다에 관해서 차산지가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구례 등 한반도 남부 지방의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일반적으로 공유·전승되고 있으므로, 종목만 지정되고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2014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해 ‘아리랑’(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을 보유자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유물·유적의 공동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교류의 지속과 우리 민족의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조명해 볼 수 있고 새로운 차문화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원형<sup>62)</sup>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남과 북이 문화유산을 매개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또한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변화과정, 문화유산의 관리체계 등에 대한 이해<sup>63)</sup>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에서 제출한 무형문화유산 종목 리스트를 살펴보면 전통 공예, 예술분야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우리의 지정문화재 종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sup>64)</sup>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문화유산보호법의 제정 후 후속 조치로 2013년 말부터 ‘국가 비물질 민족유산’ 등록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1월에 아리랑, 김치 담그기, 연백 농악무, 씨름, 평양냉면, 막걸리 등 6개 유산을 ‘국가 비물질 민족유산’ 표 목록에 올리고 인류무형유산 등재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해왔다. 아리랑, 김치 담그기는 남북이 각각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였다.

남북한 무형문화유산의 교류 사례로는 지난 1991년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했던 ‘세계탁구선수권회’ 시작으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행사에서 남북한이 동시 입장할 때 ‘아리랑’을 국가 또는 공동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데, 얼마 전 남북 공동으로 고유의 세시풍속 놀이 ‘씨름’을

---

62) 심상민(2016). 신라문화콘텐츠 디지털플랫폼 활용 방안. 인문과학연구, 34, 321-322; 이재수(2009). 불교문화원형,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정토학연구, 264, 268, 271-272; 문화원형은 창작의 원천으로서 원형(原形: Originality, Identity, Archetype) 과 원형(原型: Prototype)의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으며, 이를 문화콘텐츠로 제작하는데 One Source Multi Use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문화원형을 콘텐츠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첫째,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문화자원적 의미로 접근하여야 하고, 총체적 복합체로서의 문화에 주목할 것과 둘째, 다양한 활용을 전제로 한 문화상품의 소재로 접근하여야 한다. 불교의 템플스테이와 같이 유형의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무형의 불교적 가치와 생활문화의 체험을 통한 내면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보존과 활용이 결합된 문화콘텐츠 제작을 염두에 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63) 정창현(2012).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통일인문학, 53, 223-224.

64) 신현욱, 박영정(2014).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국민요학, 41.; 황권순(2011). 북한 무형문화유산 현황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91.

사상 처음으로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sup>65)</sup> 하였다.

문화유산은 분단체제 이전에 만들어진 남북의 공동자산으로 민족동질성의 확인 및 형성에 원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남한의 경우 역사연구에 있어서 지역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조선시대라는 시간적 한계에 머무른 측면이 강한데 고구려나 고려와 관련한 유적지의 접근 가능성은 학문연구의 통시적·공시적 범위를 확장해준다. 차문화사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에서의 차문화사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협소하여 조선시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경향이 강하다.

문화유산을 매개로 유네스코 공동 등재사업을 위한 교류나, 문화재보존사업과 관리 및 복원사업, 문화관광콘텐츠 공동개발을 통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크다. 민족의 동질성이란 민족성에 대한 공유와 확인으로서 공동의 문화유산을 통해 복원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문화를 고찰했을 때 분단 70년의 유전보다 5천년의 역사적 경험의 유전<sup>66)</sup>이 훨씬 더 강력한 공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보며, 남북문화교류에서 차문화교류를 통해 민족문화, 전통문화의 맥락에서 정서적 공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65) 데일리안. 2018.11.26: 한반도 고유의 세시풍속 놀이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을 통틀어 남북이 함께 등재한 첫 사례다. 남북은 아리랑과 김장문화(김치 만들기)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보유 중이나, 2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각각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려 공동 등재는 아니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26일 아프리카 모리셔스 수도 포트루이스에서 개막한 제13차 회의에서 남북의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했다. 정식 명칭은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

66) 리처드 도킨스(1993).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을유문화사, 333: 리처드 도킨스에 의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유전은 생물학적 DNA 유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유전자에 의한 유전도 있다고 한다.

## 2) 남북 생활문화의 상호이해

남북의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이념차이로 인한 이질감은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문화나 남한주민에게서 느끼는 것보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문화나 북한이탈주민에게 느끼는 이질감이 더욱 커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감은 ‘민족문화의 이질화’라기보다는 ‘분단생활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과도기적 ‘생활문화의 이질감(괴리감)’<sup>67)</sup>이라 사료된다. 앞으로는 분단 시기 동안 만들어진 생활문화의 이질감과 간격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차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심신의 수련을 하게 하는 민족의 문화로 정착되어 왔다. 차는 단순히 음용을 위한 기호품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와 생활문화를 담아내는 중요한 삶의 요소<sup>68)</sup>이므로 남북주민 간의 생활문화의 괴리감을 좁혀나갈 수 있는 문화인 것이다.

### (1) 남북 차문화교류를 통한 생활문화 공감 형성 사례

통일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국민의 직접 참여와 체험이 필요하며 이러한 참여와 체험은 생활문화 가운데 이루어질 때 문화의 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남북 공통의 생활문화로서 차문화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진행된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에 의한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2015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차

---

67) 양영식, 김경웅(1991). 독일통일을 전후한 문화교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의 시사점. 문화정책논총, 3, 19.

68) 주영애, 조선주(2009). 차문화교육의 효과성 연구의 동향. 생활문화연구, 24(1), 2.

문화체험'과 '한국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다음 <그림2-1>과 같다.



<그림2-1> 성신여대 탈북청소년 차문화교육(좌), 예절교육(우)  
(2015.02.09.)

남양주시는 2015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학생 4~6학년 총 36명의 학생과 함께 남북분단의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과 지역 내 역사, 문화, 관광을 배우고 익히는 '茶(차) 문화 지역사랑 탐방'을 진행하였다.<sup>69)</sup>



<그림2-2> 남양주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통일기원'茶(차) 문화 지역사랑 탐방'

남북한 간의 차문화교류를 준비하는 '남북차문화교류협의회'는 2018년 6월 서울시 50+재단의 '모두의 축제'에서 '북한차 시음회'의 찾자리를 마련하여, 강령

69) 엔케이엔 뉴스 2015-11-03 : 남양주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茶(차) 문화 지역사랑 탐방"

녹차와 강원도 고성녹차, 하동과 보성, 제주도의 녹차로 시음행사를 하였다. 차시음자들은 먼저 북쪽에서 차가 생산되는 것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했고, 납작하게 눌린 차모양이 이색적이며, 향기와 맛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 차 시음회와 고성의 녹차제다실습은 다음 <그림2-3>와 같다.



<그림2-3> 2018.6.29. 50+서울중부재단 ‘모두의 축제’ 협찬(좌)와 강원도 고성에서 녹차 제다실습과정(우)

## (2) 남북 차문화교류를 통한 생활문화 공감 형성의 가능성

차문화교류를 통한 생활문화요소로서 남북한의 생활문화정서의 간격을 줄이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한류현상은 남한의 생활문화에 대한 접촉의 빈도를 높여주었으며, 남한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용하고,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가요를 따라 부르고, 남한의 생활문화양식을 따라 하는 등 분단으로 이질화된 생활의 간격을 좁혀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차문화는 공동의 생활문화정서로서 공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간격을 좁혀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6년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sup>70)</sup>에서 북한주민의 한류접촉경험을 보면 북한 거주 당시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를 접해본 경험자의 비율이

70) 김병로 외(2017).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03.

88.4%에 달했다. 이 중에서 자주 접해본 사람은 52.2%였고, 한류에 대한 느낌은 매우 친숙했다는 응답이 58.7%, 약간 친숙했다는 응답이 24.6%로 나타났다. 이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접촉이 잦을수록 생활문화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잦은 접촉은 특히 일상적 생활문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차문화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한편 분단의 장기화로 대두된 남남갈등의 문제는 더 이상 이성이나 당위적 차원과 감성을 각각 분리한 통일공감대 형성이나 민족동질성 회복은 어렵게 되었으며, 이들의 상호 유기적 관계 안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분단 이후 남한 주민에게는 북한사회와 문화, 북한 주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금기’로 간주되었고, 국가의 대북 정책에 따라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강화되기도 했다 유화되기도 하는 지극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인 분단국민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북한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변을 살피는 위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sup>71)</sup> 반공논리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던 정치지향 등은 사람들 마음속에 같은 문화와 전통을 가진 북한을 철저하게 심리적으로 멀고 먼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sup>72)</sup>

생활문화 정서적 공감에 대하여 인간 삶을 둘러싼 총체적인 생활양식으로 개인과 사회의 생활양식은 가정과 교육환경, 사회 환경을 통해 각 개인과 사회의 독특한 고유성이 획득되며 일정한 정서로 읽혀진다. 드라마나 영화, 또는 가요나 책을 볼 때 통번역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생소하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정서를 미루어 보건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느끼는 정서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2018.4.27.판문점 정상회

71) 김종균(2017). 남북주민의 정서소통기제로서 대중가요. 통일인문학, 71, 5-38.

72) 박재영(2010). 통일을 대비한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디지털 전통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37, 157.

답73) 동안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적인 의·식·주의 생활 속에서 음식을 나누고 차를 나누는 마음, 감정, 정서 등의 공감을 통하여 빈번하고 지속적인 문화의 교류가 있다면 서로 달라진 부분에 대해 익숙해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상호 수용하고 변화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통일의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3. 정서적 공감

#### 1) 정서적 공감의 개념

##### (1) 정서

정서(情緒)<sup>74)</sup>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지역이나 집단 따위와 관련된 한정적 특성을 가진 성향, 갑자기 일어나는 노여움, 두려움, 기쁨, 슬픔 따위의 급격한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sup>75)</sup>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정서는 지역이나 집단의 감정이나 분위기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반하여, 학문적 연구와 교육 현장이나 심리학의 임상의 환경에서는 감정에 기반 하는 마음 또는 기분이나 느낌 등의 개

73) 2018.4.27 남북 두 정상 간의 회담에 별도의 통역이 불필요하였으며, 북한의 김정은위원장의 평양냉면에 관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을 점심시간에 평양냉면집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극한의 인상이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으로 변하는 현상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 사료된다. 냉면 한 그릇으로도 단단하게 쌓여졌던 적대감과 비호감, 혐오의 감정을 관심과 호감으로 변하게 만드는 문화현상은 분단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적대감과 상호 이질적 문화의 극복이 그리 불가능하거나 어렵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74) 김성룡(2010). 정서(情緒)와 문학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20, 5-32: ‘情’이란 단어에 ‘緒’라는 말이 덧붙은 정서(情緒)란 정(情)을 말의 골간으로 하여, 서(緒)로써 그것을 형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75) 다음어학사전 [http://www.daum.net/?nil\\_profile=mini&nil\\_src=daum](http://www.daum.net/?nil_profile=mini&nil_src=daum)

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情緒’라는 말은 마음이 계속해서 머물고 머뭇거리는 상태로서 ‘끝없이 이어지는 감정과 생각, 심정’<sup>76)</sup>을 가리켜서 특별히 더 복잡하고 지속적인 감정<sup>77)</sup>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는 정서심리학이나 경영마케팅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교육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며 인간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는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과 처해지는 정황이나 실정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서 우리나라는 정서로서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사회구성원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 그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성향을 말한다. 이는 문화와 결합하여 특정 지역 또는 민족의 고유한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이다.

정서란 개인적인 감정이 확장되어 사회적인 공통분모를 얻어내어 형성되기도 하지만, 개인적 차원과는 거리가 먼 외부적 영향이 개개인에게 작용하는 반대의 경우도 공존한다.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은 그 자체로는 사람의 밖으로 드러나는 상태일 뿐 어떤 ‘의미’도 담겨있지 않다. ‘의미’란 문화가 양산하는 것으로 감정에 접목되어 기본적인 감정을 우리가 정서라고 느끼고 경험하게 만드는 좀 더 정제되는 감정으로 변화시킨다. 그러한 ‘의

---

76) 『사원(辭源)』에서는 정(情)의 첫 번째 뜻으로 감정(感情), 정서(情緒), 두 번째 뜻은 애정(愛情), 세 번째 뜻은 진정(眞情), 네 번째 뜻은 정황, 실정, 다섯 번째 뜻은 정태, 자태, 여섯 번째 뜻은 취미로 정의하는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개념은 회로애락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사람이나 사물이 풍기는 분위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남북조 시대의 江淹의 ‘泣賦’에 나오는 “閨寂以思, 情緒留連”이란 구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緒’는 『辭源』에 의하면 일차적인 뜻은 ‘실마리’라는 뜻이고, 기타 실의 형상물들을 지칭한다고 되어 있다.

77) 고정희(2010). 정서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20, 34-37: 고정희는 정서교육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고문헌에 나타난 ‘주변 사물의 분위기나 타자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감수하는 소통능력’을 지향하는 정서개념을 고찰하였다.

미'의 근거는 사회구성원들이 그 감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계와 상호 연관성으로, 사회정서에 따라 감정은 의미 부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와 개인의 관계와 상호 연관성은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독특한 분위기의 정서를 만들어 낸다.<sup>78)</sup> 이러한 정서는 일정한 사회나 지역과 개인 또는 집단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공감하는 감정이나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이나 집단 등과 관련된 한정적 특성을 가진 성향으로서 일정한 감정이나 느낌 등에 비하여 지속성을 갖는 속에서 일정한 성향으로 만들어진다. 정서는 민족정서, 국민정서, 지역정서, 생활정서, 취미나 종교에 따른 정서 등 다양한 층위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란 영어의 'Culture'나 독일어의 'Kultur' 등을 번역한 말로써 라틴어 'Cultus'에서 유래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밭을 갈아 경작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가치를 창조하다"라는 의미로 변화되어<sup>79)</sup>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sup>80)</sup>로서 인간이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체<sup>81)</sup>이며 인간의 다양한 행동양식과 관련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역동적 개념<sup>82)</sup>으로서 문화를 넓은 의미로 확장

78) 서진석(2007). 에스토니아 민요에 등장하는 전통정서 바엡(Vaev)-리투아니아 정서 시엘바르타스(Sielvartas)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동유럽발칸학. 9(1), 120.

79) 유태용(1999).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 학연문화사, 10.

80) 『문화기본법』 제3조

81) 피터버그, 조한욱 옮김(2005). 문화사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길, 23, 59: 피터버그는 "1780년 이후로 인간 문화의 역사 또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가 나타났으며, 1871년 에드워드 타일러의 『원시문화』에서 광범위한 인종지학적 의미로 받아들인 문화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체"라고 하였다.

82) C.A.반 퍼슨, 강영안 번역(1994).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서울: 서광사, 3-4: C. A.반 퍼슨(Peursen, Cornelis Anthonie van, 1994)은 "19세기 영어나 독일어에서 문화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졌지만 프랑스는 문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인류학적 관점에서 문화라는 용어의 사용이 확대되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모두 문화이다. 문화는 전승된 사물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는 무엇보다 '결정하고 변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하였다.

문화는 일정 사회의 “전형적인 생활양식”으로서 문화의 개념 안에는 전통과 계승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sup>83)</sup>

문화는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고급문화<sup>84)</sup>를 가리키며, 예술과 과학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문화의 개념은 더 포괄적으로 되어 교양 있는 특정 분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생활문화까지 포함하는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문화가 생활양식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어 생활세계의 삶의 방식 또는 상징체계의 표상이라는 의미로 거시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거나 반대로 심미적 가치나 감성적 욕구 및 정서적 맥락 등을 강조함으로써 미시적 차원에서 사용되기도 한다.<sup>85)</sup>

21세기의 문화란 대중문화로서 다양한 일상의 삶의 행위와 방식이 총합되어 어떤 의미를 생산하고 소통되는 장소이다. 베넷(Tony Bennett), 에덴서(Tim Edensor) 그리고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문화를 일상생활의 행위와 경험에서 나타나는 생활양식으로 접근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

인간의 활동이다. 문화는 정태적이기보다는 역동적이고, 명사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동사에 가깝다.”

83) 유태용. 앞의 글, 11에서 재인용.: ‘미국의 인류학자인 코탁(Kottak 1994)은 《Anthropology》에서 문화란 사회의 성원들에 의해 학습되고, 공유되고, 양식화되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길표, 주영애(1999).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 신광출판사, 11.; 피터버그. 앞의 글, 53.; 광미숙 외(2017).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와 차문화적용 탐색. 한국콘텐츠학회지, 17(6), 278.: 문화는 공동체성을 전제하며 공감을 필요로 한다. 개인이 개별적, 일회적으로 하는 행위는 문화라고 할 수 없지만 유기적 관계 안에서 공감되고 공유될 때는 문화로서 의미를 갖는다. 문화는 생래적이고 본능적인 행위의 반복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 삶의 과정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므로 문화의 창조적 계승이 가능하게 된다.

84) 최셋별(2006). 한국 사회에 문화 자원은 존재하는가?. 문화와 사회, 1, 125-127: 서구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의 정통문화라는 것은 구조화된 계급구조에 뿌리박고 여러 세대에 걸친 장시간의 사회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 문화이다. 서구 사회에는 사고와 표현의 정수이든 상층계급 또는 지위 집단의 “취향 문화”이든 그 사회의 특정집단이 체화하고 있거나 그 사회에서 당연히 권위를 인정받고 있어 상식적으로 고급문화로 분류되는 예술, 생활양식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귀족전통이나 고급문화 전통의 부재, 사회이동의 개방성에 대한 믿음과 평등주의 등이 미국사회와 한국 사회의 유사점이며 유럽사회와의 차이점이다.

85) 서문기(2105). 문화적 가치체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9(2), 81.

할 수 있다.<sup>86)</sup> 즉 일상은 문화가 만들어지는 최소 단위로서의 장소이다. 하나의 문화에는 다양한 일상의 생활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보면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의 변화와 전망을 읽을 수 있다. 일상이 사회적 성격을 규정한다는 르페브르의 지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87)</sup> 문화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어느 인간 집단의 삶의 유형 또는 생활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사람들의 단위 모임을 사회라고 한다면, 문화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따르는 것으로 일상성에 초점을 맞춘다.

일상 생활양식으로서의 생활문화는 인간 삶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서를 반영하여 표현하며, 개인과 가족, 사회의 문화정체성과 고유성을 형성할 수 있다. 생활문화는 생활주체로서의 생활인이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만들어 나가는 문화의 측면 중 삶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고유의 생활문화정서를 형성해간다.

모든 문화는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 위에 고유한 정서들이 결합되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며, 그 정서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즉 인간은 분노·공포·기쁨·슬픔 등의 정서를 갖고 있으나 각 지역과 사회의 문화에 따라 그 표현방식을 달리 하게 된다.<sup>88)</sup> 정서적 삶의 다양성은 개인의 성격이나 학습에서도 기인하지만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 한국인의 정서적 삶은 다른 민족의 정서적 삶과 다른 면을 갖게 되며, 이러한 독특성은 한국문화에 의해서 형성된다.<sup>89)</sup>

86) Tony Bennett, Culture: A Reform's Science, London, Sage, 1998; 팀 에텐서, 박성일 옮김,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이후』, 2008; Raymond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NewYork, Broadview Press, 2001, 남근우(2014). 북한 시장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통일인문학, 58, 168 에서 재인용.

87)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옮김(1995).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主流·一念, 63.

88) 달팽이 요리와 보신탕에 대한 문화의 차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즐거운 마음일 수도 있고 혐오의 마음일 수도 있다.

89) 민경환(2013). 한국인의 정서적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인은 누구인가. 과주: 21세기북스, 173.

정서가 문화와 결합하여 일정 사회나 집단, 지역의 고유성과 개성을 나타내며 다른 집단이나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하고 독특한 민족문화, 지역문화, 직장문화, 학교문화, 가정생활문화, 청소년문화 등 다양한 층위의 문화를 창조한다. 즉, 해당 문화가 반영되어 표현되는 정서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공감의 형성이 용이하게 된다.

생활문화<sup>90)</sup>는 가정환경체계가 근접환경체계, 광역환경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보완되고 결합되어 독특성과 고유성을 지니게 되는데, 여기에는 생활정서가 개인과 집단, 지역과 사회의 정서로 내면화되어 반영된다. 이렇게 내면화된 정서는 언어와 신체를 통해 표현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 단위들의 고유한 문화가 형성되어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문화정체성은 단일화 획일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문화의 고유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문화의 정체성은 한국적 정서에 기인하며 이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한다. 정부와 많은 단체들은 외국과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전통문화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알리고 있다. 전통문화는 한국문화의 상징이며 정체성을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한국의 성씨와 한국어 사용, 한국인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융합되어 존재하는 생활

---

90) 이기춘, 앞의 글, 102: 인간의 생활문화는 크게 내면화된 가치, 신념과 같은 사고방식과 무엇을 먹고, 입고, 어떻게 즐기는가 하는 생활양식으로 나타난다.; 배영동 (2017). 근현대 생활문화 조사와 연구의 방향. 민속학연구, (41), 8-9.: 생활문화라고 하면 주로 일, 의식주, 사회관계 등의 일상생활에 강조점이 더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비일상적인 의례와 여가 등의 문화현상도 그에 포함된다.; 박명희 등(2003). 한국의 생활문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파주: 교문사. :생활문화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개인 또는 가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특성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상징과 의미의 체계이다.; 계선자 등(2009).가족과 문화. 서울: 신정, 26: 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각 집단에 따라 형성되는 의식과 양식의 총체이며 일상적인 삶이 행해지는 소재, 즉 공간과 시간, 의복, 주거, 음식, 출산 등으로 구성되는 총체라고 하였다. 생활문화란 개인이 일상 생활을 통해 살아가는방식으로서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있어서각집단에따라형성되는의식과 양식의 총체이며, 일상적인 삶이 행해지는 소재, 즉 공간과 시간, 의복 주거음식 출산 등으로 구성되는 총체.

문화를 공유하고, 주체의식을 지니며 계승하는 일련의 행위 수행<sup>91)</sup>과 조화/어울림, 신명/흥, 정/사랑, 열정/도전/진취성, 공동체문화, 풍류/낭만/해학/풍자, 소통/열림/공유, 끈기, 한, 여유를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sup>92)</sup>로 조사된 바 있다.

우리 민족정서의 특징으로 신명풀이는 집단적 정서와 가깝고 한풀이는 개인의 정서와 가깝다.<sup>93)</sup> 즉 우리 민족정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내면에 있는 감정 등을 표현하고 발산하는 정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는 역사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한이라는 정서는 한반도에 살았던 선조들이 본연으로서 지녔던 정서라기보다 지정학적 위치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침략을 당한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정서로서 한국인의 열정이 긍정적일 때는 흥으로 드러나고 부정적일 때는 한으로 승화되는 것<sup>94)</sup>으로 볼 수 있다.

고려미술관 개관사에서 하루의 생활을 문화로 바꾸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라고 말한 정조문은 일본 노학자와 인터뷰에서 조선의 화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상평을 전하면서, 조선 장인들의 정감 있고, 자유로운 자세와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만 같다<sup>95)</sup>고 하였다.

“조선의 화각자는 조선여성이 안방에서 바느질하면서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화조풍월을 사랑하는 다정함을 표현한 것이며, 물건을 채는 도구이지만, 중국과 같이 엄밀함이나 일본과 같은 결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91) 주영애(2018). 한국 가정의 생활문화, 32-34.

92) 황병기(2014). 일상에서 읽는 한국인의 정체성. 국학연구, 24, 435.

93) 김순진(2005). 한국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 한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9.

94) 황병기. 위의 글, 432.

95) 정조문, 정희두 편저, 최선일 등 편역(2013). 정조문과 고려미술관. 고양: 다연, 12, 26.

즐기는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조선인의 너그러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기보다 마음가짐을 존중한 것이죠. 그러한 여유가  
풍부히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이화(2012)<sup>96</sup>)는 아리랑과 판소리, 굿이나 축제, 그림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즐기며 일상적 생활을 예술적 삶으로 표현할 줄 아는 우리의 정서로  
신명과 애환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정서는 공감의 필수 전제조건이면서, 공감의 결과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서와 공감은 소통과 공감의 관계처럼 상보적 관계라 할 수 있  
다. 어떤 사안이나 상황, 감정에 대해 소통을 잘 하게 되면 공감도 풍부해  
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질 것이며, 공감을  
잘하는 관계에서는 소통이 원활하고 빈번하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 정서는 민족문화, 지역문화, 직장문화, 학교문화, 가정생활문  
화, 세대문화 등의 바탕이 되며, 해당 문화를 읽을 수 있는 표지(標識)로서  
의 정서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 지역의 정서에 대한 이해는 상호 이해  
와 공감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며 증대 시킬 수 있다. 타인 또는 다른 집단  
이나 지역의 문화정서에 대한 이해 없는 접촉은 오히려 오해와 갈등의 요  
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호 교류와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서에 대한 공  
감이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된다.

## (2) 남북한의 정서

본 연구는 공감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정서에 주목하며, 분단 체제하에서  
다르면서도 같은, 같으면서도 다른 현상이 존재하므로, 공통된 공감의 문화

---

96) 이이화(2012). 처음 만나는 우리문화. 파주: 김영사, 250-263.

정서로서 남한의 문화정서와 북한의 문화정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들의 의례성, 가족주의, 집단주의, 정(情), 효(孝) 등의 윤리와 정서 등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특성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정서로 존재해왔다. 이종은(2005)에 의하면, '한국적 정서는 사고방식, 행동방식, 표현방식, 생활방식의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있는 한국인 나름의 독특한 자질 즉 한국인의 감정과 정서의 총체적 동일성'97)을 일컫는데 유교사상은 한국인의 생활 속에 전달되는 실천적 의식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를 거치며 희석되고 서구화된 가치관과 혼성되어왔다. 한국인의 지배적인 정서로서 혈연, 지연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의 질서 속에 다양한 정(情), 충(忠), 효(孝), 예(禮), 공경(恭敬) 등의 유교적 윤리규범이 존재하고 정은 가족, 친구, 사제, 이웃, 동료 등의 개인적, 사회적 관계 결속과 지속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누적적인 정서의 의미98)를 가지며, 가족주의는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 정서로 볼 수 있다.

남한사회가 급격한 압축 성장으로 공동체문화의 많은 부분이 해체되어 있지만 집단주의적인 정서가 바탕에 흐르고 있음을 전제한다.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을 지나오면서 젊은 세대를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구의 젊은이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집단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조궁호(2013)99)는 호프스테드가 제시한 문화비교연구100)를 기

---

97) 이종은(2005). 한국전통적 소재를 활용한 광고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19(1), 41.

98) 이은주, 김종덕(2014).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TV광고 캠페인의 기호학적 분석과 의미 변화.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7(3), 153-173.

99) 조궁호(2013). 한국 집단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인은 누구인가. 파주: 21세기북스, 170-171.

100) 조궁호, 위의 글에서 발췌: 호프스테드(Geert Hofstede)는 국가 간, 또는 문화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요인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사회 내 권력 분포의 불평등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권력거리'이고, 둘째는 자기주장·물질적 성취·경쟁 등 남성적 가치를 선호하느냐 아니면 배려·조화 같은 여성적 가치를 선호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남성성/여성성', 셋째는 불확실한 상황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불확실성 회피', 넷째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집단의 목표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느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개인주의/집단주의'다.

반으로 한국은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일 가능성이 크고,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명시적 규범(법과 규칙)과 암묵적 행동원리(유교적 신념과 선호) 사이의 괴리로 인한 문화 이중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분단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서 압축성장은 서구의 산업사회가 달성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산업화와 도시화, 근대화를 이루게 하였다. 여기에서 파생된 시대적 유행 언어는 ‘부자되세요’와 ‘빨리빨리’의 문화일 것이다. 이러한 ‘빨리빨리의 정서’는 초고속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였고 전 세계에서 IT인프라가 제일 잘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며,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양산하게 되었다. ‘퀵배달’이라는 업종의 등장으로 과거 자장면만 배달되던 음식이 이제는 배달되지 않는 음식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삶에서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시간과 돈으로 계산하는 경향성을 띤다.

분단이라는 상황은 비판과 토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근대적 개인의 합리성이 건강하게 함양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와 다른 의견이거나 반대를 하는 상대방에게는 몰아붙이는 식의 공격을 하는 모습이 남아 있다.

산업화시기에 태어나서 성장한 세대와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나서 태어난 세대와는 그 정서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산업구조의 조정과 변화,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의 생활문화와 다른 생활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지향적 문화에서 사회지향적 문화, 사회의존적인 생활문화를 보이고 있으며,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의 유대를 통한 생활문화의 계승보다는 개인적인 삶의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 생활문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개인 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문화로 바뀌고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에서 시간중심의 생활문화로 변모해가고 있다.<sup>101)</sup>

남한의 정서는 산업화 및 근대화와 함께 유입된 서구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내면화되어 우리의 가치가 되어 있는 한편 여전히 유교적 심성으로 사람의 인정(人情)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라는 언어와 집단적 놀이와 가무를 즐기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주의적 정서가 공동체 정체성<sup>102)</sup>으로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억압기제가 주민들의 복종을 강제하기 때문인가? 북한체제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에는 북한의 생활방식이 주민들의 일상에 착근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생활방식은 하나의 일상화된 문화로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삶과 행위의 도덕적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sup>103)</sup> 북한 주민들의 사고와 행동은 북한의 지배문화가 만들어 놓은 생활양식과 정체성에 구속되어 장마당을 통해 유입된 외부의 문화가 충격적으로 작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은정권 이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건설을 위한 경제발전정책으로 남한사회에서 산업화시기에 잘살아보자는 마음의 일치단결이 가능했던 것처럼 좀 더 잘 살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불평과 불만의 저항보다는 ‘단번도약’을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단결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101) 주영애(2018). 한국 가정의 생활문화. 서울: 신정, 9-10.

102) 예를 들면, 1997년 IMF 관리체제 시기에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열정이나 2016년 전 세계 유례없는 인원이 동원된 촛불혁명 등을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공감하여 함께하는 내적인 힘이 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열정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지배를 받았어도 온전히 빼앗긴 적은 없으며 자기 말과 글을 간직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103) 남근우(2014). 북한 시장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통일인문학, 58, 165.

해방 당시 남북의 문화구조는 식민지반봉건 골격의 정치적 기반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해방이 되면서 북한은 ‘반제반봉건투쟁시기’로 해방공간을 정리하면서 ‘식민지잔재 청산’을 밟았다.

1947년 이후 사회주의 혁명단계로의 이행은 북한의 농촌 곳곳에 낡은 사상과 생활관습에 대한 청산을 요구받게 되지만 여전히 전통문화적인 유산들이 남아 있었던 상태에서 ‘달린 사회’로 나아갔으며, 청산하려 했던 ‘전통’을 1960년대 이후 정권의 유지와 세습을 위해 이데올로기로서 작동시켜 ‘우리식’, ‘민족제일주의’의 문화<sup>104)</sup>를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의 문화가 남한의 70·80년대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디자인의 낙후감이 라기보다는 대중화의 연장선상에서 선전선동의 수월함을 고려한 통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민요의 특징을 혼종성 속에서 고찰<sup>105)</sup>한 바에 따르면, 통속성과 낙천성을 북한의 정서로 읽을 수 있다.

3대 혁명 목표의 하나로 제시된 문화혁명은 일상생활에서 실용주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는데, 김일성은 전통적인 제사 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1974년 1월10일 전국농업대회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식과 제사의식을 간소화 할 것을 지시했다.<sup>106)</sup>

104) 김정일선집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1993, 52-53: 김정일(1970.3.4.)은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처리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최근에 와서 일부 편협한 사람들에 의하여 민족문화 유산을 다루는 데서 일련의 편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문의 일부 일군들은 봉건 유교사상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을 덮어놓고 나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인민들이 즐기던 춤도 추지 못하게 하고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서 나온 하나의 편향입니다.”라고 하였다.

105) 이소영(2010). 해방 후 남·북한의 혼종적 음악하기. 한국민요학, 29, 301-374.

106) 김일성저작집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35-36: 김일성(1974.1.10.)은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에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낡은 생활습성의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다 많

북한의 제삿날 풍습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고인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자리로 대신하고 있는데 오늘날 남한의 기독교식 추모와 유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생활문화<sup>107)</sup>를 보면 김치를 먹고, 한복을 입는 것과 같은 의식주의 대부분을 공감할 수 있고, 윷놀이, 씨름, 닭싸움 등의 민속놀이와 전통문화, 경로효친의 의식과 사람의 도리로서 인정과 예절을 잘 갖춰야 한다는 생각의 기저에는 유교문화가 정서로써 작용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용이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공감의 개념

남북의 교류에 있어서 상호 공감 없는 교류는 이해타산적·형식적 교류에 그칠 뿐이며 오히려 차이로 인한 구별짓기가 차별의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통합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공감이 있다. 공감은 다른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적개심을 줄일 수 있으며(Hoffman, 2011)<sup>108)</sup>, 통일 주역으로서 남북 주민 간 공감은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이며 삶의 바탕으로서, 특히 삶의 현실에서 공감대형성은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감의 개념<sup>109)</sup>은 철학, 심리학, 생물학, 교육학 등의 학문 분야마다 다양

---

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날에 무덤 앞에 꽃다발을 가져다 놓든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날의 투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07) 김병로(2016), 전영선(2016), 주영애 외(2017) 등의 저서를 종합하여 본 바에 따른 것이다.

108) 이수지(2017). ‘공감’기반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에서 재인용.

하게 정의되고 있어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sup>110)</sup>으로 보고 있다. 최근 타인의 감정에 대해 반응하는 행위로써의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에 실천적 개념인 ‘의사소통적 공감’을 합친 개념<sup>111)</sup>을 공감으로 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감은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공감이 아니라 생활세계에서의 체험을 통한 경험의 공유로서의 생활문화 관점을 견지하며 공감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공감에 관한 연구와 관심의 연원을 서구의 관점에서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에 두는 입장과 공자주의에 두는 동양철학적 관점<sup>112)</sup>이 있다.

서양철학사에 있어서 ‘공감’의 개념은 샤프츠베리(A.A.C. Shaftesbury, 1671-1713), 프란시스 허치슨(Francis Hutcheson, 1694-1746),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등의 17세기와 18세기 영국의 모럴리스트<sup>113)</sup>들에 의해 등장 하였다.

- 
- 109) 박민(2012).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재활심리연구*, 19(3), 388: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공감에 관하여는 정서적 전염, 동정, 타인의 관전수용,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 등을 의미하는 상위범주의 개념과 공감의 하위개념으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분류한다.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공유하고 그 표현에 반응하는 능력이며,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생각, 바람, 믿음, 의도, 인식과 같은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 110) 박병춘(2009). 공감 발달을 위한 도덕교육 방법. *홀리스틱교육연구*, 13(1), 130:공감 개념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Gribble과 Oliver(1973), 인지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Mead(1934), 정서주도적인 관점에서 정서적 반응의 비자발적인 감염현상에 관심을 두고 정의한 대표적인 사람은 Hoffman(1984)이다.
- 111) 이수지(2017). 앞의 글, 25.
- 112) 황태연(2015).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파주: 청계*, 43, 65: 서양철학은 17세기 맹자의 도덕이론과 시비지심을 수용한 이래 정체성 도덕에 속하는 본성적 도덕감각의 이론을 전개해왔으며, 맹자의 라틴어 번역서(1711)를 직접 읽은 것으로 보이는 샤프츠베리에 의한 시비감각론의 영향에 대해 기술하면서, 공감은 동아시아에서 2500년 전 공자에 의해 철학에 도입된 것으로 보며 공자의 논어, 대학, 중용에서의 언급되는 서(恕)로써 공감을 설명하고 있다.
- 113) 황태연은 영국의 모럴리스트로 번역하고 19세기 후반 찰스 다윈이 공감 또는 동정심이 없는 사람을 부자연스러운 괴물이라고 말한 것을 획기적 선언이라고 하고 있다. 황태연. 위

홉과 스미스의 공감 개념은 다윈(C. Darwin, 1809-1882)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대공감이론의 다양한 분야, 즉 동물학, 뇌의학, 심리학, 철학, 문명론 등 인간의 공생, 연대와 관련한 능력, 교육적·심리학적 효과, 진화적 작용, 뇌의 공감작용 등과 관련한 연구가 학문적 경계를 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114)</sup>

공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국어사전적 의미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뜻하며, 공감의 영어는 ‘sympathy’와 ‘empathy’로 번역되고 있다<sup>115)</sup>.

서양에서의 공감의 개념은 라틴어 *sympathia*를 받아들여 *sympathy*나 *sympathie*의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라틴어 *sympathia*는 동정심과 공감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 *συμπάθεια*(*sympátheia*)에서 유래하는 고대적 어원을 가진 개념으로 ‘로고스(logos)’의 대응하는 ‘격정’, ‘열정’, ‘감정’상태를 뜻하는 ‘파토스(pathos)’에 ‘함께’, ‘동시에’, ‘비슷한’의 뜻을 가진 접두어 ‘신(syn)’의 합성어로 뜻을 풀이하면 ‘타자와 함께 혹은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의미한다. <sup>116)</sup>

그러나 인간의 감성을 억압하고 인간에 대해 성악설을 근본으로 하여 억압적 기제를 철학적으로 사용해온 서양철학에서는 배제되어 사용되지 않았다. 커드워스(R. Cudworth, 1617-1688)가 『영구불변의 도덕성에 관한 논

---

의 글, 66; 이영재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으로 표기하기도 함, 이영재(2012). 현대공감이론을 통한 공맹철학의 재조명. 정신문화연구, 35(2), 413-445.

114) 이영재(2012). 현대공감이론을 통한 공맹철학의 재조명. 정신문화연구, 35(2), 416-417.

115) 다음 어학사전(<https://dic.daum.net/index.do?dic=kor>)과 네이버 어학사전(<https://dict.naver.com/>) ;이수지(2017)는 국어사전에서 ‘공감’과 ‘동감(同感)’은 유의어로 확인되고, ‘공감’과 ‘동의(同意)’는 영어사전에서 ‘sympathy’로 확인된다. 국어사전에서 ‘동감(同感)’은 ‘어떤 견해나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가짐. 또는 그 생각’이라는 의미로 ‘동의(同意)’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공감, 동감, 동의는 유의어로 쓰이는데, ‘공감’은 ‘정서’를 강조한 개념이고, ‘동감’과 ‘동의’는 ‘인지’를 강조한 개념으로 본다.

116) 박병준(2014). ‘공감’과 철학상담-막스 쉐러의 ‘공감’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논집,36, 14.

고』에서 영구불변의 도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인에게는 공통된 공감의 원리가 있다고 하였으며, 컴벌랜드는 『자연법의 철학적 탐구』의 인성론 절에서 사람들로부터 연민의 기대와 공감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는’ 원리들에 의거해 해명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한 바 ‘sympathy’는 동정심의 뜻이 아니라 공감의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117)</sup>영어권에서는 20세기 초 이래 ‘sympathy’와 ‘empathy’를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empathy’<sup>118)</sup>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철학심리학자 립스(Theodor Lipps, 1851-1914)는 감정이입<sup>119)</sup>을 사회적 공감현상 일반을 묘사하는 것으로 확대 사용하였는데, 영미심리학자들은 립스의 ‘Empatheia’를 받아들여 영어식표기 ‘empathy’로 고쳐 공감의 뜻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심리학계의 일반적 용례가 되었다.

동양철학에서의 공감의 개념에 대해 황태연(2015)은 공감은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감정을 자기 속에서 재현하여 타인의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타인과 같이 느끼는 이심전심의 감정적 작용 또는 능력<sup>120)</sup>으로서 자타분리 의식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고 동감하며, 타인

117) 황태연. 앞의 글, 77.

118) ‘empathy’는 어원상 독일어 ‘Einfühlen(감정이입)’ 또는 ‘Empatheia’를 영역한 신조어이다. 박병준(2014). 앞의 글, 15: ‘sympathy’는 ‘공감’으로 ‘empathy’는 ‘감정이입’으로 번역하고 있다. 철학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공감하는 것은 내담자의 체험과 동일한 체험을 갖는다가 보다 내담자의 체험에 참여하여 그 체험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119) 미학에서 출발한 개념인 ‘감정이입’(Einfühlung)은 독일 철학자 피셔(Robert Vischer 1847~1933)가 그의 저서 『On the Optical Sense of Form: A Contribution to Aesthetics』(1873)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립스(Theodor Lipps 1851~1914)에 의해서 체계화 된 심리 용어이다. 1909년 영국의 심리학자 티치너(Edward Titchener 1867~1927)가 립스의 ‘감정이입’ 개념을 자신의 심리학에 빌려오면서 ‘empathy’(공감)라 번역한 이후 ‘공감’은 상담 및 심리 치료의 전문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데이비드. 호우, 이진경 옮김(2103). 공감의 힘. 서울: 지식의 숲, 18-23; 박성희(1996).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17-23.

120) 황태연, 위의 글, 38, 40, 54, 86: 공감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역시사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자기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자기 입장에 그대로 서서도 객관적 관찰자의 공감적 관점에서 인격, 성별, 연령, 신분, 계급 등의 차이로 인해 입장바꾸기 불가능하나 자타 간에 타인들의 감정, 풍습, 외국인의 심정, 심지어

의 감정을 교감적으로 지각하고 또한 타인의 감정과 같은 감정을 재생하여 동감을 갖는 것이다.

동양철학적 관점의 공감에 관하여 『논어』, 『대학』, 『중용』에서 공자가 인간생활과 정치, 그리고 학문의 중심 개념을 서(恕)로 제시한바, 자공의 질문에 대하여 공자는 ‘서(恕)’를 자신의 도로 규정하고 있다.

君子有諸己而後求諸人 無諸己而後非諸人. 所藏乎身不恕而能喻諸人者  
未之有也.<sup>121)</sup>

서(恕)의 개념이 공감(共感)의 개념임을 공영달의 아래 주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심(如心)으로서의 서(恕)는 동심으로서의 동감, 공감, 교감, 감응, 동정 등과 상통하는 말로 사유작용이 아니라 감정작용으로 볼 수 있다.

속마음(中心)은 충(忠)이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如心)은 서(恕)니, 이는 자기 마음을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일컫는다. 부모를 섬기고 군주를 섬기고 멀리 여러 생물과 사물에 미치는 것을 마땅히 마음을 같이함(恕)으로써 지탱하여, 헛되이 속마음(中心)을 속이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만사의 근본이다.<sup>122)</sup>

---

동물의 감정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정전염은 새 떼의 군무나 광장에 모인 군중의 감정적 일심동체성과 같이 자타분리 의식 없는 가운데 타인과 동일한 감정을 갖는 것이며, 교감은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지만 동감이 없는 것이다.

121) 大學(博章): 군자는 자기에게 그것을 가지게 된 뒤에 남에게서 그것을 구하고, 자기에게 그것을 가지지 않게 된 뒤에는 남에게서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 안에 품은 것을 서하지 못하는데 남에게 그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경우는 아직 없었다.

122) 황태연, 앞의 글, 49에서 재인용: ‘中心爲忠, 如心爲恕 謂如其己心也. 事親事君遠及諸物宜恕以待之 不得虛詐忠 是萬事之本’

이익(1681-1763)도 공영달의 풀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속마음은 충이고 같은 마음은 서(愆)이다. 사람의 감정은 다 동일해서,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남도 또한 사랑하고 미워한다. 못사람들과  
더불어 두루 동일한 마음이 ‘서(愆)’다.<sup>123)</sup>

타인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공감은 도덕적 행위를 촉발하는 주요한 동기로서 작용한다. 이처럼 공감은 도덕성의 정의적 측면을 대표하는 핵심 요소로서 인간의 도덕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은 타인의 상황이나 정서에 대한 인식에 토대하여 타인의 정서나 상황을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것<sup>124)</sup>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감의 시원에 대해 동양과 서양의 교류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공감의 출발과 근원을 추적하고, 동양과 서양에서 어떠한 형태로 해석하고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과정<sup>125)</sup>에서 서구일변도의 관점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공감의 의미가 공자의 사상에서 출발하여 서구를 거쳐 발전하고, 현대에서의 변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어 공감이 공자의 사상에서 출발했으며, 서구의 공감에 관한 철학적 이론이 동양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것임<sup>126)</sup>이 확인되고 있다.

---

123) 이익(1989). 국역 성호사설.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35.

124) 박병춘(2009). 공감 발달을 위한 도덕교육 방법.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3(1), 127-144.

125) 공감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공리주의적 질서가 해체되는 것과 함께, 도구적·경제적 합리성이 정서적·도덕적·문화적 감수성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뤄진 연구에서 공감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는 학문분야는 교육학(49.6%)이었고, 다음으로 복합학(9.0%)과 사회과학일반(7.5%)이, 2000년대는 교육학의 영역이 공감연구 주체의 절대다수였음에 반해, 2010년대에 들어 기업/소비자와 같은 경영학의 영역이 등장하였다. 2010년대의 공감연구에서는 ‘공감’ 자체에 대한 연구가 감소하고, 공감과 연계된 타 영역의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일공감대형성과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정서적 공감의 형성이 남북한 간의 차문화교류를 통해 용이할 수 있는 것은 차문화가 역사성과 전통성, 지역성과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이기 때문이다.

## 2) 정서적 공감장으로서의 교류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과 장이론을 차용하여 공감을 위한 문화정서를 읽고, 공감의 장으로서의 교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부르디외의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과 읽기는 행위 주체들에게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위 주체들의 위치를 사회구조 속에서 정확히 깨닫고 실천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sup>127)</sup>

### (1) 아비투스와 정서

초기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논리적 도식의 에이도스(eidos), 가치론적실천적 도식의 에토스(ethos)<sup>128)</sup>, 신체적 도식의 헥시스(hexis)의 차원을 포괄하는

126) 김덕삼, 최원혁, 이경자(2017). 동서양 문명 교류에서 본 '공감'. 중국과 중국학, (30), 105-131; 황태연, 이영재(2012). 현대공감이론을 통한 공명철학의 재조명. 정신문화연구, 35(2), 413-445.

127) 프랑스의 1968년 학생운동의 발단은 부르디외의 이론을 접한 학생들의 각성으로 서열화된 학교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으로 계급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중지할 것에 대한 요구로 시작하여 결국 프랑스 내에서 서열화된 대학시스템을 해체하게 하였다. 또한 문화적 실천에 대한 경험적 분석 가운데 문화 정책 등이 여러 사회 집단들의 문화적 소비를 불공평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문화의 소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마련을 추동하였다. 그러한 일환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반영된 정책은 문화가 있는 날(수요일)이다.

128) 피에르 부르디외, 문경자 역(1994), 혼돈을 일으키는 과학. 서울: 숲, 149; 1976년11월에 문헌학자와 문학사가 단체를 위해 고등사범학교에서 행한 강연에서 부르디외는 에토스라는 단어를 윤리적 차원의 성향과 실천적 원리가 객관적으로 체계화된 총체를 지시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였다.; 피에르 부르디외·로익 바강, 이상길 옮김(2015).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서울: 그린비, 509, 530-535; 아비투스는 '가지다', '간직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동사 하베레(habere)의 과거분사형으로서 철학적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헥시스

것이라 보았다.

부르디외의 사회학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실존주의적 사유체계에 대한 비판과 사회의 영향력과 결정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회에 대한 인간이 갖게 되는 능동적 사고력과 자발적 행동의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구조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 중심주의적 접근법과 구조적 접근의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극복하고자 한 결과로서 아비투스 개념<sup>129)</sup>을 고안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합리성과 계산에 근거해 행해지기보다 일정한 기억과 습관 또는 사회적 전통의 영향을 받는데, 그 때의 그 기억과 습관, 또는 사회적 전통을 말하며, 개인들은 일상의 생활영역과 공공영역에서 아름다운 것과 정당한 것에 대한 일정한 성향과 인지의 틀을 가지게 되어 일정한 방향을 갖는 마음과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몸을 통합하게 된다. 즉 아비투스는 몸에 배여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육화되어 있는 성향이다. 아비투스는 사회화되고 구조화된 육체이자 특정한 장의 내재적 구조들을 내면화한 것이므로 개별적인 동시에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상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것이다. 아비투스는 구조화된 구조, 즉 체계적 행위양식의 형태로 몸속에 자리 잡은 사회질서이며, 또한 구조화하는 구조이기도 하다.<sup>130)</sup> 즉 세

---

(hexis)개념에 있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그리스어 헥시스를 라틴어 아비투스로 번역하여 인간행위의 원천으로서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도식(schème)은 ‘가지다’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동사 에케인(echein)의 과거형에서 나온 말로 헥시스와 어원을 공유한다. 과거에 도식은 존재 양식, 옷차림, 태도, 몸가짐, 복장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아비투스는 헥시스와 도식에 내포된 의미를 모두 가진 단어이다.

129) 홍성민(2012). 취향의 정치학,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읽기와 쓰기. 서울: 현암사, 19: 부르디외가 알제리에 근무하면서 민속학적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서구의 자본주의 문화가 알제리에 이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사람들이 자본주의 제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이때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통해 알제리 사회제도의 변화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알제리 사람들의 습성과 태도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였다.

130) 하상복(2006). 세계화의 두 얼굴, 부르디외 & 기든스. 파주: 김영사. ‘구조화된 구조와 구조

계에 대한 지각과 그 상황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거치기 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양식으로서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움직이는 것, 또는 머리의 판단과 몸의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 느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조화된 구조로서의 아비투스<sup>131)</sup>는 자신이 속한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문화가 다르면 문화에 대응하는 반응도 다르다. 이는 인간사회의 집단적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공동체의 개성이 되며, 공동체와 공동체를 구분하는 차별적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한 사회체제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와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해당 사회의 제도와 문화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 생활영역에까지 효과를 과급시켜 그 사회 성원의 의식이나 행태를 규정하므로 사회학이 사회현실과 문제에 대한 실천성의 고민으로부터 미시적 연구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기존의 미시적 연구 분야로 분류되었던 생활문화연구의 관점에서 이해를 용이하게 하며 개인과 집단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문화는 이론의 구체적 실천의 공간이며 장<sup>131)</sup>이다.

---

화하는 구조로서의 아비투스<sup>131)</sup>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나라의 제사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제사를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다. 남성은 정신노동, 여성은 육체노동의 분업구조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함에도 그러한 구조적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와 같은 제사 형식의 유지가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평등한 질서인데 유지되는 것은 제사를 둘러싼 남성과 여성이 갖는 힘과 영향력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상징적 힘을 보유하고 있다. 행위와 공간의 철저한 분리 속에서 불평등한 성별노동 분업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데,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여성들도 막상 제사 공간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의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미 불평등한 구조와 질서가 깊이 자리 잡은 탓이다. 즉 아비투스는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구조이지만 사회구조를 다시 만들어 가는 생성의 구조이기도 하다.; 앤서니 기든스, 필립서튼, 김미숙 외 옮김(2018).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31: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를 구조화하고 동시에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다. 우리 삶의 사회적 맥락은 사건이나 행위들의 무작위적인 나열의 합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 혹은 유형화 된다. 인간 사회는 언제나 구조화 과정에 있다’고 기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화하는 주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부르디외와 기든스의 차이를 알 수 있다.

131) 장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는 쿠르트 레빈의 ‘field theory’,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sphere)’, 부르디외의 ‘장(Champ)이론’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르디외의 장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생존을 위한 생활이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장기간 반복되면서 생활 방식이 만들어지고, 역사성과 학습성, 공유성과 상징성, 적응성 등을 내포한 문화적 속성을 함축하면서 민족과 지역, 사회, 가족에 따라 독특한 생활문화를 형성하도록 한다. 인간은 누구나 삶을 영위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생활방식 또는 생활양식이라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간-시간-공간이 이루고 있는 생활문화를 창조한다.<sup>132)</sup> 즉 생활문화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개인 또는 가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특성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상징과 의미의 체계로서 인간이 일상적 삶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으로 각 개인과 집단 단위에 따라 형성되는 의식과 양식의 총체<sup>133)</sup>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떠나서는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즉 인간은 끊임없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 적응과정을 거치며 삶을 유지하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존재한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정 환경과 집안의 내력, 분위기, 가훈 등으로 표현된 제반 생활조건들은 개인의 아비투스<sup>134)</sup>를 형성하게 하는 구조물이다. 생활문화연구의 관점에서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생활문화는 개인과 사회의 아비투스의 구조라 할 수 있다. 아비투스는 개인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면서 연속적, 지속적으로 접한 생활환경의 영향을 내면화하므로 성격처럼 개인에게는 고유한 것이지만, 집단적인 아비투스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르디외가 관심을 기울인 계급 아비투스는 ‘계급문화’에 의한 개인의 모든 성향이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회 공간 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 조건의 상대적 유사성과 그들 간의 개인적 상호작용 때문에 갖게 되는 아비투스

---

132) 주영애 외(2018). 생활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한국생활문화연구. 과주: 한국학술정보, 13.

133) 계선자 외(2009). 가족과 문화. 서울: 신정, 26.

의 동질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sup>134)</sup>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에 대하여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이론으로 분석한 연구<sup>135)</sup>에 의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10%만이 정착에 성공하고 있는데 이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적 위주의 지원은 사회문화통합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들이 새로운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도록 일정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70여년의 분단 시기 동안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의 경험으로 내면화된 정서, 언어의 억양이나 태도, 생활문화양식 등에 대해 지역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 남북한의 이질적 정서로 읽혀지고 있으며, 오해와 편견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름에 대한 인정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며 이는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통일문화 환경을 살펴보면 다름의 인정이 차별의 근거가 되고,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발현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위해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문화정서적 공감을 발견해야 비로소 가능해 진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남북문화교류를 통해 남북 간 유사한 아비투스<sup>136)</sup>를 발견할 수 있으며, 향후 남북 공동의 문화정서적 공감의 아비투스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가 수동적 대상으로서의 위치에 머무는 것

134) 피에르 부르디외·로익 바강, 이상길 옮김(2015). 앞의 책, 534.

135) 송윤경(2007). 새터민의 적응과 구별짓기-계층의 재생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1153.

이 아니라 구조화하는 역동적인 주체로서 나서는 것처럼, 교류에서의 주체는 교류의 상대로서 대상적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공감의 장으로서 교류

장이란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적 구조’라 할 수 있는데, 경제적 토대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그물망의 구체적 장소를 가리킨다.<sup>136)</sup> 사회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공간이다. 그 이익이 반드시 경제적인 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 이외에도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맥, 교육, 도덕성 등이 있다. 부르디외는 타인에 대한 힘과 영향력의 근원을 자본으로 명명하고, 마르크스와 베버의 영향을 받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sup>137)</sup> 사회는 지배적인 자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하고 자율적인 경쟁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부르디외는 이러한 경쟁 공간, 다양하게 분화된 사회공간의 하위공간들을 장이라고 하였다. 부르디외의 장의 개념은 사회적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실천공간이며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장(場)은 장 자체의 고유한 자본을 이용하는 내부 행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구조의 일종이다.<sup>138)</sup> 부르디외가 공간적 영역을

136) 홍성민(2012). 취향의 정치학,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읽기와 쓰기. 서울: 현암사, 19.

137) 하상복(2006). 세계화의 두 얼굴, 부르디외 & 기든스. 파주: 김영사 : 돈과 같은 경제자본, 학위와 자격증 같은 문화자본, 학연·지연·혈연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사회자본, 명예신용평판과 같은 상징자본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 최셋별(2006). 한국 사회에 문화 자본은 존재하는가?. 문화와 사회, 1, 124-125: 부르디외의 자본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구분에 베버주의적 지위문화를 접목시킴으로써 계급분석에 있어 이정표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자본의 형태(The Forms of Capital)」라는 논문에서 기존의 경제이론의 획일적인 자본 개념을 비판하면서, 계급 재생산의 진정한 메커니즘은 세 가지 형태의 자본, 즉 계급 구조의 기본이 되는 경제자본과 이를 바탕으로 생성되고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경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문화자본, 그리고 사회자본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뜻하는 개념인 장에서 그 의미를 차용하여 저널리즘 장을 정의한 것을 보면 반드시 물리적 지리적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의 개념이 오히려 비가시적인 가운데 힘을 발휘<sup>139)</sup>할 수 있으므로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를 토대로 하고 있는 대중문화를 포함하는 21세기의 문화환경에서는 경쟁만이 아니라 교류를 통해 해당 문화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유지 존속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부르디외의 장이론을 차용한 것은 장내외의 행위주체들이 행하는 실천성에 초점을 두고,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주체가 자신의 근접환경체계 및 광역환경체계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구조화하는 역동성을 문화의 주체이며 통일문화의 주도적 주체로서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된 바에 따른다.

특정한 장에 들어가는 행위자들은 그 장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아비투스<sup>140)</sup>를 갖추었을 확률이 높다. 장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된 상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정 장에서 해당 자본<sup>141)</sup>을 획득한 사람은 다른 장에서 자본을 획득할 가능성이 더 많고, 각 장을 지배하는 사람들끼리 상호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부르디외는 장을 간단하게 “위치들 간의 객관적 관계망”<sup>141)</sup>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위치는 다양한 자본의 분포 구조와 관련된다.

---

138) 류동협, 홍성일(2014).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과 그 효과. 방송통신연구, 12, 9-36.

139) Olivesi, S.(2005). La communication selon Bourdieu . 이상길 역(2007).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40) 삐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 서울: 새물결, 13: 부르디외는 맑스와는 달리 자본을 결코 경제적 차원에 국한시키기를 거부하면서, 자본을 사회적 경쟁에서(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로 봄으로써, 경제적 갈등과 다른 갈등의 분석을 가능케 한다. 부르디외가 경제적 차원 이외의 형태로 문제 삼은 자본은 문화자본, 사회관계 자본 그리고 상징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141) 피에르 부르디외·로익 바강, 이상길 옮김(2015), 519.: 장의 예를 들면 정치 장, 경제 장, 종교 장, 사법 장, 행정 장, 문화생산 장, 과학 장, 저널리즘 장 등이다. 그 장은 다시 문화생산 장 안에 문학 장, 미술 장, 영화 장 등이 존재할 수 있듯이 하위 장들을 가질 수 있다.

교류가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장(場)이 자기장처럼 그 안의 모든 행위자에게 다양한 힘을 가하며,<sup>142)</sup> 그 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이해관계, 다시 말해 그 장의 존재 자체와 관련된 것을 공유<sup>143)</sup>하고,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게하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적 행위자의 행위와 실천, 그리고 그것들에 긴밀히 결부되어 있는 표상과 믿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석 공간을 열어주기<sup>144)</sup>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공감장으로서 교류를 통해 교류 주체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본 논문에서 정서적 공감의 실천에 관하여 공감장으로서의 교류에 관하여 논의해 가고자 한다. 먼저 직접 공감장에 대한 연구와 부르디외의 장이론에 근거하여 공감장으로서의 교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적 공감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이는 이성적 사고나 전문적 지식을 전제하지 않고 느낌으로 같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반응하게 한다. 느낌으로 같은 국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만큼 신체를 통해 특정 시공간적 아비투스<sup>145)</sup>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서양인들을 볼 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같은 동양인이더라도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을 구별해 내기가 쉽다. 이는 같은 동양인이지만 언어와 지역, 문화로 더 세분화되어 나누어진 한·중·일의 각 나라의 생활문화에 기반 한 정서가 각 나라 사람에게 체화되기 때문에 해당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은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

---

142) 피에르 부르디외·로익 바강, 이상길 옮김. 앞의 글, 519; 정부가 설치한 통일+센터 안에서의 모든 행위자들은 통일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받고 통일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43) 피에르 부르디외, 문경자 역(1994). 혼돈을 일으키는 과학. 서울: 솔, 129-130; 1976년11월에 문헌학자와 문학사가 단체를 위해 고등사범학교에서 행한 강연.

144) 스테판 올리브지, 이상길 옮김(2007).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8-9.

를 토대로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나 상황을 함께 느끼고 타인의 경험을 받아들이며 공감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정서와 자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서지능을 문화적 편협의 고려 없이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서로 다른 문화 공간에서의 문화와 정서지능과의 의존관계를 정립하여 측정 한 실험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증명했다.<sup>145)</sup>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공감을 넘어,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감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에서는 ‘공감’의 가능성과 근거를 기존의 철학적 논의<sup>146)</sup>와 최근의 사회과학적 논의를 검토하여 공감을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 참여적 요소 등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들 공감의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공감을 마음상태, 관계형식, 실천형식으로 유형화하여 공감의 실천성을 모색하고 있다.<sup>147)</sup>

개인화된 매체가 지배적인 21세기에 있어서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공감적 이해에 대한 연구는 공감장으로서의 교류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니라 확장하여 가상적이고 무형의 공간을 상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 페이스북 사용자의 정서적 공감은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되고 이는 상호교환의 의미를 넘어서 공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sup>148)</sup>.

---

145) 문태원(2006). 정서지능과 문화의 관계 정립을 통한 새로운 정서지능 연구 제시와 소비자 심리에 끼치는 시사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1), 518-519.

146) 막스 셸러의 공감론, 유교, 불교.

147) 이명호(2017). 공감의 구조변동, 관계지향적 삶의 실천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0(4), 65-90.

148) 최혁수(2018). 시각적 수사 유형에 따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0-92.: 페이스북은 수평적 반응이 가능하여 송신자와 수신자 관계가 더욱 강조되는 매체이다. 상호작용은 친구로 허용된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와 ‘좋아요’버튼을 통해 공감과 호감을 표현할 수 있지만, 허용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콘텐츠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는 인구통계학적 속성이나 행동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과급력이 순식간에 일어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공감적 반응의 정도가 높다. 페이스북을 사용하기 전 미리 준비된 감정의 상태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접속을 하므로 정서가 반영된 공감으로 사료된다.

공감장은 감성들의 교차점을 신체—정동—운동, 혹은 마주침—촉발—모방의 형태와 구조로 나타내며, 공감장은 감성들 사이의 과장과 흐름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사건들 간의 단절/연속된 지점을 구조화하면서 그 특이성을 분절해내려 한다<sup>149)</sup>고 하였는데, 글의 맥락상 감성이란 정서의 의미를 함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느낌이 내면화에 그쳐있는 상태라면 정서는 신체의 동작이나 표정을 통해 외연으로 발현된다.

하버마스(Habermas)의 공론장(public sphere) 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에서도 현대의 심각한 공감 결핍증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정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공감정서가 커뮤니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고 있다.<sup>150)</sup>

#### 4. 선행연구의 검토

북한사회<sup>151)</sup>와 통일<sup>152)</sup>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정치·군사·

- 
- 149) 한순미(2018). 공감장, 그 고요한 소용돌이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인문학 서론. 감성연구, 16(0), 5-41.
- 150) 안장혁(2018). 공감정서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리인류과학회지, 2(1), 1-9; 하버마스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공론장은 의사소통행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공간이며, 일상 언어가 교환되고 교감되는 소시민적 무대이다. 따라서 공론장에서 필요한 것은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려는 적극적 의지와 공감의 정서이다.
- 151) 김명준(2014). 북한 주민들의 한국 방송·영상물 즐기기의 일상화.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5-75; 문숙재, 조성은(1996). 남·북한 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4), 21-31; 박영정(2011).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의 진단과 전망. Jpi 정책포럼, 86(0), 1-17; 민족화해95호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이현숙 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의장, 민화협 2018.11.20; 서유석(2017). 바람개비, 북한주민의 삶 이모저모-중국산 밀어내는 북한 음료수. 북한, 138-14; 이용재(2014). 다문화사회, 한국의 통일: 정체(政體)의 통일에서 생활(生活)의 통합으로.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9(2), 5-37; 현인에(2015). 남북한 생활양식. 지식의 지평, (19),1-18.
- 152) 김병로(2014).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26(1), 1-33; 김명식(2015).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을 위한 심리학적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13(1),

사회·경제 중심의 거시적 연구지형에서 북한사회의 구성원인 행위 주체에 대한 관심의 일상연구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 동향의 변화는 북한주민의 삶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거기에 반응하는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는 통일과 북한사회의 연구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치적인 것을 비정치적인 것으로서 담론화하고자 하는 연구 영역과 방법으로 통일문화에 관한 연구(권영민,1992; 윤덕희,1997; 전영선,2006; 김미영,2007)로 이어졌으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주민들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일상생활과 일상사 연구가 절실하다(고유환,2015)고 하였는데, 통일에 대한 거시적 담론의 연구에서 미시적 담론의 연구로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다룬 연구들로 나타나고 있다(박영자,2004; 김석향,2006; 노귀남,2006; 조정아 등,2008; 박순성 등,2008; 김기봉,2008).

특히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일상사 연구는 연구범위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삶의 현상학적 의미와 그 발전적 전개에 대하여 질문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일상생활 연구에 바탕을 두고 남북문화교류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구체적 생활 실천을 모색하고자 남북문화교류와 차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남북문화교류에 관한 선행연구는 남북문화교류의 필요성<sup>153)</sup>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sup>154)</sup>남북문화교류의 전개과정과 평가 및 분석<sup>155)</sup>, 활성화 방

555-562; 이우영. (2002). 제3장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비교사회, 69-89.

153) 강석승(2007). 문화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 10, 111-151; 김상철(2003).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와 동질성 회복방안. 복지행정연구, 19(0), 297-321; 이성시(2009). 한국사의 동질성 담론과 다양성에 대하여. 통일인문학, 47, 41-57; 김용범(1993). 남북한 문화교류의 단계적 추진과 민족 동질성의 회복. 계간 지역사회, 16, 88-101.

154) 양정훈(2011). 남북문화정책에 따른 사회문화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8, 213-233; 오양열(1995).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50년. 문화정책논총, 7, 29-74; 유명옥(2007).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국학연구, 10, 153-198; 전미영(2018). 김정은시대 북한 민족

안<sup>156</sup>), 남북문화교류의 분야에 따라 문학분야의 교류,<sup>157</sup> 문화유산분야,<sup>158</sup> 공연예술문화, 남북문화교류의 주체와 대상자에 따른 연구로서 청소년교류,<sup>159</sup> 이산가족<sup>160</sup>, 여성, 지방자치단체<sup>161</sup>, 시민단체<sup>162</sup>에 관하여 논하는 연구들이 있다.

- 
- 주의: 담론·문화·정책. 북한학보, 43(1), 218-249; 정용하, 강성훈(2015).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대학생의 남북관계 인식변화. 한국민족문화, (55), 137-168; 정철현(2006).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37(2), 1-24.
- 155) 박순성(2002).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과정(1988~2002년)과 평화통일. 북한연구학회보, 6(2), 169-191; 박영정(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배성인(2002). 남북한 민족문화 건설과 문화통합 모색. 통일정책연구, 11(1), 199-228; 이경국, 배성인(2003).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과정과 특징 -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7(1), 273-300; 이현경(2001).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전개과정과 장애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13(1), 207-234; 전영선(2006). 북한 초점: 2000년 이후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월간 아태지역동향, 169(0), 15-23; 조한범(1999).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통일연구원; 최현호(2005).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 분석. 국민윤리연구, 58, 287-311.
- 156) 전미영(2010). 남북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북한연구,6(1); 김종군(2017). 남북주민의 정서 소통 기제로서 대중가요. 통일인문학, 71, 5-38; 박재인(2017). ‘고향’으로서의 북녘, 통일을 위한 정서적 유대 공간으로의 가능성. 통일인문학, 71, 39-74; 송영섭(2012). 남북한 통합을 위한 "화해된 민족 동질성"에 대한 논의. 개혁논총, 21(0), 45-70; 이우영, 손기웅, 임순희(2001).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1-128; 민화협 정책위원회 남북 사회문화교류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추진 전략 연구. 통일부 용역보고서 2007 61-104; 전영선(2015). 남북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통일인문학, 63, 71-98; 조한범(2002).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통일연구원연구총서. 서울:통일연구원,1-78.
- 157) 고인환(2005). 남북 문학의 이질성과 문학 교류의 방향. 문학과 경계, 5(4), 240-260.
- 158) 신현욱, 박영정(2014).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국민요학, 41, 127-151; 정은찬, 문철훈(2017). 남북 문화유산의 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 3(1), 91-113; 정호섭(2013). 민족공동 문화유산관련 남북 교류협력의 역사와 평가. 한성사학, 28(0), 3-35.
- 159) 도홍렬 (1994). 남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문화. 청소년학연구, 2, 145-160.
- 160) 김귀옥(2008). 이산가족의 범주화와 공동체 형성 방안.역사문제연구, 19(0), 313-354; 김병욱, 김영희(2009). 남북한과 통독 전 동서독의 이산가족교류 비교 연구. 현대북한연구, 12(1), 173-215; 김형석(2018).남북 이산가족문제 재정립 및 추진방안 연구. 북한학보,42(2),156-163; 윤인진, 윤여상, 송영호(2010). 이산가족의 유형화와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263-1275.
- 161) 채경석(2004).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탐색연구. 정치정보연구, 7(2), 47-80; 서순복, 금창호(201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지방행정연구,30(4), 145-172; 전영욱, 김연근(2017).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377-395.
- 162) 조한범(1998).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와 시민단체의 역할.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15-31.

생활문화연구 분야에서의 통일과 북한에 관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주<sup>163</sup>)와 관련한 생활문화에 관한 연구와 남북의 이질화 극복을 위한 생활문화통합모색에 관한 연구<sup>164</sup>),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문화에 관한 연구<sup>165</sup>), 탈북청소년에 관한 연구<sup>166</sup>), 북한 여성에 관한 연구<sup>167</sup>) 등이 있다.

차문화<sup>168</sup>)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기초학문자료 센터에서 차문화를 키워드로 입력하여 검색하였을 때, 연관어는 차문화 치료, 차문화치료프로그램, 차문화공간, 차문화연구, 차문화특성, 차문화 특성,

- 
- 163) 김대년(1998).북한의 주거생활. 탈북자를 통해 본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1998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학술심포지엄자료집,65-72; 김대년,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박영숙, 최연실(1999). 북한주민의 주거생활실태와 주거행동에 관한 연구-탈북인대상의 면접 및 설문조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17(4),221-238; 박영숙,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최연실(1999).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식생활 실태와 남한에서 인식한 차이. 지역사회영양학회지,4(1), 64-73
- 164)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1996).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서울: 또 하나의 문화; 이은영, 김대년, 박영숙, 이기춘, 이기영, 이순형, 최연실(1999).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Ⅲ)-북한 의식주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37(1), 15-28; 주영애, 광미숙, 김우정(2017). 남북통일 대비 통합문화의 모색 -세시풍속 생활문화를 중심으로-.코리언의 정서소통과 통일문화. 서울: 한국문화사.
- 165) 채정민, 심진섭 , 이종환 , 허태균 , 한성열(2004). 북한이탈주민의 라이프스타일 : 일상과 소비의 양 측면에서. 여가학연구, 2(1), 17-41.; 이기춘, 나종연(2007). 북한이탈주민의 북한과 남한에서의 소비생활경험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3(2), 101-122.; 김희영, 진승우(2014). 소비자문화변용 과정에서 소유물이 가지는 문화변용동인으로서의 역할. 소비문화연구, 17(4), 103-129; 손상희, 정진화, 김정은, 박종옥(2014).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적응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45(3), 329-357.; 친혜정, 서여주(2014).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소비행위의 의미.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0(3), 109-135.; 나종연, 배순영(2015).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소고.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4), 123-138.; 나종연, 박서니(2019). 소비생활문제 인식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유형화 및 소비자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50(1), 1-31.
- 166) 손상희, 김정은, 박나랑, 나혜림(2012).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3), 1-26. 허경옥(2013). 탈북청소년의 소비자의사결정 단계별 구매행동분석과 영향요인 조사 및 소비자능력향상 방안 모색. 소비문화연구, 16(3): 263-284; 이윤정, 김경민, 김미자, 김유경, 송지은, 이연숙, 이정규, 이하나, 임정하, 정순화, 한영선(2016).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8(1), 41-57.
- 167) 남인숙(1992). 북한 여성의 실재. 서울: 한국부인회 총본부; 문숙재(1994). 북한의 여성과 가정생활. 여성학논집,11, 147-165.; 문숙재(1997). 가정생활 속의 남북한 여성의 삶. 대한가정학회지,35(2), 321-331; 박미석, 장진경(2000). 가정생활 비교를 통한 통일 한국 여성의 역할. 숙명여대 아시아 여성 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 168) 주영애, 조선주(2009). 차문화교육의 효과성 연구의 동향. 생활문화연구,24(1), 1-12.

차문화고찰, 차문화비교연구, 차문화중흥, 차문화 활용이라는 범주로서 나뉘어 진다.

생활문화 속에서 차문화를 매개로 한 실천이 가능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차 생활 예의범절을 익히게 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도덕관과 가치관을 함양시키는 인성교육의 길잡이로서의 가치를 제시한 연구(곽미숙,2015; 박영자,2015; 백현기,2016; 이성애, 1997; ), 자아개념과 자기 통제 요소로서의 차문화 연구(정창순.2007), 주의집중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 요소(김순임,2005; 조명선, 최배영,2009), 그리고 정서적 행동과 지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공귀옥,2012; 김중희,2004; 박미경,2008; 박찬이,2010),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교육의 효과성 연구(권춘연,2008), 차문화치료에 관한 연구(정혜정,2008; 김인숙,2015,2017)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관점

본 연구의 관점은 인간의 발달과 생존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는 연구관점을 기초로 한다.

##### 1) 일상성 연구의 관점

기존 사회학은 이론과 구체적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반성에서 미시적 사건으로서 일상생활과 일상적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이론화하여 일상생활의 사회학으로 명명하고 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바는 북한사회와 문화에 대한 사실적 인식과 통일문화에 대한 연구의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혐오와 감정, 우열의 편견을 제거하고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보면 북한 사회가 이후에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열망과 훈계들을 직간접적으로 투영한 가운데 이뤄져온 측면이 있다. 이는 북한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제약하여 다양한 이론적 시도와 분석기법의 적용을 가로막는 방법론적 편견으로 작용했다. 기존 연구들<sup>169)</sup>은 정치·경제·군사적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169) 남북문제와 통일론에 관한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태현(2018)은 남북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의 공존' 인식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에 대한 역사적 성찰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차이의 공존 인식이야말로 다양한 통일론은 물론 남북과 동북아가 공존, 번영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출발점이자 상상력의 보고로서 한반도 중립화론, 군축론, 경험론을

통치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그리고 사회와 개인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삶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또 개인이 일상에서 어떻게 국가와 권력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약했다. 최고지도자, 정치체제, 이데올로기, 노선·정책 등 위로부터의 통치관점에서 채택된 연구 주제는 당과 국가기구, 그것을 장악한 소수 지배집단에 의한 지배와 통제, 동원의 면모에만 집중한다. 반면에 사회 및 일반 대중은 지배와 억압의 대상이나 탄압의 희생자로 취급되기 쉽다. 이런 접근방식은 은연중에 사회를 국가의 통제질서와 행정망에 흡수된 원자화된 개인들의 집합체 정도로 전제하여 북한 사회의 재생산 과정에 대해 ‘위로부터’의 과정만을 일면적으로 조명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사회와 문화, 통일문화는 거시적 담론에 복속되어 진행되어오다가 미시적 연구의 필요성 제기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일상적 삶을 조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대치와 접근의 한계 가운데 이루어진 북한주민의 일상생활문화에 대한 사회학의 연구는 북한 사회를 알고 이해하는데 초점이

---

고찰하면서 차이의 공존 인식은 중립화론이나 균축론을 공론화하면서 정착되어 갔으며, 경험론이 활발하게 제기되는 1980~90년대에는 그 구체성도 심화되었다고 평가한다. 1997년 이후 교류 주체의 설정이 ‘민주도’에서 ‘민-관 공조’, ‘민-대기업-관 공조’로 이동되며 대기업 주체 경험론으로 기운 면이 있다. 이에 대한 극복으로 한국의 비판적 지성이 차이의 공존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이유를 깊이 성찰해야 하며, 차이의 공존 인식을 발전시키려면 경험 외에 학술, 문화, 의료 등 다양한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1970년대 이후 한국 비판적 지성의 남북 ‘차이의 공존’인식과 방법론 성찰과정. 동양학, 72, 55-56, 71); 노동일, 김진향(1998). 북한 연구방법론 고찰. 평화연구, 23, 77-122: 1980년대까지의 북한관련 연구들에 대해 반공반북이념에 태생적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권력의 체제유지에 충실히 복무하는 대북한 비하와 일갈 성토로 점철되었으며, 실증적 연구에서 아카데미즘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접근 한계로 인하여 거품이 많았던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북한 내지 북한 문제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왜곡된 인식은 잘못된 대북정책을 수립하게 하고, 민족의 생존권과 국가적 흥망을 좌우할 수 있으며, 분단모순으로 인한 전 민족 성원들에 대하여 심리적 박탈감과 공허함, 폭력적 대결의식을 부추겨 부정적 민족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전체주의 접근법, 비교사회주의 접근법, 역사문화론적 접근법, 행태주의적 접근법, 내제적 접근법, 내제적-비판적 접근법, 수렴이론, 현상학적 접근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맞춰져 있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둘러싼 생활문화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현실이다.<sup>170)</sup>

남북문화교류에 대하여 일상성 관점의 연구가 이뤄진다면 남북 주민 간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북의 분단이 가져온 생활양식의 변화된 조건이 단기 지속적 이질성이 라면 남북에 두루 현존하는 민족의 전통생활문화는 장기지속적인 동질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으므로 미시적인 접근으로서 일상적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민족문화의 범주가 매우 큰 반면, 생활문화는 민족적 특성을 간직한 보편적인 일상의 문화를 뜻한다. 그리고 민족생활문화는 문화적 본질상으로 계층 편향적 문화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남북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분야이다. 남북의 생활문화에 대해 보편성과 일상성이란 각도에서 계층적 측면을 관찰해야한다. 시대가 변화하면 문화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전통적인 가치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화하므로 생활 속에서 전승되는 민족생활문화는 극히 현실적이고 당시대적이다. 따라서 민족생활문화에서 당대성의 인정은 중요한 관점이고 변화된 조건의 같음과 다름을 상호 인정해야만 과거 사회에서 같은 규범으로 연대했던 민족생활문화를 반추할 수 있게 된다.

사회학의 기존 시각에서 볼 때 생활문화연구는 개인이나 특정 구성원들의 구

---

170) 이은영 외(1999).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Ⅲ): 북한의 의·식·주 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 15-28.; 이기춘 외(2000).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Ⅳ): 탈북인의 남한생활 적응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8(4), 1-20. ; 김석향(2012).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6(1), 191-216.; 이연숙 외(2016). 통일대비 남북한 가정생활 용어 비교 분석: 소비자가정경영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2), 119-141. ; 주영애 외(2017). 남북통일대비 통합문화의 모색-세시풍속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9, 399-433.

체적인 삶인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실제 모습에 초점을 두므로 사회학과 생활문화연구의 접점으로 본다면 본 연구는 인간과 일상생활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간생태학적 관점을 기초로 부르디외의 사회학이론 연구방법을 차용하여 교류의 목적과 교류주체, 교류의 공간, 교류의 매개물에 관하여 분석하고 차문화교류의 실천성을 논하는 것이다.

## 2) 생활문화적 관점

일상생활의 생활문화와 연구방법으로서 ‘일상성’과의 조우 과정에 대해 피터버그(2005)<sup>171)</sup>는 1780년 이후로 ‘인간 문화의 역사’ 또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가 나타났으며,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내용의 변화를 문화사의 고찰을 통해 설명한다. 고전적 문화사와 신문문화사로 분류<sup>172)</sup>하여 고전적 문화사에 대해서는 부르크하르트(Jacob Christopher Burckhardt, 1818~1897)<sup>173)</sup>와 호이징하(Johan Huizinga, 1872~1945)<sup>174)</sup>가 작품의 대상을 역

171) 피터 버크 지음, 조한욱 옮김(2005). 문화사란 무엇인가. 서울: 길, 23-25, 94.

172) 최성철(2005). 문화사에 나타난 ‘문화’ 개념의 어제와 오늘. 역사와 문화, 10, 43: 구문화사(고전적 문화사)와 신문문화사의 차이를 연구 대상의 비교를 통해 확인 한 바, 구문화사의 연구대상은 부르크하르트와 호이징하를, 신문문화사의 연구대상은 특정 역사가보다는 역사적 인간학, 미시사, 일상사, 포스트모던 역사학 등의 경향을 테마로 하여 구분하였다.

173) 김상호 (2007) 부르크하르트의 문화사와 역사 수업, 역사와 역사교육, 13, 67-98: 19세기 대표적인 문화사가인 부르크하르트(Jacob Christopher Burckhardt;1818~1897)는 문화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당대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역사 연구 경향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19세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역사를 형성하는 세 가지 잠재력으로 ‘국가’, ‘종교’, ‘문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문화사는 이들 세 요소가 상호 작용하는 문화 맥락을 밝혀내는 것이다. 즉 문화적 맥락을 통해 형성되는 한 시대의 문화상 또는 역사상을 보여주는 방법론이다.; 이상신(2001). 부르크하르트의 문화사의 과제. 서양사론, 69(0), 5-34: 역사의 진보를 부정하고 있었고, 19세기의 산업주의와 대중주의의 물결, 그리고 각국의 강대국화 경향 등을 모두 혐오했다. 그는 19세기 역사에서 국가·종교·문화 등 역사형성력들 간의 불균형적인 역할과 사회계급들 간의 대립 등의 작용에 의해 문화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현재 진단을 근거로 하여, 다가 올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최영태(1999). 부르크하르트 : 위기의 대안으로서 문화사. 세계 역사와 문화연구, 3(0), 43-68: 부르크하르트는 사료의 발견과 진위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표현에 중점을 두었고 자료에 숨어있는 시대적 배경이나 정신에 관심을 두고 어떤 시

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켜 시대정신과 관련성을 논하여 특정한 회화나 시(詩) 등의 작품을 ‘문화’나 ‘시대’의 증거로 읽음으로써 해석학의 개념을 확장시켰으며, 한편 1980년대 말부터 사용된 신문화사라는 개념은 문화라는 영역이 확대되고 문화이론이 성장한 결과로서 신문화사의 관심은 행위로 전환되어 행위의 역사로서 사회이론과 문화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여행의 역사, 전통적인 문화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라는 단어는 신문화사를 지성사와 구분시켜주며 사회사와도 구분시켜준다.

신문화사의 실천가로서 미하일 바흐친(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Бахтин, 1895-1975),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 1897-1990),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 등이 있다. 부르디외는 구조와 행위<sup>175)</sup>에 대해 유기적인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구조주의와 실존주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아비투스(Habitus)와 장(Champ) 개념을 고안하여<sup>176)</sup> 구조와 행위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이는 생태체계적 접근법(ecological system approach)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행위자의

- 
- 대를 서술하는 문제보다 시대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무게를 두었다. 이러한 방법은 훔볼트의 역사인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174) 주소정(2007). 요한 호이징하의 문화사적 역사인식.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성철(2005). 문화사에 나타난 ‘문화’개념의 어제와 오늘. 역사와 문화, 10, 41-66; 최성철(2002). 문화로서의 역사?. 역사학보, 174(0), 263-291; 호이징하는 부르크하르트를 계승하여 부르크하르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인습적으로 정치사에서 무시했던 과거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 그리고 행동 방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호이징하는 『중세의 가을』에서 부르크하르트의 르네상스의 개념을 받아들여 14, 15세기 프랑스 동부의 부르고뉴 공국에서 르네상스의 모습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현대의 사가들은 호이징하를 고전적인 문화사가로 분류하고 있다. 호이징하는 부르크하르트와 같이 ‘문화’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였지만 ‘문화’의 정의에 관하여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여 훨씬 더 광범위하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영역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 175) 김용학(2003).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 김용학은 사회이론의 이원론을 기능주의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보고, 구조를 강조하는 기능주의와 행위의 통합을 위해 구조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변동은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 혹은 의도적 선택의 거시적 결과, 즉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 176) 하상복(2006). 세계화의 두얼굴, 부르디외 & 기든스. 파주: 김영사, 85.

주도적 주체성이 강조된 연구관점으로 사료된다. 생활문화환경이라는 구조 속에서 구조화되는 아비투스<sup>177)</sup>는 생활문화정서로 읽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활문화 연구의 관점은 인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실천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력을 전제로 한 문화 현상의 파악과 각 시대적 의미의 계승 가치를 반영하는 관점으로 인간 개인의 행동과 삶이 상호보완하며 작용하는 가운데 그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력을 기초<sup>177)</sup>로 한다.

생활문화연구관점은 생태체계적 접근법(ecological system approach)을 적용하여 인간의 삶이 가정환경(household environment)을 둘러싼 근접환경(near environment)과 광역환경(larger environment) 간의 작용(act), 반작용(react), 상호작용(coact)의 결과로서 나타나므로 삶의 현상파악을 위해 제반 환경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sup>178)</sup> 즉 생활문화관점에서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생활문화연구를 위한 생태체계적 접근법의 적용은 과거 학문의 영역에 대해 엄격하게 분류하여 연구방법을 제한하였던 환경과는 달라진 융복합되고 있는 학문 연구방법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 2. 문헌연구

본 논문의 문헌연구는 남북 차문화역사에 관한 고찰과 남북 차문화산업

---

177) 김효주(2018).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본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보자기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178) 주영애 외(2018). 생활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한국생활문화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3.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첫째 문헌연구의 자료로는 학술논문과 단행본 서적, 인터넷 정보와 신문 기사, 학술 세미나 자료와 통일부, 통일교육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북한연구학회, 한국차학회 등 연구기관의 자료집과 단행본을 참고하였고, 북한관련 자료는 북한자료센터를 통해 1차 자료와 통일부홈페이지, 통일신문과 통일뉴스,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2차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구체적 이론 탐구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매년 5회 실시하는 통일문화에 관한 학술세미나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북한학 전문대학원 2곳에서의 강의를 통해 북한주민의 일상적 삶과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보와 자료도 활용하였다.

셋째, 본 논문 주제와 관련한 사전 현황조사와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2015년 2월9일 탈북청소년대안학교학생 대상 차문화교육과 2018년 6월 서울시 50+재단 축제에서 ‘북한차시음 찾자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하여 활용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표3-1>과 같다.

<표3-1> 남북 차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 형성연구에 활용한 자료

구분		자료명
국가기관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백서 2015, 2017, 2018, 2019</li> <li>● 월간북한동향, 월간남북교류동향</li> <li>● 남북관계주요일지 2005, 2006~2008, 2018.1~11)</li> <li>● 문제인의 한반도 정책</li> </ul>
	통일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문제이해 2018</li> <li>● 북한이해 2018</li> <li>●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li> </ul>
	북한자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출간 단행본</li> </ul> <p>김정일선집2권, 김일성저작집29, 생활과 건강장수 I (1998), 위인과 정서(2003), 식물성분편람(2009), 건강음료(2010), 조선민족의음식</p>

		문화(2013), 천연건강음식(2013), 차문화의 역사(2014), 민속음식과 식생활(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동신문 1989.05.08, 1989.11.05, 2009.07.05, 2009.08.30., 2011.02.21, 2012.06.03., 2012.08.13., 2013.03.03., 2013.04.15., 2015.04.12., 2015.04.18., 2016.12.04., 2017.10.07., 2018.06.10</li> <li>• 천리마2006(9), 2009(5), 2009(9)</li> <li>• 력사과학1989(2)</li> <li>• 조선상품2018</li> </ul>
	문화체육관광부	•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2013).
	문화재청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명 : 전통제다(傳統製茶)(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무형문화재 제다(2016)</li> </ul>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정책연구 11(1), 21(1), 24(1)</li> </ul>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남북문화교류 정책과제 개발연구(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통합의 방향과 단계(2012)</li> <li>• 문화정책논총 3, 29(2)</li> </ul>
	평화문제연구소	• 통일한국 398, 413
대학연구소	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단	• 코리언의 정서소통과 통일문화(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인문학 53, 63, 71</li> </ul>
	북한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 현대북한연구11(3)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 통일과 평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주민의 통일의식2016</li> <li>• 2016통일의식조사</li> </ul>
학회	대한가정학회	• 대한가정학회지 37(1)
	북한연구학회	• 북한학사회.북한연구학회보, 6(2), 15(1), 2017동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통일전략학회	• 통일전략 14(4)
	한국차학회	• 차학회. 2018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국제차문화학회	• 차문화산업학 17,43.
기타	자유아시아 방송 2009.09.29, YTN NEWS 2015.04.03., MBC뉴스2018.07.25., 강진일보2015.12.04.경향신문2108.12.03.교통뉴스2017.12.13.국민일보2015.06.10 NK조선일보2014.05.26.,노컷뉴스2015.05.26.,07.17.,07.26.,09.29.,2016.07.26.뉴시스 2014.10.21. 테일리안2018.11.26. 동아닷컴 2014.12.01.,2015.02.26.,04.03, 머니투데이 2018.12.26., 민플러스2018.07.04., 세계일보2011.10.25., 시사저널2018.10.13., 스포츠경향 2017.07.21., 연합뉴스2013.10.16.,2019.06.24. 오마이뉴스2019.03.04., 통일뉴스2014.09.24. 2015.08.25.,2018.03.29.,06.15. 한겨레2013.10.16.,한국일보 2018.01.04., 21세기정치학사전 나무위키, 네이버사전, 다음어학사전, 두산백과사전, 실크로드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3. 면접연구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분단결과 발생한 남북 주민 간 편견과 오해, 갈등을 초래하고 증폭시키는 생활양식과 언어 등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한 정서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 차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에 주목하였다. 차생활을 통한 공동의 생활문화정서적 공감, 남과 북의 차생산지와 재배 기술, 차문화의 콘텐츠화 등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사업으로서의 전망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과 북의 '차'관련 활동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에게 남북 차문화교류는 어떻게 인식될 수 있고, 어떻게 수용되고 전망될 것인지, 교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남북의 차문화가 한국의 차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한의 차전문가들과 북한의 차경험자들의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면접대상자인 남한의 차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차에 관한 박사학위소지자들이며, 강의와 등을 통해 교육을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나 북한의 면접대상자들은 지역적 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현재와 가까운 시기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로서 차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선별하였다.

연구문제1. 남북 차문화교류를 통한 민족문화의 복원이 가능한가?

연구문제2. 남북 차문화교류가 남북 주민의 생활문화에 어떤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3. 남북 차문화교류를 통해 어떤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전망할 수 있는가?

## 1) 면접방법(FGI) 및 절차

연구 문제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면담의 강점으로 사람들 경험의 세부사항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인적인 경험에 대하여 삶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의 맥락에서 사회적·조직적 영향력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고, 공유된 맥락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면접조사는 현상학적 해석과 설명의 주관적 관점의 연구방법으로서 면접대상자의 차문화교류에 대한 인식 및 차문화교류의 영향과 한국차문화의발전 방안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조사자료는 면접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2018년 11월25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전화와 SNS를 활용한 예비면접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면접 장소는 면접대상자들과 편안하게 면접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였으며, 북한의 강령녹차와 남한의 녹차의 시음을 위해 식당과 카페, 학교, 가정에서 진행하였다. 북한의 강령녹차는 시민단체의 지인이 2018년 5월 ‘문화재제자리찾기’를 주관한 단체에게서 얻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본 연구자에게 나눠준 것을 시음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면접대상자로 남한 5명, 북한 5명으로 총1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접조사 계획 시 남북한 모두 차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에는 남한과 같이 차에 관한 차전문가가 없고, 아직 차를 접해 본 사람도 드문 상황이었다. 면접대상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해당 전문가를 통해 소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고, 소개받은 사람에게 다시 소개를 부탁하는 스노우볼(snowball) 방식으로 대상자들을 전화로 예비 인터뷰한 후 면접대상자로 선

정하였다. 면접대상자와의 라포(rapport)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시작된 남북교류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수월하게 형성되었다. 또한 면접대상자들은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 한 잔’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먹고 마시는 주제’와 ‘남북문화교류’라는 주제가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 서로 공감하게 되면서 본 연구에 대한 적극적 동의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참여 해주었다.

면접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남북한 동일하게 차전문가가 있었다면 더 큰 의의가 있었겠지만 북한은 차전문가가 없고 차문화의 초기 단계이므로 본 연구가 남북한의 격차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기초적인 단초의 마련이라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사항을 상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남한에 있어서는 차문화의 발전을 대중화와 사회화의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인식하고, 특히 사회화에 대한 차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아 차전문가들로 선정하였다.

먼저 남한의 면접대상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차전문가를 통해 소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고, 소개받은 사람에게 다시 소개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들을 인터뷰하게 되었다.

남한 측은 차전문가로서 구성된 5명의 면접대상자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대는 모두 50대와 60대였다. 이들은 차생활을 한지 20년 이상 되었으며 차(茶)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로서 대학원이나 대학, 또는 민간단체에서 차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였다. 북한과 차문화교류를 하는 것과 관련된 인터뷰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녹차에 관해 말했을 때 처음 듣는다는 사람이 3명이었고, 북한에 차가 있다는 것을 안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은 서적을 통해 북한에 차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직접 마셔보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시간과 거리의 문제로 2명과 3명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하였다. 두 그룹 모두 동일한 면접질문지를 기초로 하면서 심층면접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강령녹차의 시음까지 곁들여 추가 보충하는 질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시간은 3시간-4시간가량 소요되어 차(茶) 경험 속에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었다.

북한측의 면접대상자는 북한 지역접근성의 한계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고려하여 접촉을 시도하였다. 현재의 북한 실정과 향후 차문화 교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차를 마셔본 경험 또는 간접적 접촉 경험이나 커피라도 마셔본 사람으로서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탈북하여 북한의 현실을 직접 체험적 사실로써 전달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역과 연령을 안배하여 선정하였다.

북한 전문연구학자와 시민단체의 통일교육 진행자 선생님, 그리고 북한전문대학원 강의를 수강하면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선생님들에게 부탁하였다.

소개를 받아 연락을 하고 전화와 문자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5명을 소개 받았는데 그 중에서 지역적인 안배와 연령대, 그리고 탈북시기를 기준으로 평양출신 20대 1명, 함경도출신 30대 1명, 40대 1명, 양강도출신 50대 1명, 황해도출신 60대 1명의 구성으로 총 5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2시간가량 면접질문지를 기초로 한 인터뷰와 강령록차와 하동녹차의 시음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면접질문지는 면접방법을 적용한 논문(김효주,2013; 김선주,2014; 박영숙, 2017)<sup>179)</sup>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179) 김효주(2013).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44; 김선주(2014). 보육교사의 표정언어와 대인관계문제의 상관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2-63; 박영숙(2017).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조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3-146.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관한 질문은 남한과 북한을 나누어 남한 6문항, 북한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차문화교류에 관한 사항으로는 차문화교류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은 4문항, 차문화교류에 관한 전망에 관한 질문 2문항, 차문화교류에 따른 생활문화의 기대효과에 관한 질문 2문항, 차문화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질문 1문항, 차문화교류정책에 관한 질문 1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녹취에 대한 연구동의서 <부록1>을 받고 연구대상자들이 질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북한 차문화현황과 남북 차문화교류를 위한 남한의 노력에 관하여 요약한 <부록3 >을 제공하였다. 면접질문지 <부록2 >를 근거로 질문하고 응답한 내용을 녹취하였다. 녹취한 것을 전사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적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먼저 면접조사 시 녹취한 자료를 전사하여 구술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면접질문지의 내용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이를 다시 본 연구의 문제에 따라 남북 차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대 형성의 가능성과 근거에 관하여 민족문화의복원, 생활문화정서적 공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망에 적용되는 내용을 파악해보았다.

## 2) 면접대상자의 특성

### (1) 남한 면접대상자의 특성

일본과 중국, 미국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과정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3명으로 파악되었고 차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박사학위 수여자는 1

명,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총 4명이었다.

면접대상자1은 지방의 대학과 단체에서 차문화 연구와 활동을 해왔고 수도권으로 이사를 온지 6년이 되었다. 현재에도 경남의 유명한 차행법회 회장을 맡아서 교육 등을 통해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다. 어렸을 적부터 차를 마시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차를 마신 경우에 해당된다. 차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배운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도사범자격증을 땀으며,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 10년 전에 다도스승에게 차를 체계적으로 이미 배웠다. 차(茶)경력은 30년이며, 차문화교류의 경험은 한·일 차문화교류에 참가하여 ‘고려차’의 시연을 해보었다고 하였다. 북한차에 대해 처음 들어보고 마셔본다고 하였다. 인터뷰에 오기 전에 듣고 고민을 하다가 차문화의 관점에서 회령유를 생각해봤다고 하였다.

면접대상자2는 일본에서 유학할 때 3개월 정도 차를 배웠는데 한국에 다도가 있느냐는 일본인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95년도 한국에서 차를 소개해주신 분의 인상과 정성스럽게 차를 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고 그 때 마음도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어 너무 좋아 차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23년의 차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직업은 기업을 운영하며 차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틈틈이 학교와 단체에서 차문화교육을 하고,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문화로 다문화가정을 위해 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면접대상자 3은 중국에서 차(茶)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수도권 대학과 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다. 2018년 10월13일 성균관대에서 강령녹차 시음회 행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 때 차를 마시지는 않았고 케이스만 봤는데, 차고뿌라고 써져 있는 것이 특이했다고 한다. 차(茶)생활 경력은 30년이 되며 20대 초반에 차생활을 시작하였다.

면접대상자4는 미국에서 역이민을 오신 분으로 현재 대학교의 교양수업으로 세계차문화를 강의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차경력은 20년이 약간 더 되며, 집안의 어르신들 중에 차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다고 하였다. 규방다례와 차전문사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일본식의 엄격한 차문화보다 우리의 차문화가 정립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학생들과의 수업에서도 문화의 차원에서 차문화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차관련 서적은 본적이 있으나 차는 처음 마신다고 하였다.

면접대상자5는 차(茶)생활 경력 35년이 되며, 차와 관련된 유명한 단체들과 인연도 오래되어 경험이 많았다. 70년대 효동원에서 차를 배웠으며, 이학적인 차원에서 차를 접근한다. 차인연이 넓고 적극적이며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쳤다. 수도권 대학원에서 차학에 관한 강의를 해오다 현재는 차관련 단체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차 관련 행사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다. 북한에도 차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남한 면접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표 3-2>와 같다.

<표3-2> 남한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사례	성별	나이	결혼	직업	학력	차경력(년/활동)
1	여	63	유	차교육, 대학원강사	박사	30년, 차문화연구자, 차행법회회장
2	여	56	유	차교육 기업인	박사	23년, 차관련동호회 지역사회차문화교육
3	여	52	-	대학 및 대학원강사	박사	30년, 차관련단체 교육
4	여	58	유	대학교강사	박사	20년, 규방다례이수자, 차전문사범
5	여	61	-	차단체 이사장	박사	35년, 차단체이사장.

## (2) 북한 면접대상자의 특성

북한의 차전문가 대신 접촉했던 음식관련 종사자나 의료관계종사자들은 탈북한지 20년을 전후로 하는 분들이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정보조차도 얻기가 어려워 제외하였다. 차를 접해보거나 마셔 본사람, 또는 커피라도 마셔본 사람은 연령대가 젊다. 이들의 특성은 새로운 것과 변화에 민감하고 잘 읽는다는 것이다. 평양이나 대도시의 사람들은 만나보기 어려웠다. 홀로 탈북했거나 가족이 전부 나오기도 하였고, 함께 나오다가 일부만 탈북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은 탈북한지 10년을 전후한 사람들로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오거나 중국을 잠깐 거치기도 하지만 탈북 초창기처럼 경유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6개월 미만이었다.

면접대상자6은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차에 관한 정보는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탈북한지 이제 2년 정도 되며, 평양에서 나고 자라고 거주하였다. 단독으로 탈북하여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 탈북하고 경과되는 시간은 아주 짧았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탈북경위에 대한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 신중하게 대답하였다. 북한에서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공부를 꽤잘하게 했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초대받아 가면 녹차를 대접받았다고 하였다. 찻잔에 대해 물어봤더니 뚜껑이 있는 컵 모양이라고 기술하는 게 맞는 것 같았다. 집에서 녹차는 마시지 않았고 시험 볼 때가 되면 커피를 마셨다고 하였다. 많은 친구들이 시험 볼 때 집중하려고 커피를 마신다고 하였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자신은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시장에 가면 한국 물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들어와 있다고 하였다. 결명자차는 매일같이 마셨다고 하였다. 눈이 나빠 집에서 어머니께서 매일 결명자차를 끓여 주셨다고 하였다. 텔레비전을 통해 차밭에서 차를 재배한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잘 몰랐고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북한에 들어와 있는 한국차는 다

마셔봤다고 하였다. 아몬드차도 마셔봤는데 어느 나라 것인지 별 생각하지 않고 마셨는데 남한에 와서 한국산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면접대상자7은 언니들과 탈북 한 경우이다. 북한에서는 복싱 선수로 활동하였고 함경북도 출신이다. 남한에 온지는 7년째이다. 현재 결혼하여 수도권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로 겨울에 차를 마시며, 오미자, 구기자, 느릅나무, 찔광이(산사), 오가피, 등글레 등을 우려서 끓여 마셨고, 커피도 마셔보았다. 남한에 와서 오미자나 생강 다린 물을 차라고 하면서 마시는 것을 보면서 남북한 생활이 비슷한 게 ‘한 핏줄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하였다. 남한에서 대학을 다닐 때 차문화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북한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고 하였다.

면접대상자8은 함경북도 출신으로 가족이 함께 탈북하다가 남동생만 탈북에 성공하지 못하여 북한에 있고 어머니와 언니들과 함께 탈북하여 현재 서울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다. 결혼하여 자녀1명이 있다. 탈북한지는 13년 되었다. 북한에서 커피와 누룽지차, 오미자, 구기자, 하수오 같은 차를 마셨다고 하였다. 북한에서의 직업이 철도 열차원이어서 다른 북한 사람에 비해 이동이 자유로웠다고 하였다. 남한에서 직업은 통일교육전문강사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면접대상자9는 양강도 혜산출신으로 북한에서 중등교사와 무역을 함께 병행하였다. 맨 처음에는 단독으로 탈북하여 혼자 지내다가 현재는 북한에서 대학을 마친 후 탈북한 아들 둘과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옷가게 등의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대학원 석사과정 중이며 졸업 후 통일교육에 관한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오미자나 생강을 다린 물은 마셔봤지만 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으로 마셨다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중산층이면서 중국과 무역도 하였는데 차를 마시지는 않았다고 한다. 커피도 한 모금 마셨다가 맛이 없어 마시지 않았고, TV드라마 등을 통해 차를 마시는 장면

은 몇 번 보았다고 하였다.

면접대상자10은 탈북한지 13년째 되는데 황해남도 해주에 거주하였고 유치원교사를 지냈다. 현재 남한에서는 경기도에서 별다르게 하는 일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직접 감잎차도 닦아서 만들고 솔잎차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감기에방으로 차원에서 물에 타서 먹였다고 하였다. 남북한이 차문화교류를 하게 되면 자신은 사업으로 하고 싶다고 하였다. 감잎차 같은 것은 남한에서도 많이 마시는데 북한 감잎차보다 못하다고 한다. 유기농 친환경 차 상품으로 할 만한 것들이 많다고 하였다. 북한 면접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 <표3-3>와 같다.

<표3-3> 북한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대상자	성별	나이	결혼	탈북년도	입국년도	북한거주지	직업		경험한 차의 종류
							북한	남한	
6	남	21	-	2016	2016	평양	고등학생	대학생	녹차, 커피, 결명자차 등
7	여	37	유	2006	2013	함경북도	복싱선수	주부	커피, 오미자, 생강차 등
8	여	40	유	2006	2006	함경북도	철도원	통일교육강사	커피, 누룽지차 등
9	여	50	유	2013	2013	양강도	중등교사	대학원생	커피, 오미자, 생강차 등
10	여	60	유	2006	2006	황해도	유치원교사	사업	커피, 솔잎차, 감잎차 등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남북한의 차(茶)문화 역사에 관한 문헌 고찰

남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정서로서 차문화를 탐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역사에 기반 한 전통문화로서의 ‘차문화사 고찰’이라 사료된다.

남북한 차문화의 역사적(歷史的)고찰은 기층문화에 대한 문화정서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 반면 현재의 차문화 역사와 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남북한 차문화사의 고찰을 통하여 생활문화의 측면에서 남북 차문화의 차이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차문화의 단절과 전승의 간격이 서로 다르고 자연적 환경과 사회·경제 발전의 차이로 인하여 차문화의 발전 정도도 다르므로 동등한 선상에서의 비교연구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 서로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차문화 역사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남한에서의 서적은 2015년도에 출간된 단행본을 참고하였고, 북한에서의 서적은 지리적·정치적 접근의 제한으로 현재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2014년도에 출간된 단행본을 기준으로 삼았다. 남한의 『한국차문화의 역사』와 북한의 『차문화의 력사』 내용구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4-1>과 같다.

<표4-1> 남한의 『한국차문화의 역사』와 북한의 『차문화의 력사』 목차 비교

구분	남한		북한		
도서명	한국차문화의 역사		차문화의 력사		
저자	박정희		조희승		
출판년도	2015		2014		
출판사	서울: 민속원		평양: 평양출판사		
본문구성	차의 기원과 전래		‘책을 내면서’ : 세계 3대 기호음료로서 ‘차’ 차일반		
	고대 사국	고구려	한국 차문화 역사	세 나라 시기	고구려
		백제			백제
		신라			신라
		가야			
	남북국	발해(북국)			발해
		신라(남국)			후기 신라
	고려				고려
	조선				조선
	한국차문화의 조명				
새로운 차문헌 자료 해석		세계차문화역사			
일제강점기에서 현재까지 차문화		‘글을 마감하며’ 민족고유의 우수한 차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노력			

※박정희(2015) 『한국차문화의 역사』와 조희승(2014) 『차문화의 력사』 목차를 정리하였음.

### 1) 남한 차문화 역사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선정한 차문화역사에 관한 서적은 남북한의 출판년도가 서로 가장 가까운 도서로 선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2015년 민속원에서 출간된 박정희의 『한국차문화의 역사』는 가장 최근에 출판된 한국차문화사로서 시대별, 나라별로 서술하고 있으며, 구성은 제1장에서 차의 기원과 전래, 제2장에서 고대 사국의 차문화, 제3장에서 남북국시대의 차문화,

제4장에서 제6장까지는 고려시대의 차문화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제7장과 제9장에서는 조선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조선의 차문화에 관하여 고찰하고 제10장에서는 한국차문화의 중흥의 측면에서 차문화에 대한 조명과 제11장에서는 새로이 발견된 차관련 자료를 해석하고 있다. 제12장은 일제강점기의 차문화와 제13장은 해방이후의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차문화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북한의 『차문화의 역사』와 대체로 유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의 기원과 전래에 관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차문화사를 고찰하기 위해 역사인식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한국차문화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한계로서는 절대적인 자료의 부족을 들고 있다.

차문화사 연구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서적들로는 차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이라고 할 만한 자료로 『다부』와 『동다송』이 있으나 차에 관한 내용이나 분량, 상세함,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인바 차에 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기록되어 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고려사』 및 『조선왕조실록』 등과 백과사전류의 책들과 그리고 개인이 남긴 문집이 있다.

그 외에 차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금석문, 차와 관련된 도자기와 차도구 등의 유물과 차와 관련된 유적, 벽화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로서는 해당 시기의 차문화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쉽지 않다. 또한 역사를 통해 남겨진 기록들은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진 한시(漢詩)이거나 문헌들이어서 해석하는데 시대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한시를 전공한 학자와 차문화 이론을 전공한 학자가 공동으로 연구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sup>180)</sup>고 한다.

차의 음차 목적이 약용에서 식용으로, 식용에서 기호음료로 발전한 것으로 차의 원산지는 중국과 인도이다.

---

180) 박정희(2015). 한국 차문화의 역사. 서울: 민속원, 18.

한반도에서의 차의 기원에 대해서는 자생설과 전래설이 있다. 전래설에 대해서는 크게 허황옥의 차 전래설<sup>181)</sup>과 대림의 전래설<sup>182)</sup>이 있다.

『삼국사기』를 인용한 기록들 중 『동국통감』은 ‘地異山’을 ‘智異山’으로 고쳐 기록했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선덕왕을 성덕왕이라고 오기(誤記)하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지봉유설』에는 생략하거나 개략적으로 적고 있다.

고대 사국의 차문화에 대한 고찰은 기존의 역사 연구에서 삼국시대로 지칭하던 고구려, 신라, 백제만을 다루면서 신라에 집중되어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가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신라에 편입되기 이전의 가야의 독자적인 역사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자료가 되는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서도 가야의 차문화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등의 사국의 차문화로 범주를 정하여 고찰하고 있다.

고구려는 북방의 기마민족 문화와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여 백제와 신라, 일본에 전해주었으며, 불교도 소수림왕 372년에 최초로 수용하였다.

고구려 시대의 차에 대한 문헌자료는 『삼국사기』에 고구려 지방의 이름 ‘구다국’에 관한 내용과 유적과 유물에 대하여 무용총의 주인접객도, 안악3호분 고분벽화의 그림, 이동식 쇠화덕·굴뚝 달린 질화덕<sup>183)</sup>, 일본인 아오키(青木正兒)가 발견했다는 병차<sup>184)</sup>를 소개하고 있다.

---

181) 허황옥의 전래설은 이능화(1869-1943)의 『조선불교통사』에 “김해 백월산에 죽로차가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수로왕비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 씨앗이라고 한다”고 기록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도 허황옥의 기록이 있지만 차씨를 가져왔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

182) 대림의 차 전래설은 『삼국사기』의 흥덕왕조에 “신라의 제42대 흥덕왕이 즉위하여 3년(828) 12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림이 차종자를 가져오니 왕이 그것을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이미 선덕왕때부터 있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성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183) 각각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의 교토대학에 있다

184) 아오키(青木正兒)는 모문석(毛文錫)의 『다보(茶譜)』를 역주하면서 “나는 고구려의 옛 고분에서 출토되었다는 모양이 둥글고 얇은 작은 병차 한조각을 표본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백제는 근초고왕 때 이미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통해 문화를 수입하고 일본에 한문과 유학, 불교 등의 문물을 전해주었다.

백제의 불교 성행, 도교의 전래와 영향, 지리적 위도 상 차산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 중국의 남북조시대 차주전자로 사용되었던 계수호라는 주전자가 출토된 점,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제잔과 청동제완, 동탁은잔 등을 미루어볼 때 차문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의 차문화 고찰의 문헌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문일평의 『다고사(茶故事)』와 이규보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가 있으며, 백제에 차가 있었다는 다른 나라 자료로는 일본의 나라(奈良)에 있는 동대사(東大寺)의 『동대사요록(東大寺要錄)』에 왕인의 후손 교키(行基)라는 스님이 절 주변에 차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교키가 왕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일본 우에노공원의 「박사왕인비(博士王仁碑)」에 보면 “왕인의 자손으로 유명한 사람이 많았지만 특히 대승정 교키는 걸출하다”<sup>185)</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의 역사에 관한 문헌이나 기록이 유물·유적에 관한 발굴작업과 서해유물의 발굴 등을 통해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륵사지 발굴 작업을 통해 차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계속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미륵사 주변에서는 6세기경부터 미륵사가 폐사되는 16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음차풍속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능산리 고분의 차향로도 차와 관련된 유물로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굴 작업을 통해 발견된 유물에 대해 차(茶) 관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인이 함께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다.

신라는 6세기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제도를 갖추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오다가 7세기 이후에는 당의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에서 유학하고 온 승려들과 도가사상의 발달로 음차풍속을 짐작할 수

---

지름이 4cm정도의 엽전 모양에 두께는 닷푼가량이 된다.”라고 하였다.  
185) 박정희. 앞의 글, 39.

있다.

일제 강점기 출판된 『조선의 차와 선』에 보면 “경남 통도사는 신라의 명승 자장율사가 창건한 절로 지금도 있다. 경내의 차나무는 율사가 입당하여 가져온 다종을 재배한 것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

화랑도의 차생활에 대한 유물, 유적에 대한 조여적의 『청학집』, 홍만종의 『해동이적』 등의 문헌들과 한송정에 새겨놓은 김극기(1150-1204)<sup>186</sup>의 한송정에 관한 시<sup>187</sup>를 통해 신라의 화랑들은 집단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차를 마시고 전국의 명산대첩을 다니며 학문과 무예를 익혔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가야는 변한시대부터 철기문화로 중국일본과 교역하였다. 고령, 창령 등에서 발굴된 가야식 토기와 금동관, 철제무기와 갑옷, 투구는 가야의 문화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수로왕묘에 현다한 기록에서 차에 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가야 차문화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허황옥의 차씨 전래설과 한국 불교의 남방전래설이 있다. 허황옥의 동생 장유화상이 일곱 태자를 데리고 칠불암으로 들어가 수도했다는 설에서 이미 2세기 무렵으로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주장이다.

백월산에 차잎이 15cm되는 차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고려의 충렬왕이 김해에 들렀다가 차나무를 보고 맛과 향이 차 중에서 으뜸이라 하여 ‘장군’이라고 명명했다. 구전되는 민요에서 죽로차와 장군차가 나온다.

남북국이란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한 남국신라와 북국발해를 말한다. 이는

---

186)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http://100.daum.net/book/624/toc> 에 따르면 김극기의 생몰연도가 미상으로 나오며, 송재소 응 편역. 한국의 차문화 천년 3. 파주: 돌베개, 53에 보면 출생년도 미상과 사망은 1209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각 저서들마다 차이가 있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한송정이 있던 자리 곁에 차우물 [茶泉 또는 茶井]·돌아궁이 [石竈]·돌질구 [石臼] 등이 있었는데 이를 화랑의 다도유적(茶道遺蹟)이라 하였고, 또 이 유적지를 가리켜 술랑선인(述郎仙人), 즉 화랑도들이 노닐던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87) 출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신라가 아니라 고려를 최초의 통일국가로 인정<sup>188)</sup>하는 역사관에 근거한다.

신라의 차문화의 문헌으로 이규보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서 원효방에 관한 내용과 설총의 화왕계, 『삼국유사』 제3권 「대산오만진신」에서의 보천과 효명태자 이야기, 「명주오대산보질도태자」 전기, 월명사의 「도솔가」에 관한 이야기, 『삼국유사』 「표훈대덕조」에 충담사와 경덕왕의 이야기를 들고 있다.

무상(684-782)<sup>189)</sup>은 염불선으로 간화선을 개척하는 한편 선다지법(禪茶之法)으로 깨달음이라는 것도 실은 평상심에서 이루어짐을 역설하였다. 선다지법(禪茶之法)은 ‘차마시기’와 ‘도’가 하나라는 것으로 마조에게 전승되어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와 조주의 ‘꼭다거의 선구적 실천<sup>190)</sup>이라고 하였다. 구화산의 김지장(김교각, 696-794)은 금사천에서 직접 물을 길어와 금사차<sup>191)</sup>를 즐겨 마셨으며, 차밭을 일구고 차 재배법과 차 달이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최치원은 『계원필경(桂苑筆耕)』에서 “본국 사신의 배가 바다를 건너가는데 차약(茶藥)을 사고싶다”고 하였으며, 진감선사대공탑비의 비문의 차에 관한 내용으로 한명(漢茗)<sup>192)</sup>이 나온다.

차가 인간의 정신적 세계와 결합하여 진정한 문화가 된 것은 불교, 특히

---

188) 이이화(2001). 이야기 한국사 3. 서울: 삼성, 298.

189) 2011.10.25.세계일보에 연재한 박정진의 글이나 류건집의 『한국차문화사 上』에서는 무상의 생몰이 684-762년으로 되어 있다.

190) 박정진의 차맥23: 불교의 길, 차의 길 ①한국 문화영웅 해외수출1호, 정중무상선사. 세계일보, 2011.10.25.

191) 박정희. 앞의 글, 60. ‘지장이 당나라로 갈 때, 금지차를 가지고 갔다고 하지만, 금지차와 금사차가 같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배근희(2010). 신라시대 차문화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 금지차의 언급은 김교각이 중국으로 갈 때 우리 나라 차종자를 가져가 구화산에서 차를 재배·제다하고 음다생활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192) 박정희. 앞의 글, 62: 하동의 쌍계사 최치원의 ‘진감국사대공탑비’의 내용으로 “어찌다 한명(漢茗)을 선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가루로 내지 않고 그냥 삶아서 마신다. 나는 그저 배를 적실뿐이다. 호향을 선물하는 이가 있으면 질그릇에 쯔불을 담아 환을 짓지 않은 채로 사르면서 말하기를 나는 냄새가 어떠한지 분별하지 못한다. 마음만 경건하게 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선종과 만남이며, 그 후로 차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무상에서 시작되어 마조에게로, 마조의 법맥은 백장회해 등에게 이어졌는데 백장회해는 백장청규를 제정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다탕행례에 관한 법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석문에 보이는 차와 관련된 기록으로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비, 보령군 성주사의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대보광선탑비 등이 있으며, 유물로 경주 안압지에서 ‘언정영(言貞榮)<sup>193)</sup>’이라는 명문 사이에 ‘차(茶)’자가 쓰여 있는 토기 잔과 경주 남산 창림사지에서 발견된 ‘다연원(茶淵院)’이라는 와당이 있다.

고구려 유민이 발해를 건국(698년)하여 문왕 이후 당과 화친하여 문물의 수입에 힘쓴 결과 선왕 때는 전성기를 누렸으며, 차에 관한 직접적 자료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발해의 불교와 도교 발달 수준과 일본에 사신으로 간 왕효렴(王孝廉?-815)이 일본의 구카이(空海774-835)와 시문(詩文)으로 교류한 사실과 일본의 석산사(石山寺)에 소장되어 있는 『불정존승다라니경(佛頂尊勝陀羅尼經)』의 발문에 861년 이거정(李居正)이 전해줬다는 기록<sup>194)</sup>에 의해 차문화를 짐작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차문화에 관하여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서는 『고려사』와 『고려도경』의 내용을 토대로 궁중에서의 차의례와 의식다례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시문을 통해 문인과 승려, 그리고 서민으로 분류하여 차생활을 고찰하고 있다.

고려시대 진다의식(進茶儀式)이란 삼국시대의 헌다의식(獻茶儀式)이 발전된 것으로 국가의 많은 행사에 차를 올리는 의식을 말하는데 그 대상은 신(神)이거나 선왕(先王) 혹은 사신, 임금이거나 오악삼신일 때도 있다. 궁중의식

---

193) 2014년 경기도박물관전시에서 언정유(言貞柔)로 판독하였다.

194) 박정희. 앞의 글, 72.

에서의 진다란 술과 과일을 올리기 전에 임금에게 먼저 차를 올리는 것을 말하며, 왕이 별도로 진다의례를 행한 것은 차를 진상하는 중요한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팔관회의 진다의식에서 신하가 왕에게 차와 다식을 바치면(進茶), 왕이 다시 신하에게 차와 다식을 하사하고(賜茶) 같이 차를 마시는 것(設茶)으로 의식을 끝냈다.

차는 왕실의 하사품과 부의에 활용되었고, 사원에 시주하는 품목이었으며, 차에 관한 의례는 왕실의 혼례, 왕자와 공주의 탄생, 관례 등에서 왕비의 책봉례 등이 행해졌다.

차와 관련 기관으로 다방은 태의감도 소속되어 의약과 치료에 관한 일도 담당하였는데, 다방태의소감, 다방시랑, 다방별감, 다방참상원, 다방인리, 다방좌우번, 다방원리, 다방원, 한다방남반원, 한다방반색원 등이 있었다. 왕이 순행할 때 차를 올리거나 준비하는 일을 위해 다구일체와 짐을 나르는 일은 행로다담군사가 담당하였다.

그밖에 행해진 진다의식으로 중형주대의와 공덕재, 기우재와 수록재 등과 접빈하는 빈례의 진다의식이 있다.

차에 관한 전문서적이 없었던 이유로 대부분의 차문화사 서적들과 마찬가지로 문인과 승려들의 시문(詩文)을 통해 그들의 차생활을 설명하고 있다.

문인들로는 이인로, 이규보, 이재현, 이곡, 이색, 정몽주, 이숭인, 원천석 등의 시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승려로는 대각의천과 진각혜심, 원감충지, 나옹혜근 등이며, 서민들의 차생활에 대하여는 임춘의 시(詩)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차생활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다점은 일반 백성들이 차를 사거나 차를 사서 마시는 집이다. 차가 생활 속 일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집집마다 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종 5년 한언공의 상서에서는 주점과 다점을 구분하였다. 여행자들이 차를 마시는 휴게소와 숙박시설을 겸하는 다원이 있었으며, 『동국여지

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다방원(茶方院, 경북), 다견원(茶見院, 경남), 다정원(茶井院, 황해), 다정원(茶亭院, 충남과 경북) 등의 다원이 있다.<sup>195)</sup>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서 다루는 조선차문화사에 대한 비중은 분량으로도 저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음차풍속은 쇠퇴하였으나, 1000여 편이 넘는 차에 관한 시(詩)나 글, 또는 민요가 전해 오고 있고, 중국의 다서(茶書)들을 소개한 글들이 많이 나오고<sup>196)</sup> 조선 중·후기의 백과사전과의 등장에 의한 차에 관한 문헌 고찰로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기도 하였고, 현대에 이르러 차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고문헌의 발굴에 따른 것이라 사료된다. 다른 한편 차문화가 융성했다는 고려시기의 차문화에 대한 여러 제한으로 인하여 조선의 차문화에 대해 상세하고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확장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차문화의 역사』에서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는 ‘다례’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사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그 용례를 밝히고, 청나라와 일본과의 교류에서 행해진 다례에서 차문화가 어떻게 매개되었는가를 연구의 범위로 포함시켜 고찰하고 있다. 다례에 관하여 학자들의 저서에 나타난 개념의 정의에 따라 고찰하였는데, 유희(1773-1837)의 『물명고』에서 “다례는 삭망에 사당에 헌다하는 것인데, 주부가 점다하여 바친다”라고 했으며, 1930년대 사학자이자 언론인이었던 문일평(1888-1939)은 ‘다고사’를 조선일보에 연재하면서 “다례란 무엇인가 하면, 명일에 사자를 제사하는 약례라고 조선어사전에는 적혀 있다. 그러나 나의 본 바에 의하면 사자를 제사하는 약례뿐 아니라 생자를 공대하는 약례 역시 다례라 칭한다.” 라고 하였다.

다례<sup>197)</sup>는 두 가지 음과 훈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데 조상에 대한 제사의

---

195) 박정희. 앞의 글, 131.

196) 정영선(2007). 한국차문화. 서울:너럭바위, 174.

197) 1996년 편찬된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다례(tea ceremony): 사람과 신불에게 차를 달여 바치는 예의범절. 다례는 차를 마시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예의범절, 즉 예(禮)나 몸가짐 그리

의미와 귀빈에 대한 접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전자의 뜻으로 쓰일 때 차례라는 음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의 독특한 다례로 인산 뒤 삼년상 안에 혼전이나 산릉에서 낮에 간략하게 지내는 주다례와 명절, 초하루, 보름, 동지 등 절일과 특별한 일리 생겼을 때 하는 별다례, 왕세자가 한 달에 두세 번 스승과 시강원의 정1품 관리와 빈객을 모아놓고 경서와 사기를 강론하는 회강을 마치고 난 후에 하는 회강다례가 있다.

조선의 다가(茶家)를 살펴보고 있는데, 함허 기화(1376-11433)의 『다계송』, 김종직(1431-1492)의 『점필재집』, 차를 소재로 70여 편의 작품을 지은 김시습(1435-1493), 이목의 『다부』, 이수광의 『지봉유설』, 김육의 『유원총보』, 이익의 『성호사설』, 안정복의 『잡동산이』, 홍세태의 『해동유주』, 신유한의 『차생활』, 여성으로서 영수합 서씨의 『영수합고』, 유한당 홍씨, 허난설헌, 숙선옹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서유구의 『임원십육지』, 최한기의 『농정회요』, 조재삼의 『송남잡지』, 이우원의 『임하필기』, 다산 정약용, 초의 의순, 추사 김정희, 자하 신위, 우선 이상적, 박영보, 범해 각안의 시와 글들을 소개하며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저자는 한국 차문화의 중흥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차문화의 역사』에서도 새로이 발견된 문헌으로 이덕리의 『기다』와 기능성 향차에 관한 이운해의 『부풍향다보』, 호의·초의스님과 추사와 정학유, 정학연 등 유학자들 간 교류 내용이 실린 간찰 16편을 모은 『□다암서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기다』의 차문화사적 의의는 『동다송』보다 50년 쯤 전에 나온 전문적인 다서(茶書)라는데 있으며, 그동안 정약용의 저

---

고 차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 분위기와 지식 등을 일컫는 것이다. 차례: 음력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 차례는 원래 다례라고 하여 문자 그대로 차를 행할 때의 모든 예의범절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다례라 하면 옛날 궁중의 다례나 불교의 다례 등을 뜻하는 말이고,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를 가리킨다. 또한 차례자체도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정월 초하룻날과 추석에만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서로 잘못 알아왔는데 이덕리가 저자로 밝혀진 것은 자료의 가치를 높인 것'198)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차문화의 역사』에서 조선차문화사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의의는 현대적 계승에 있으며, 현대적 계승이란 전통의 창조적 계승으로서 미래 지향적일 때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사라진 것을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차 연구자들이 과거의 연구에 몰려 있는 것은 차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대중화와 사회화를 어렵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조선의 차와 선(朝鮮の茶は禪)』에 수록되면서 알려지게 된 차로 ‘청태전’과 ‘백운옥관차’가 있다.

일제는 식산흥업의 일환으로 차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전라남도 일대 광주 무등다원을 시작으로 정읍 오가와다원, 전남 보성, 나주, 광주 등에서 차를 재배하여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한편 내선일체 식민지교육의 일환으로 일본식 다도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선의 차와 선(朝鮮の茶は禪)』의 서문에서 이에이리는 “조선인에게 술을 즐기는 나쁜 습관을 차를 즐기는 것으로 바꾸어 보려고 한 것은 한국인의 정신을 개조하려는 의도였으며, 이를 위해 먼저 여학교에서 다도교육199)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 현대 다도의 맥락의 시작으로 의재 허백련, 응송 박영희, 효당 최범술, 명원 김미희 등이 결성한 차문화 단체와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허백련은 무등다원을 인수받아 ‘삼애다원’이라 하고 차를 대중화시키고 산업화시키고자 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차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차기 제작과 학교 교육을 통한 차산업화, 공교육을 통한 생활차 보급운동을 하였다.

---

198) 박정희. 앞의 글, 247.

199) 다도교육이라는 용어대신 다례교육, 차문화 예절교육, 차문화교육 등의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차문화계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응송 박영희는 초의의 『동다송』과 『다신전』 필사본을 정리하고 초의차 제다법을 보전하여 전달하였다. 응송의 음차법은 일탕법인데 뜨거운 물에 한번 우려서 마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2) 북한의 차문화 역사

『차문화의 력사』는 2012년에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발행했던 조희승의 『차의 력사와 문화』를 재편집하여 출판한 것인데, 그 구성은 책의 머리말<sup>200)</sup>과 본문, 에필로그 형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3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의 구성은 크게 ‘차일반’과 ‘우리나라 차문화역사’와 ‘세계차문화역사’를 다루고 있다. 차 일반에 관한 내용과 세계차문화역사의 부분은 <부록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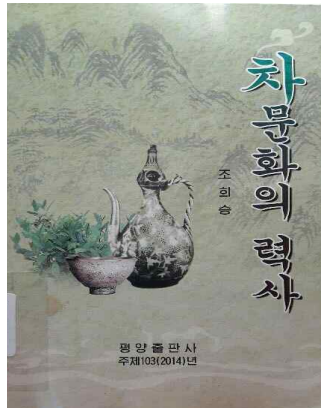
역사적 문헌과 시(詩)를 바탕으로 시기별, 나라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북한의 차 전문서적으로 『차문화의 력사』의 책표지는 <그림 4-1>와 같다.

---

200) 조희승(2014). 앞의 글, 1: 서두에 ‘책을 내면서’의 내용에는 차를 세계3대 기호음료로 소개하고 있다.

‘세상에는 인간의 식생활에 리용되고 있는 음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맛과 향기는 물론 인체에 주는 유익성을 비롯하여 어느모로 보나 뛰어난 음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세계3대 기호음료의 하나인 차이다.’

또한 차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의 문화로 계승 발전되어왔으며, 차문화는 식생활의 윤택과 건강의 증진, 더 나아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심어주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차문화를 민족문화와 생활문화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4-1> 『차문화의 역사』의 표지

‘오랜 전통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차문화’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수한 차문화로서 조선시대에도 명맥이 끊기지 않고 줄기차게 계승되었으며, 일본에까지 전파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각 시기별 나라의 차문화사를 ‘세 나라 시기’를 기준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와 ‘세 나라 시기 이후’의 나라는 발해와 후기신라, 고려, 조선의 순서로 설명하였다.

고구려의 차문화는 불교의 유입으로 차마시는 풍습을 추측하며, 씨름무덤, 춤무덤벽화<sup>201)</sup>등 고구려무덤벽화에 차를마시는 장면에서 차문화가 있었다. 또한 『동국여지승람』(권51 평양고적조 구제궁)의 김극기의 시와(권51 평양고적조 조천석) 리침의 시를 근거 자료로 고구려 동명왕의 구제궁 근처 조천석에 중령<sup>202)</sup>의 기록과 동명왕이 차를 달이면서 차를 마셨다는 기록으로 고구려에도 차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춤무덤벽화는 다음 <그림4-2>와 같다.

201) 각저총과 무용총.

202) 조희승. 앞의 글, 39: 중령은 차달이는데 제일 좋다는 샘물이다.



<그림4-2> 고구려춤무덤벽화에 그려진 차마시는 장면<sup>203)</sup>

백제는 고구려와 인디아의 마라난타에 의한 불교 전파와 기후 풍토상 차나무 생육에 유리한 지역으로서 차마시는 풍속을 짐작하고 있으며, 또한 백제의 차나무와 차마시는 풍습이 불교와 더불어 일본에 전파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신라도 고구려, 백제와 더불어 불교의 유입으로 차문화가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는 『동국통감』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대림이 차나무종자를 당나라에서 가져와 지리산에 심기 시작한 828년이라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덕여왕 때부터 차마시기가 성행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빼놓아서 일본이 한국 차의 기원을 828년으로 단정하게 하는 빌미를 주었다고 하였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문무왕이 661년 내린 조서의 다과 이야기는 벌써 차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차의 기원을 일본보다 좀 더 앞당겨서 기술하고자 하고 있다.

세 나라시기 이후에 해당하는 나라는 ‘발해’와 ‘후기 신라’이다. 발해의 차문화에 대하여 직접 자료는 없지만, 당나라와 일본과 많은 무역거래로 차를 마셨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후기신라는 통일신라인데, 차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를 비롯한 차 관련 일화를 근거로 들고 있다. 설총의 『꽃왕이야기』, 『삼국유사』(권3답과 불

203) 조희승. 앞의 글, 38.

상) <명주오대산보즐도태자전기>에서 태화원년(827년) 8월 5일 신라의 태자와 동생이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에게 매일 아침 차를 공양하였다는 기록에서 이미 대림이 차를 가져오기 이전부터 차가 널리 보급되었다고 보고 있다.

『삼국유사』(권2 경덕왕, 충담스님, 표훈스님)에서 경덕왕(742-765)이 충담스님에게 차를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 최치원은 ‘국사비문’에 신라왕의 고승들에게 1등 품차의 하사와 ‘진감대사의 비문’에 우리가 마셨던 차의 종류를 기록하였으며, 『사신차장』, 『계원필경』에서 자신의 음차기록과 차가 차약처럼 국제적 무역품으로서 거래됨을 기록하였다.

고려에서는 차와 관련된 의식으로 주례와 다례를 행하였다. 다례행사는 연등회, 팔관회 등과 책봉의식, 공주 시집보내는 의식 등 모든 국가적 중요 의식에 진행되었다. 진차의식(進茶儀式)은 차를 마시는 의례인데 술과 음식을 먹기 전에 국왕이 차를 먼저 마시라고 하는 것을 진차라고 하였다. 팔관회의 진차시에 다식도 곁들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차관련 기관으로 다방이 있으며, 이는 다시 내시다방, 다방좌우번, 지다방사로 나뉘어졌다.

고려의 차도(茶道)<sup>204</sup>에 관하여 차문화의 기본요소를 융화시켜 높은 단계에서 차문화를 완성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산수의 수려함과 기암괴석, 꽃과 새의 울음소리 감상하면서 정신적 안정을 담고 있어서 중세 차문화의 절정을 이루었으며, 고려사람들은 차를 통한 문화정서생활을 시로 읊고 글로 남겼다<sup>205</sup>고 하여 문화정서생활로서의 차문화를 인식하고 있다.

---

204) 조희승. 앞의 글, 76-77: 서궁은 ‘무릇 연회가 있으면 마당 한가운데 가마를 걸고 은으로 만든 뚜껑을 덮는다. 차를 손님 앞에 내올 때는 아주 천천히 걸어서 가져온다. 접대관이 차를 손님 앞에 돌려놓은 후에야 비로소 마신다’고 하였다. 고려사람들은 차를 약재로 복용하였을 뿐 아니라 기호품으로 풍류취미로 마셨다.

205) 조희승. 위의 글. 82.

고려청자기의 제작과 사용은 고려의 차문화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민족문화 발전에서 중요 위치를 차지했다고 평가하였다.

차재배, 생산지로 차소(차원), 향, 소, 부곡이 있었으며, 차소는 차생산을 전문하는 단위였고 차원은 국가가 직속, 또는 개인지주나 사찰이 소유하여 운영하였다.

『고려사』(권68 례10 로인사설의, 권4 현종1 즉위년 7월 신사)에 보면 차는 약으로 활용되거나 하사품이나 부조 증여품으로 활용되었다. 『보한재집』 <도갑산사의 작설차> (신숙주)와 『송광사의 작설차』(리제현)에는 작설차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손득지의 차운에 대한 노래에 화답하노라’(리규보)와 『점필재집』(권3, 김종직)은 차세의 강요와 고된 부역에 의한 수탈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조선은 고려시기의 차문화를 계승하였는데, 그 증거로 차관련 기관이나 다례의식 등을 들고 있다.

『태종실록』(권9 5년3월 병신, 권29 15년 4월 경진,)와 『세종실록』(권66 16년 11월 임진)에는 차관련 기관으로 다방은 내시다방으로 내시원소속의 관청이었으며, 하급관리 차모를 두었다. 다례의식이 진행되었고 진차의식은 왕의 식사가 끝나면 진차하는 의식이다.

『조선봉건왕조실록』에 보면 다례행사는 주로 외국사신을 접대할 때 진행되었다고 기록되었다.

『태종실록』(권10 5년 7월 기유)에는 차시(차마시는 시간)에 사헌부관리들이 매일 한차례씩 차를 마셨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지리지(권150 경상도, 권151 전라도)에 차생산지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고을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고, 화개와 함양과 고부군, 라주군 등지에서 작설차를 생산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전라도에 고려청자자기생산 가마터가 전개되어 있으며 차생산지에는 자기

소와 도기소가 있었다. 중국명나라에 대하여 쓴 『대명일통지』 <조선국의 토산>에서도 차를 언급하고 있다.

차물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 차마시는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차정, 차헌 등은 차를 파는 차집이고 손님 접빈, 의례행사에서 다과, 다담상이 나왔다고 기록하였다.

서유구는 『림원십륙지』에서 중국의 책을 인용하여 차에 대해 서술하면서 자기의 견해로 주를 달아, 조선 사람은 차를 썩 잘 마시는 것은 아니며, 나라 안에 차나무종자가 있다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량반 부자들이 왕왕 차를 즐기는데, 허풍에 들떠 중국에서 비싸게 차를 구입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조선시대 음차풍속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차문화의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실학자들의 차에 관한 내용은 박지원의 『열하일기』, 신광수의 『관서약부』, 정약용의 『경세유표』, 『아언각비』, 『각다고』 등을 적고 있는데, 정약용을 『동차기』 206)의 저자로 잘못 적고 있다. 초의선사는 차도의 대가로서 『동차송』, 『차신전(茶神傳)』을 저술했고, 초의와 교유한 김정희가 초의의 차에 관해 중국의 승설차와 견줄만하다고 격찬했다고 적고 있다.

차의 종류와 이름에 대하여 ‘비취색, 푸른향-록차에 어린 민족의 슬기’라고 제목을 부쳐 록차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마셨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차잎의 채취방법과 가공방법, 음차방법에 따라 록차도 여러 종류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에서의 록차는 6대 다류<sup>207)</sup>의 분류 방법에 따른 녹차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차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려와 조선봉건왕조 초기에는 대차, 뇌원차<sup>208)</sup>, 룡단승설차, 자순차, 령아차 등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작설차, 천

206) 동차기(東茶記)를 정약용의 저서로 잘못 알고 있음. 이덕리의 『동다기』 입.

207) 박기봉(2016). 다정의 티 스케치. 부산: 무량수, 253, 297: 흔히들 차라고 하면 녹차를 떠올리는데, 차의 분류는 녹차에서부터 시작된다. 6대다류는 차의 발효와 색에 따른 중국에서 일반적 분류법으로 녹차, 황차, 청차, 백차, 홍차, 흑차이다.

지차 등 여러 가지 차가 있었다. 고려 사람들은 제일 어린 차 잎으로 만든 차를 유차 또는 작설차라고 표현했다<sup>209)</sup>고 적고 있다.

본래 고유한 의미의 차는 룝차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조선봉건왕조 후반기 이후 차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어 대용차까지 차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분화 발전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민족이 창조한 고유하고 독특한 차문화의 특색이라고 하고 있다. 룝차 이외에 백두산의 만병초를 따서 만든 백산차와 제주도 굴화차, 김해 백월산의 죽로차<sup>210)</sup>가 있었으며, 『오주연문장전산』와 『규합총서』<sup>211)</sup>에 여러 가지 차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민족문화로서 중요하고, 생활문화를 윤택하고 풍부하게 하며, 문화정서생활과 건강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이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사람들의 식생활문화를 보다 윤택하고 유익하게 하는 사업과도 밀접히 부합되는 현실적 의의가 큰 문제이므로 북한 당국은 차문화의 계승발전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차재배와 가공의 국산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냈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과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 <sup>212)</sup>고 적고 있다.

아래의 <그림4-3><sup>213)</sup>은 차문화의 력사에 부록으로 실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강령 차재배원으로 보내준 차나무모이다.

---

208) 조희승. 앞의 글 136: 뇌원차는 각, 대차는 근으로 재었으며, 각 산차와 단차를 가리킨다.

209) 조희승. 위의 글, 133.

210) 조희승. 위의 글, 148-149.

211) 조희승. 위의 글, 151.

212) 조희승. 위의 글, 209.

213) 조희승. 위의 글, 212.



<그림4-3> 차례로 보내진 김일성(좌), 김정일(중), 김정은(우)의 차나무 모

## 2. 남북한 차 생산과 소비

### 1) 남북한 차 재배와 생산

#### (1) 남한의 차 재배와 생산

남한의 차산업은 해방 후 일본기업이 운영하던 무등다원을 의재 허백련이 무정부로부터 불하받아 삼애다원을 운영하면서 춘설차를 생산하여 보급하였다. 보성지역은 방치되다가 1957년 장영섭씨가 매입하였고 1959년 대한다업을 설립하였다. 이 당시만 해도 주로 공업용 홍차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차 소비는 거의 없는 상태(염숙2011; 박정희2015; 조성희,2015)<sup>214</sup>였다. 1960년대 정부주도로 전남 보성, 고흥 등에 대규모 차밭을 조성하여 차를 생산하다가 1980년대 초에는 제주도에 태평양 주식회사 장원산업이 현대식 차밭을 조성하여 ‘설록차’ 라는 브랜드가 출시되어 녹차음용의 대중화와 산업기반의 조성이 시작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에 의한 소득 향상으

214) 염숙(2011). 다도학입문. 서울:국학자료원, 234; 박정희(2015).한국 차문화의 역사. 서울:민속원, 283; 조성희(2015). 차, 숙박이냐?자유냐?. 서울: 서울포문, 246.

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녹차가 건강음료로 인식되어 2000년대 후반까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이전까지 기간 다소 감소되다가 2016년 시기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특용작물의 생산실적’에서 차를 기호작물로 분류하여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차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보고하였다.

남한에서의 주요 차생산지는 보성과 하동 그리고 제주도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방한계선이 정읍에서 강원도 고성에까지 이르러 강원도 남한 고성에서는 2004년부터 차밭을 조성하여 녹차와 발효차를 생산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은 38도 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차밭에서 차를 재배하고 녹차와 다양한 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육종개발의 성공으로 녹차가 냉해에 견딜 수 있게 된 영향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특용작물의 생산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기간 동안 한국의 차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표4-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2> 차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추이 현황<sup>215)</sup>

년도	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 M/T
2008	3,774	127	3,936
2009	3,616	113	3,266
2010	3,264	128	3,586
2011	3,306	79	2,110
2012	3,304	122	3,709
2013	2,926	105	2,700
2014	2,901	151	3,915
2015	2,768	150	3,618
2016	2,906	152	3,985
2017	3,050	168	4,026

※ 2017 농림축산식품부특용작물 생산실적, 74-76의 기호작물로 분류된 10년간의 차 생산을 발췌, 수정하여 표로 정리

215) 농림축산부(2018). 2017 특용작물 생산실적. 서울: 농림축산식품부, 74-76의 기호작물로 분류된 차 생산에 해당하는 것을 수정하여 작성함.

차의 생산량이 2011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다가 2014년 증가 이후 꾸준하게 유지하는 등의 현상을 보면 정부의 차문화정책과도 맞물리고 있는 것으로 2016년에 “차문화산업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차의 제다에 관한 국가무형문화재<sup>216)</sup> 지정 등의 노력과 2015년 하동 전통차, 2018년 보성 전통차와 장흥 청태전에 대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하동 화개면 전통차농업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sup>217)</sup>지정서를 수령하는 등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sup>218)</sup>의 현황에서 차와 관련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3 >의 내용과 같다.

<표4-3>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

지정 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특징
제6호 ('15)	하동 전통차 농업	화개면 일대(598ha)	지리산 산간지역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차밭을 조성, 경관과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전통차 가공기술 유지 보전
제11호 ('18)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전남 보성군 일원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형 차밭조성과 탁월한 경관
제12호 ('18)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전남 장흥군 일원	수목하층부의 차 재배환경 조성과 청태전을 만드는 제다과정, 음다법이 독특하게 유지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2018년 11월 29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정리

- 216)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7월 14일 ‘제다’(製茶)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하였다. <http://www.cha.go.kr/>
- 217) 2018.04.19.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국제포럼’에서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 화개면 전통 차농업’ 지정서 수령 및 발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 2018.04.20.
- 218)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오랜기간동안 농경행위로 형성·진화시켜 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활동 시스템과 그결과로 나타난 농촌경관 등 관련 산물을 말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것임. 차와 관련하여 2015년, 2018년, 세 건에 걸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정하였다. 2018년 11월 29일 보성전통차와 장흥청태전에 대해 각각 제11호, 제12호로 지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http://www.mafra.go.kr/mafra/index.do>

## (2) 북한의 차 재배와 생산

중국의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북한의 경제발전에 따라 평양에서 많은 찻집이 열렸고,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여가를 보내는 것이 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조선중앙TV에서는 북한의 차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으며, 북한 정부는 김일성 주석이 북한에서 차나무를 재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력으로 자연 지리적 특성으로 하여 차나무 재배를 할 수 없는 자국에서 차나무 재배에 성공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한다. 1982년 9월 중국 산둥(山東)성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이 이곳에서 자라는 차나무를 같은 위도 상에 있는 황해남도 강령군과 강원도 고성군에서 재배하도록 지시하고 다음해 초 260 그루의 차나무들이 선물로 들어와 연구, 재배사업이 시작되었다.<sup>219)</sup> 차재배지에 관하여 ‘조선신보’와 『차문화의 역사』에 실린 다음의 <그림4-4>을 보면 북한의 차밭과 생산되는 차잎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림4-4><sup>220)</sup> 황해남도 강령 은정차재배원(좌),  
『차문화의 역사』 부록에 실린 강령등암차재배원(우)

219) 1989.05.08.일자 로동신문 기사 “크나큰 은정이 갖든 260그루의 차나무가 오늘은 1만5천여 그루로” 내용에서; 뉴시스2014.10.21.,<http://www.newsis.com>: ‘북한 평양서 차문화 성행되고 있어’

220) 이용웅교수 네이버블로그<http://blog.daum.net/nkchosun-nkculture/11784214>, 2009.10.09.

로동신문에 의하면 영하19도에서도 겨울나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 품종 선발과 강령은정차재배원에 10여만 그루의 방풍림을 심고, 차나무 재배 기술과 번식 방법을 연구하여, 2009년에는 강령은정차재배원의 차나무가 수십만 그루<sup>221)</sup>로 늘어났으며, 2017년에는 30정보의 차밭을 더 늘린 것<sup>222)</sup>을 알 수 있다. 차잎 가공 방법에 대한 연구 사업도 진전을 이루어 2009년에는 녹차를 생산하다가 홍차와 오롱차도 생산하면서 ‘은정차’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은정차는 강령군에서 재배하는 강령녹차와 강령홍차,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에서 재배하는 고성녹차와 고성홍차 등 4종류로 나누는데, 수확한 차잎을 가열하여 발효시키지 않는 것이 녹차, 완전히 발효시킨 것은 홍차가 된다. 반(半)발효차는 오롱차로 구분한다. 차를 재배한 후 판매되고 있는 제다한 강령녹차 세트상품과 상품에 좌우 측면에 음용방법과 효능에 관한 설명<sup>223)</sup>은 다음 <그림4-5>와 같다. 은정차잎 속질량 100g이 가득 담긴 초록빛 철용기의 정면엔 ‘강령록차’라고 큼직하게 적혀있다. 그 위로 주민들에게 더 많이 불리는 이름 ‘은정차’도 쓰여 있으며, 통 옆면으로는 차의 효능이 열거되어 있다. 이삭기(충치), 입안염, 대장염, 뇌혈전, 고혈압, 동맥경화는 물론, 심지어 방사선 피해도 낮게 한다고 적혀 있다.



<그림 4-5> 강령녹차를 판매하기 위한 세트상품, 노컷뉴스2015.0726[사진-조선신보](좌), 2017년도 강령녹차의 앞면과 좌우측면에 기재된 설명(우)

221) 2009.08.30. 로동신문 기사“어버이 사랑 전하는 은정차” 기사 내용 중.

222) 2018.06.15.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223) 강령녹차를 본 연구자가 시민단체 관계자에게서 얻어서 시음하기 전 촬영.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차에 대한 관심은 유훈통치<sup>224</sup>)를 통하여 차문화정책으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아마 차문화의 향유는 삶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차관련 지도에 대해 로동신문에 보도되어진 내용은 2012년 은정차집에 들렸던 것<sup>225</sup>)과 2016년 강령군을 국토관리와 환경보호사업에 따른 국제록색시범지대로 개발하기 위한 조건으로 은정차 생산<sup>226</sup>)을 들고 있다.

김정은시대에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있어서 당장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어서 차문화는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일성시대에는 육종개발과 연구, 김정일시대에는 야생에서 차재배 성공과 차생산 및 판매, 김정은시대에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삶의 질에 대한 척도로서 차문화의 대중적 확산 및 부가가치의 상품화모색과 생산량확대를 계획<sup>227</sup>)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24) 조희승(2014). 차문화의 역사. 평양: 평양출판사, 210-211: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국의 산둥성에서는 차나무재배가 잘되는데 웅진반도와 산둥반도가 같은 위도 상에 있고 산둥반도와 거리가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웅진반도에 차나무를 심으면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시면서 강령군과 고성군에서 차나무모를 심도록 하시었다.

중략. 고난의 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차나무재배와 관련한 연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가도록 필요한 조취를 다 취해주시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여 가공 생산한 차가 나왔을 때에는 그에 갖든 아버지 수령님의 사랑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은정차로 부르도록 하시었다. 중략. 록차와 홍차와 같은 질 좋은 건강음료를 보장해줄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원만히 마련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 오시는 김정은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우리 인민들은 머지않아 차재배의 크나큰 혜택을 입으며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나가게 될 것이다.

225) 로동신문2012.06.03.: ‘완공을 앞둔 창조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있는 은정차집에도 들리시여 숭고한 위인세계를 펼치시었다.이날 은정차집에 들어서시여 안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곳에 놓여있는 긴 의자의 연분홍색과 벽체의 색을 조화롭게 맞추면 더욱 멋있을것이라는 데 대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226) 로동신문2016.12.04.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국토관리와 환경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국토관리와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풀어나가야 합니다.”중략. 황해남도 강령군이 록색지대로 개발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강령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어려 있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은정차가 생산되고 있다.

## 2) 남북한 차 소비

### (1) 남한의 차 소비

남한의 차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2105년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차문화산업을 분류해보고, 관련 연구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차문화콘텐츠로서의 차문화산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하 ‘차산업법’이라 한다.

‘차산업법’에서의 차문화산업은 산업적 측면에서 상품의 과학화와 표준화 마련을 들 수 있다. 농축산식품부에서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재배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과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그리고 차의 가공·제조·유통·판매현황, 차(茶)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와 인지도, 차 수출입의 현황, 차산업종사자 성별 포함 현황 등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차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차산업관련 인력은 차생산 및 유통판매 종사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차산업종사자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두게 하였다.

국내산 차 품질 향상 유도과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 예를 들면

---

227) 로동신문2018.06.10.: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단 석달동안에 적은 인원으로 30여 정보의 땅을 개간하여 차나무 밭 면적을 늘이였다고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차생산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녹차는 우전(곡우이전 채취한 1심2엽의 사용), 곡우, 세작(곡우 지난 후 8일에서 10일 사이 채취한 1심3엽의 사용), 중작, 대작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표시 기준 설정하였다.

차문화관광콘텐츠는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문화교류, 국제친선 및 국제평화에도 크게 이바지<sup>228)</sup>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성녹차의 경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파급효과에 대해 ‘녹차관련 관광산업은 3,065억원의 파급효과가 있었으며, 녹차생산으로 직접 발생하는 유발효과는 2,141억원, 생엽과 음식료업, 섬유, 화학 등으로 4035억원의 유발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924억원이었다. 관광객 수의 증가는 2003년에 559만 명, 2004년에 578만 명, 2005년에는 500만명<sup>229)</sup>에 이른다.

또한 강원도농업기술원은 건강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안정적 소득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차(茶)를 새로운 작목으로 도입해 장기적으로는 강원도 관광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차가 고소득 작물이며 관광 등 다른 산업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 재배에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차재배 가능 지역뿐만 아니라 기후적으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도 차 관련 산업을 모색하고 새로운 차문화를 형성하여 관광산업에 활용하려는 노력<sup>230)</sup>들은 차문화의 미래적 가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연구자들이나 차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차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모색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하다. 차(茶) 주산지인 보성과 하동, 제주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 곳은 공통적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서의 차밭<sup>231)</sup>과

228) 김중은 외(2008). 관광지리학. 서울: 형설, 108.

229) 동아일보2005.6.11.

230) 이경희(2008). 한국차문화전승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0-113.

231) 대한다원, 서광다원, 화개의 야생차밭, 한국차박물관, 하동야생차박물관, 오설록티뮤지엄등.

차에 관한 인문학적 지식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차박물관, 그리고 지역관광지와의 연계의 용이성을 들 수 있다.

차문화산업의 중요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차문화 관련 축제를 살펴보면, 보성다향제, 하동야생차축제 등 차와 관련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이름의 많은 축제를 해오고 있지만, 문체부가 1995년부터 지역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선별해 매년 문화 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해오고 있는 문화관광축제에 보다 많은 차 관련 축제가 선정되지 않고 못하고 있음<sup>232)</sup>은 앞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차문화공간을 살펴보면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차의 시음과 판매의 공간으로서 기업과 개인의 운영, 봉사의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혹은 위탁으로 운영하는 형태와 사찰에서 차와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들 수 있다. 차문화공간의 운영주체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차문화공간은 자본의 취약성으로 지방에 몰려 있는 추세이며 차문화의 전문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차가 부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차문화공간이 중국차와 차도구를 판매하

232) <https://www.mcst.go.kr/kor/main.jsp>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등급	선정축제
글로벌육성축제	화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탈춤축제
대표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찰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최우수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보성다향대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제주들불축제(↑)
우수축제	전남진장홍물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봉화은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강진청자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수원화성문화제(↑), 춘천마임축제(↑), 임실N치즈축제(↑),시흥갯골축제(↑)
유망축제	순창장류축제, 음성품바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고창모양성제, 서산해미읍성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괴산고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논산강경갯길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신규), 영덕대게축제(신규), 횡성한우축제(신규), 강릉커피축제(신규), 평창송어축제(신규), 포항국제불빛축제(신규)

는 곳이 되어 가고 있다. 기업이 운영하는 차문화공간으로 ‘스타벅스’의 대척점에서 우리 차문화를 위해 다각적인 모색으로 다양한 차개발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오설록’은 차밭과 차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차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여왔으며, 최근에는 ‘오설록 1979’와 ‘오설록 티하우스’를 오픈하였는데 오설록 1979는 정통성과 진정성을 조화시킨 프리미엄 티룸으로, ‘오설록 티하우스’는 캐주얼함과 동시에 전문성도 갖추고 있는 프리미엄 티룸으로 기획하여 티 소믈리에의 전문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차제조 방식을 볼 수 있는 티바(Tea Bar)를 통해 고객에게 오설록 티하우스의 미래형 매장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핸드 브루잉, 질소 충전 등 차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와 전문적인 제조기법이 담긴 메뉴<sup>233)</sup> 등을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다.

한국차문화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차문화의 대중화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안과 밖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북한의 차 소비

북한의 차문화 공간과 음용하는 차의 종류에 관하여 살펴보면 부유층들 속에서 차별화를 위해 차문화가 발달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손님에게 차를 꺼내 놓고 이 차가 얼마나 괜찮은 차인지 유래 정도는 물어줘야 교양 있는 부유층이라 인정받는 분위기라 한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 북한 장마당엔 수십 가지의 차가 팔리고 있고 평양 시내에 찻집도 생겨나고 있다. 중국의 유명 차는 물론이고 강령녹차 같은 북한산 차도 인기가 있다.<sup>234)</sup>

---

233) 한국일보 2018.01.04

234) 2015.02.26. <http://www.donga.com/>

중국의 환추스바오는 평양 특파원을 인용하여 평양의 은정차집, 은령차집, 고려호텔차집은 평양시민이 선호하는 차집으로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은정차집은 현대적인 시설과 인테리어로 각광받고 있으며 2012년 김정은위원장 방문한 바 있으며, 평양의 은정차집<sup>235)</sup>은 다음 <그림4-6>과 같다.



<그림4-6> 평양창전거리 은정차집(좌), 그 차집내부에서 차를 즐기는 사람들(우)

북한에서는 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콘텐츠의 다각화 다양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녹차를 활용하여 녹차 튀김, 녹차과자,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사탕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림4-7>과 같이 녹차냉면<sup>236)</sup>, 기념우표<sup>237)</sup>를 발행하기도 하고 무용 공연<sup>238)</sup>을 하였다.

235) 2015.07.26. CBS노컷뉴스[사진-조선신보]

236) CBS노컷뉴스 2015.07.17.: '北 평양 시내 유명 식당에 '녹차냉면' 등장... 녹차 효능은?'

237) 통일뉴스 2018.03.29.: <북 단신> 차 역사·문화 소개 우표 발행 등, '조선의 차 문화'를 소개한 우표(소형전지 1종)를 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차 잎모양으로 만들어진 소형전지는 삼국시대부터 차나무를 재배한 것을 기록한 '삼국사기'와 강령 은정차 재배원을 배경으로 은정차(강령 녹차와 홍차)와 개성고려인삼차를 소개했다.

통신은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어려있는 조선의 차 문화는 노동당 시대에 더욱 꽃피어나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8) 로동신문 기사에 따르면 2013년 제3차, 2015년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장에서 무용 《은정차잎 따는 처녀들》을 공연했다고 하였다.



<그림4-7> 평양의 대형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녹차냉면(좌)과 조선의 차문화우표(우)

차문화 공간으로서 전통차 만을 전문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필요성의 인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호텔이나 차집, 또는 매대에서 차를 즐기는 모습이며, 은정차는 강령녹차와 강령홍차, 고성녹차와 고성홍차, 우롱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의 커피 문화는 외교관들이나 재일동포와 교류하는 당 간부 및 일부 극소수 부유층만 향유할 수 있는 특권층의 문화로서 외화상점에서만 캔커피를 살 수 있었다.<sup>239)</sup> 일반주민들에게는 ‘자본주의적 퇴폐문화’라고 북한의 일반 주민까지 음용하게 된 것은 개성공단에서 기호품 중 믹스커피를 제공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제공받은 다양한 기호품과 부식물들을 장마당에 내다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평양 등에 외국인 방문이 늘어나면서 커피전문점이 생겨나고 해외체류 노동자들이 커피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처음에는 한국산 믹스 커피를 마시다가 개성공단 폐쇄이후 북한이 직접 커피믹스를 생산하고 있다.<sup>240)</sup>

북한에서의 ‘한류’는 초기에는 대중가요와 드라마 등 남한 대중문화의 수용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미용이나 말투 등 일상의 생활문화로까지 확산되는 양상도 나타났으며,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기호식품으로 커피믹스가 거래되었

239) 2015.02.26., <http://www.donga.com/>

240) 정은이(2017). 북한주민이 최고로 꼽는 커피믹스? 통일한국. 2107.2, 42-43.

다.<sup>241)</sup>

기호품 등은 필요취향으로부터의 일정한 거리가 생길 때 향유할 수 있는 소비재이다. 북한에서의 커피음료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였다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커피가 일상화되자 일정한 수준의 부를 누리게 된 북한 주민들은 커피를 마시는 공간과 커피의 질로써 구별짓기를 하거나 일반 북한주민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는 커피믹스처럼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인스턴트이지만 부자가 되었거나 상류층의 사람들은 다양한 맛의 커피를 즐기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커피를 마시는 공간도 호텔의 커피숍이나 커피전문점, 또는 길거리 매대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커피에 대한 대중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평양의 카페 창업 강의에 많은 사람이 몰려 들었다고 한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이 1일 북한 정권에 자본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커피 바리스타 닐스 바이젠제씨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바이젠제씨는 북한의 관리자 교육기관인 ‘조선교류(조선익스체인지)’에서 800여 명의 북한 공산당 간부,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자본주의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상하이(上海)에서 커피 사업을 해 온 바이젠제씨는 “처음에는 회사 설립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만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정작 북한 사람들은 강연에서 ‘장사에 성공하려면 레스토랑 벽을 무슨 색으로 칠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 시내에 밝은 색을 벽면에 칠한 카페들이 많아졌다”며 “김정은이 커피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영향도 크다”고 했다.<sup>242)</sup>

이런 상황에서 차와 커피라는 대화 매개체는 남북 공감의 문화코드가 되어 새로운 문화정서로 형성될 수 있다.

---

241) 박영정(2011). 북한에 부는 ‘한류열풍’의 진단과 전망. JPI, 2011(3), 5.

242) 2015.04.03 <http://www.donga.com/>

### 3. FGI를 통해 본 남북차문화교류의 전망

#### 1) 차문화교류와 민족문화의 복원

본 연구에서 면접대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정서적 공감을 위한 차문화교류와 민족문화의 복원을 도출하기 위해 차문화교류인식과 차문화교류전망에 관한 항목을 정하고 남북 공동의 생활문화유산, 차에 관한 인식, 차문화교류의 출발점, 한국차문화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의 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차를 마시는가’ 또는 ‘어떤 차를 마셔보았는가’, ‘언제 마시는가’의 질문을 하였다. 면접대상자 모두 차를 마셔보았다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어떤 차를 마시는지, 또는 어떤 차를 마셨는지, 언제 마시는지의 질문에 관한 대답을 통해 차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차만을 마시는 경우는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용차와 커피까지 차의 범주에 포함하였고(면접대상자1,2,3,4,5,7,8,9,10), 면접대상자6은 커피는 차가 아니라고 하였다. 차를 tea로 해석하면서 커피는 커피라고 하였다.

남한의 면접대상자<sup>243)</sup>들은 녹차와 발효차, 허브차와 커피를 주로 이야기하였고 북한의 면접대상자<sup>244)</sup>들은 오미자차, 구기자차, 만병초차, 누룽지차, 커피

243) 남한면접대상자

면접대상자	성별	나이	결혼	직업
1	여	63	유	차교육, 대학원강사
2	여	56	유	차교육, 기업인
3	여	52	-	대학 및 대학원강사
4	여	58	유	대학교강사
5	여	61	-	차단체 이사장

등 더 광범위하고 생활 속에서 마시는 음료들을 차라고 여기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차가 아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커피숍 등에서 오미자차 생강차 등을 차로 팔고 있어서 반가웠다고 하였다.

언제 차를 마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한의 면접대상자들은 혼자 생각할 때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시거나 또는 누군가를 만날 때 차를 마신다고 대답하였으며, 북한의 면접대상자들은 차를 약으로 마신다고 하면서 겨울에 많이 마시는데 춥기도 하고 감기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 마시고, 아플 때 마신다고 대답하였다.

아침에는 주로 오롱차나 발효차 마시고 점심에는 커피도 마시기도 해요. 허브차도 마시고 국화차도 마치기도 해요. 차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매한가지로 분류하는 의미의 녹차다 보이차다 하는 것이고, 형태도 역사적으로 변해왔는데 가루차는 전통이 아니고 잎차만 전통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냥 차 한 잔 여유 있게 마시는게 차문화이지 생각합니다(면접대상자2).

북한에서는 차를 약으로 마셔요. 민간요법으로 산에 가서 따와서 마당에 말렸다가 우려먹기도 하고 끓여 먹어요. 솔잎차는 감기예방에 좋아서 아이들에게도 한 잔씩 타줬어요. 피로회복과 감기에 마셔요. 집에서는 건강식으로 사용해요.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마시면 덩달아 함께 마시고 그랬어요(면접대상자10).

차가 어떻게 커피와 같죠? 초대를 받아 가면 녹차를 대접해요. 평양에서는 접대용으로 차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녹차를 마실 때 뚜껑 있는 큰 컵에 타주면 잎을 불어가면서 마셨어요. 북한의 차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중국차라고 생

244) 북한면접대상자

면접 대상자	성 별	나 이	결 혼	탈북 년도	입국 년도	북한 거주지	직업	
							북한	남한
6	남	21	-	2016	2016	평양	고등학생	대학생
7	여	37	-	2006	2015	함경북도	복싱선수	주부
8	여	40	유	2006	2006	함경북도	철도원	통일교육강사
9	여	50	유	2013	2013	양강도	중등교사	대학원생
10	여	60	유	2006	2006	황해도	유치원교사	사업

각 했습니다. 브레이크타임처럼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 녹차를 내놓고 마시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결명자차를 매일 마셨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어머니께서 매일 결명자를 끓여 주었습니다. 생강차와 마늘즙도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커피는 집중이 필요할 때 시험 볼 때 마셔요. 커피는 믹스커피나 우유를 넣어서 마시기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커피로 마시고 매대에서 음료 캔으로 팔아요. 아몬드차도 마셔봤어요. 장마당 시장에 가면 남한 물건 다 있어요 (면접대상자6).

차문화를 민족문화유산, 전통문화유산, 생활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지 파악하고 민족문화의 복원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공동의 생활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남한의 면접대상자들은 고구려나 고려시대의 차문화역사에 대한 학술대회, 유물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차문화의 저변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면접대상자1,2,3,4,5). 남북한 공통으로 가장 유사한 것은 전통 민속놀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전통놀이는 통일되기 전이라도 함께 나누고 놀 수 있는 분야이다. 북한도 차문화역사에 대해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공동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문화의 과제라고 인식을 같이하였다.

차문화라고 하면 차뿐만 아니라 차와 관련된 문화가 있잖아요. 잘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고구려 고려시대 유물들을 보고 접할 수 있게 되면 화려한 문화와 제품 개발이나 스토리텔링 등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문화가 원래 우리 주변에서 공통적으로 있던 거잖아요. 그걸 잃어버리고 이질적인 것만 너무 많이 부각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음식문화도 아주 접해보면 생소하지 않은 문화거든요(면접대상자4).

교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생활문화라 할 수 있지만, 단절되었던 시간 동안 어떤 차이가 생겨났는지와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적인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차문화역사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어떻게 계승시켜 왔는지 확인해보고, 고구려의 벽화나 백산차, 단차 등의 차유물 등에 대하여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의 뿌리가 어떠한지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면접대상자1).

남북한 공동의 생활문화라고 느낀 것은 전통놀이 같은 것, 율놀이, 공기놀이, 손뼉 치기, 세세세, 줄넘기, 발목개기, 수건돌리기 등, 줄넘기 할 때 부르는 노래도 비슷해요. 가사만 다르고 느낌이 비슷해요. 전통놀이는 우리가 오천년 함께한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놀이를 보면 어느 순간에 통일이 되어도 같이 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도 좋아하는 것 보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김치, 겨울양식이라고 하는데 담아서 땅에 묻었어요. 차문화도 서로 알게 되면 그럴 거 같아요. 비슷하다고(면접대상자8).

남북 차문화교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남북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민족문화유산임을 인식하고 민족문화의 복원에 관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남한의 차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차문화의 시원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들을 해오면서 실천하고 있었다. 고구려 고려시대의 차문화역사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대상자와 경제적인 형편의 차이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차를 많이 자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자연스럽게 시작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접대상자2, 3, 10). 평양냉면 처럼 상징적인 이벤트를 기획하여 남한의 차문화를 보여주고 차와 차 관련 선물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면접대상자5).

한국의 문화적인 정신, 차의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더 나올 거 같은데 북한과 차문화교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국의 차가 뭐다, 정신이 뭐다 하는 것을 이끌어내려면 불교문화와 더불어 유래된 차문화역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적인 교류라 하면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면접대상자1).

굴 보내주는 것처럼 북한의 차(茶)산업 독려하는 차원에서 차를 보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때 남한의 차를 대접하고 차와 차 도구 세트를 선물로 주거나 대동 강변, 평양 한복관, 금강산 등지에서 남한의 차인들이 들차회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면접대상자5).

한국차문화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은 당장 차문화교류를 통해 한국차문화가 발전하리라는 기대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견해(면접대상자1, 2)와 차문화를 적극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습씨와 재능, 관심, 문화적 욕구 등을 차문화에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한국차문화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견해로 나누어졌다(면접대상자2,3,4,10).

남한이나 북한이나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것 이외에 관심이 없지 않아요. 북한도 예전에는 밥 먹고 사는 게 기본 욕구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장마당으로 돌아선 이후로 지금은 생존의 욕구 먹는 욕구는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도 다른 욕구를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문화를 따라 학습하는 것이 강합니다. 이럴 때 남한의 차문화가 전달되면 북한에 그대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발전하는 거죠(면접대상자8).

의식주가 한자리에 다 있는 것은 차문화밖에 없다. 개개인이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차문화이다. 서로 오고 가고, 차관련 수공예품, 도자기 등 차 관련된 차문화산업을 교류하면서 서로 달라진 문화도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라고 펼칠 수 있는 문화는 차문화가 적합합니다(면접대상자5).

## 2) 차문화교류와 생활문화

차문화교류를 통해 생활문화를 즐기고 나누면서 삶의 질 제고와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정서적 공감의 형성을 도출하고자 차문화교류의 기대와 효과 항목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차문화교류가 생활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남북 주민이 함께 차를 마시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남북 주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디에서 차를 마시며 누구와 마시는지 등으로 면담을 이어갔다.

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차를 마시게 되면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고

(면접대상자6, 8, 9, 10), 평양냉면처럼 평양에서 만든 북한 차집을 한국에 열고 한국의 차문화를 북한 장마당에 보급하면 잘 될 것 같고 차를 마시면 대화가 되고, 서로 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공감과 소통이 잘된다는 견해였다(면접대상자6,7,8,9,10). 그러나 차문화가 ‘차 한 잔 합시다’라는 것처럼 형식적인 영향으로 확장은 가능하지만 생활문화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소극적 의견도 덧붙였다(면접대상자8,9,10).

서로 더 잘 알 수 있겠죠.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데 좋은 게 되어서요. 처음에는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나는 걸 생각하는 게 이상했는데 스스럼없는 일이 되었고, 서로 만나고 친해지려면 차 한 잔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문화가 어색하고 황당했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커피숍에 갔을 때 무료제공 하는 와이파이를 초코파이, 찰떡파이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이런 것처럼 실제 생활하면서 익힐 수 있는 생활 체험교육, 이런 거 서로 정서가 달라진 부분을 접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북 주민이 서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흥사단에서 ‘우리 마을에 통일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남북 주민 공동 문화체험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참 좋았어요. 함께 차를 마시는 기회가 주어지면 또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많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면접대상자8).

남북 주민이 함께 차를 마시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남북 주민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차를 마시는 것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소통과 친밀함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았다.

### 3) 차문화교류와 협력사업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의 개발의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차문화교류·협력 사업으로의 전망과 차문화교류의 정책에 관한 항목을 설정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할 때 어떤 분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 지에 대한 견해의 문항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북한에서는 정서가 서양에 대해서는 밀어내고 우리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문화로 차를 내세우고, 사람을 접대할 때 차를 내면 고급문화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면접대상자5,6,8,10). 차문화와 관련한 분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사업성과 동시에 새로운 차문화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유형·무형, 영리·비영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문화원형이 될 수 있으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면접대상자5,10).

여성을 대상으로 교류 가능한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면접대상자5, 10), 정부는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되 간섭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여 교류의 주체가 민간인 주도로 되어야 함을 공유했다(면접대상자1,2,3,4,5,6,7,8,9,10).

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상품, 남북 공동 브랜드화 된 차의 개발도 필요하다(면접대상자5, 8, 10).

남한의 남아도는 차를 북한에 건강을 위해 인도적으로 지원해주면 서로 오고가면서 사업적인 것도 모색할 수 있다는 견해(면접대상자10)와 더불어 북한차를 수입해서 팔자라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접대상자3,4,5,6,7,8,9,10).

북한에는 만병초<sup>245)</sup>가 있는데 엄청 효과가 좋아 인기가 많습니다. 백두산에서 나는 차인데 아마 남한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좋을 거 같고요, 황해도의 감잎차는 남한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엄청나게 맛있는데, 공기가 남한보다 좋고 약도 치지 않아서 건강에 더 이로운 면이 있어서 몸에 좋은 차로 상품을 만들면 좋을 거 같아요. 북한 강령녹차를 수입해서 남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남한의 차문화 수준에 대해 북한에 알리는 것도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만들면 교류가 활발해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비즈니스로 하고 싶어요(면접대상자10).

#### 4. 소결

면접조사를 통해 인터뷰한 탈북민들은 모두 15명이었는데 남한에 입국해서 대학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많은 탈북민들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였다. 북한에 있을 때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공부가 필수라고 느낀다고 하였다. 이들을 처음 만나서 차를 마셔봤냐고 했더니 마셔봤다고 하는데 4명은 대용차와 커피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은 ‘다림물’, 또는 ‘우림물’, ‘단물’이라고 하면서 마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 차였다는 것이다. 대용차를 말하는 면접대상자들은 함경도와 황해도 출신이었으며, 양강도 출신의 면접대상자들은 총 5명이었는데, 모두 차를 마셔본 경험이 없었으며, 중국과의 보따리 무역을 할 때 차마시는 것을 보면서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였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먹거리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양강도 해산지역 출신의 면접대상자들의 공통점은 중국과 접촉이나 고위직 집안이라는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차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 드라마를 통해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보았는데 그게 뭘 필요가 있는가하고 생각한

---

245) 만병초는 북한의 차문화력사에도 소개되어 있으며, 남한에서는 백산차로 알려져 있다.

다고 하였다. 면접대상자10은 북한에서 유치원교사로 있었는데 녹차 같은 것은 마셔보진 않았지만 높은 사람들은 마신다는 소리를 들었고, 감나무잎을 튀거나 둥글레나 솔잎도 차로 만들어 마시고 아이들에게도 감기에방으로 마시게 하였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옹으로 된 차를 마시고, 녹차를 ‘차’라고 구별하여 사용한 사람은 평양출신 한명이었다.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면접대상자들이 차를 마시게 되면 대화를 나누고, 공감과 소통이 잘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차문화교류를 통해 생활문화로서의 정서적 공감 형성이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차에 관한 인식은 대용차까지 두루 포함하는 인식으로 한 자리에서 함께 무언가를 마시고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교류는 남과 북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교류하는데도 차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작은 소통이 큰 소통과 공감이 될 수 있으니 정기적인 차문화교류의 기회와 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민족문화로서의 차문화교류에 관하여는 역사적 맥락에서 서로 공동의 인식을 할 수 있으므로 남북한이 공동 학술연구를 하고, 그동안 남한의 차인들이 다가설 수 없었던 차문화유적지나 유물에 대한 접근이 고려된다면 좀 더 한국의 차문화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북 차문화교류·협력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 프로그램의 기획과 ‘북한차 전문점’ 같은 찻집을 상징적 장소에서 운영하며, 새로운 상품의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문화교류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한 분야만으로는 확산력과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문화와 융복합함으로써 남북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차문화산업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1) 남북 문화유산교류와 차문화교류

기존의 남북 문화유산교류는 주로 전시회, 유적 관련 공동 조사 및 연구, 학술행사, 복원공사 등의 방식<sup>246)</sup>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는 북한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교류 프로그램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남북 간 차문화교류와 융합하여 향후 문화유산의 유물·유적에 대한 공동의 학술연구를 한반도 전지역으로 확장시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지역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교류사업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2) 남북 문화관광사업과 차문화교류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문화관광사업은 남북 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로 협력 사업을 전망할 수 있다. 현재는 DMZ 투어와 금강산관광 정도이지만 원산·갈마지구를 중심으로 한 휴양관광, 남한과 북한의 차발을 아우르는 차문화관광, 차문화유물·유적 답사기행, 기차를 타고 중국과 유럽으로 이어지는 세계차문화관광루트의 개발이 가능하다.

### (3) 남북교역과 차문화교류

2018년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부처님오신 날’에 부처님 앞에 현

---

246) 신현욱, 박영정. 앞의 글, 138.: 문화재에 관한 협력사업으로 금강산 신계사·개성 영통사 등 사찰 복원, 개성 만월대·고려 안학궁터 발굴 등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일본에서 2005년 남한을 통해 2006년 함경도 길주에 복원된 북관대첩비에 대한 문화재 반환·협력,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남북한의 협력, 북한 국보의 남한 전시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獻茶)<sup>247)</sup>하면서 사용한 차는 연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일부에 반입허가 신청을 내서 들여온 북한의 은정차인 ‘강령록차’였다.

남한과 북한이 동일한 종류의 차를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성의 특산물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인삼차<sup>248)</sup>와 같이 특화되어 있는 차생산품도 있다. 남북 간 교역을 통한 차생산품교류는 문화육구에 대한 충족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

---

247)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2018.10.13.

248) 2018 조선상품, 10-21: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조선장수무역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인삼차의 종류는 개성고려인삼차 인삼오미자차, 인삼구기자차, 홍삼생강차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VI.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북한 사람들도 차를 마신다고 하면 놀라며, 거짓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고정되어 있으며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2000년대 이후로 한류를 통해 남한의 실정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반면에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점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이론적 고찰과 인터뷰를 토대로 남북 차문화교류의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다.

#### 1) 남북 차문화역사에 기초한 민족문화복원 논의

차문화역사의 공유는 민족문화의 복원에 관하여 남북 공동의 노력과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민족문화의 복원의 노력과 연구과정에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전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에 관한 학술공동연구에 관한 논의가 통일문화콘텐츠 연구자, 차학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 분야와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학제적 연구와 남북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북한 차문화유적 및 유물의 공동 발굴과 고구려,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차문화역사에 관한 공동 연구와 학술대회는 남북한 차문화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 차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은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의 고취뿐만 아니라 한국차문화의 역사를 한층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은 차문화교류를 통해 민족문화 복원을 위한 전통문화 교육, 예절교육, 인성교육, 차인문 교양교육, 차인문 고전교육, 차관련 연계 학문 융합교육 등을 통하여 정서적 공감의 장에 합류하게 되어 민족문화의 복원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 2) 남북 간의 정서적 공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시간의 감소와 다양한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여가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상의 특별한 체험이나 여행은 중요한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의 차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 (1) 차생산지 투어 및 차문화체험 프로그램.

여가활동의 하나로 문화관광은 주제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 차문화여행은 여전히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여행주제이기도 하다. 남북 차문화교류가 적극적으로 수용된다면 차문화관광의 루트가 대륙으로 이어져서 차문화여행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과 북에 걸쳐 있는 차생산지와 차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여행하는 차인문학기행은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이 교류되는 공간으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다. 차문화 역사와 차문화 유적지, 유물 등은 상징자본, 문화자본이 교류되는 공간으로서 문화정서의 공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차문화 길(tea culture road)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철도를 이용한 관광은 차문화관광을 위해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

황해남도 강령의 ‘은정차재배원’과 연계한 개성과 백령도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화콘텐츠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교류를 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한 것보다 북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의 수가 훨씬 적다. 교류가 쌍방향임을 견주어보면 앞으로 북한주민을 남한의 공간으로 초청하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환으로 남한지역의 차생산지와 차 관련 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초청하는 방식의 교류는 빠른 시기 내에도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 (2) 남북차문화 공연, 축제 및 예술행사 기획

북한에서는 2013년 제3차, 2015년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장에서 무용 《은정차잎 따는 처녀들》<sup>249)</sup> 공연한 바 있다. 남한에서는 다양한 ‘행다’나

---

249) 《은정차잎 따는 처녀들》 공연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 로동신문2013년4월15일: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서 ‘무용 《은정차잎 따는 처녀들》 등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열의로 가슴을 불태웠다.’; 로동신문2015년 4월18일: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장에서 ‘무용 《은정차잎 따는 처녀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예술단에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우수한 차문화를 안겨주시려고 오랜 세월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어머니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 가고 있는 강령은정차재배원 종업원들의 로동생활을 반영한 이 무용을 더욱 훌륭히 형상하여 무대에 올리기로 토론하였다.

‘들차회’ 등 다양한 차 관련 예술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차공연을 공동 기획하여 무대에 올리는 콘텐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차다구와 관련한 전시회 및 차다구 공모전<sup>250)</sup>을 공동기획하여 남북 전역에 걸쳐 실행해 볼 수 있는 콘텐츠이다.

북한의 문화정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사람들은 경연대회를 통해 겨루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정서에 근거하여 차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경연대회<sup>251)</sup>를 개최하는 것도 남북이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는 바다.

### (3) 정부의 문화정책의 실천으로서 차생활문화 강좌의 개설

남북의 문화교류를 한다고 할 때 차라는 매개는 게임에서의 내기물처럼 하나의 자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차는 경제자본이자 사회자본이며, 문화자본도 되고, 상징자본도 될 수 있으므로 교류라는 공감의 장에서 교류주체와 상대방 행위자들을 통해 다양한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교류의 공감장 안에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들 즉 적대와 혐오, 불안과 공포감이 완화되고 소통할 수 있는 치유와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차문화

---

하지만 거의 모두가 신인배우들이므로 하여 도무지 전진이 없었다. 이때 일꾼들은 그들을 백여리 떨어진 현지에로 떠밀어 보냈다. 재배원의 종업원들이 실지 차잎을 어떻게 따며 로동생활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기도 하고 자신들이 직접 일도 하면서 배우들은 하나하나의 새로운 무용동작들을 찾아냈고 작곡가는 그에 맞는 고유한 선율을 작상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250) 문경차사발축제와 같은 차와 관련한 차공예품의 공모전을 남북이 공동기획하여 개최할 수 있다.

251) 남한에서는 청소년 대상, 대학생 대상, 일반인 대상의 다양한 다례경연대회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하동군, 보성군, (사)규방다례보존회가 후원, (사)한국차문화협회 주관 ‘전국 청소년 차 예절 경연대회(2019년 제20회)’; 규방다례 보존회 등 주최 ‘전국 인설차문화전-차예절 경연대회(2016년 제17회)’;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와 전통생활예절보존회 주최 ‘제14회 전북 청소년 차 예절 경연대회(2017년 제14회)’; 김포다도박물관과 예명원주최의 ‘예절과 다도 경연대회(2019년 제23회)’; ‘시흥시 청소년 및 일반인 예절·다도경연대회(2018년 제11회)’;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다(茶)사랑 동아리 다례경연대회(2014년 제9회)’; 하동야생 차문화축제 ‘대한민국 다례경연대회(2019년 제23회)’; 성신여대주최 ‘성신예절 다도경연대회(2019년 제6회)’ 등이 있다.

교류를 위한 카운터파트너의 조직화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물적 인적 지원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sup>252)</sup>이 교류되는 공간이 펼쳐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정서의 교감과 공감의 형성이 형성된다.

면접에서 북한의 면접대상자들은 이러한 차문화교류를 통해 생활문화정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면접대상자8,9,10)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 측면의 생활 수준격차가 바로 문화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문화를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정책(면접대상자 4)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문화정책으로서 차문화 강좌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해당 부서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구안해 볼 수 있다. 차문화 강좌는 상담, 요가, 명상, 차요리, 바느질, 미술, 인문고전, 세계사, 전통문화, 예절인성교육 등과 함께 융복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 강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 3) 남북 차문화산업 활성화

#### (1) 차 재배와 제다의 남북 공동 연구 및 차상품 공동개발

차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학적 재배와 생산 기술의 상호협력은 서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차를 생산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적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듭된 육종개발을 통해 영하 19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였으며, 차의 생육환경에서 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 체감온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차나무도 바람의 세기와 정도에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52)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적응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하나원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거나 빈약하다.

북한의 자생적 기술연구와 남한의 농업과학기술력으로 차 품종 개발 및 차 재배와 생산기술의 공동 연구를 통해 차 상품을 공동 개발 할 수 있다. 특히 차상품의 공동 개발이 가능한 것은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갔던 커피믹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볼 때 차상품의 공동개발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중국이 만든 커피믹스가 더 저렴하고 달지만 개성공단과 한류의 영향으로 북한에서는 남한의 커피믹스를 최고로 치고 있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한류에 대한 금단현상도<sup>253)</sup>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남북은 비슷한 생활문화정서의 공감이가능하다고 본다.

남북한은 대용차와 커피에 관한 관심이 크며, 일정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과 협력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은 인삼차를 비롯한 장미꽃차 등은 재배와 생산공장을 두고 상품화하고 있으며, 남한은 대단위 생산공장에서의 상품화뿐만 아니라 가문을 중심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소규모 단위의 수제고급차로 상품화하고 있다. 남북한이 각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의 교류를 통하여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 차에 곁들이는 다식과 음식의 공동 연구 개발

남북이 공동으로 전통다식 및 차에 곁들이는 음식을 개발하고 연구<sup>254)</sup>하는 것은 차문화를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서 차문화 확장을 촉진하도록 이끈다.

253) 정은이(2017). 북한주민이 최고로 꼽는 커피믹스? 통일한국2017. 42-43.

254) 남한에서의 차음식 경연대회로는 (사)규방다례보존회, (사)한국차문화협회 주최 ‘전국 차음식 경연대회’, ‘대한민국 다향축전 전국 차음식요리대회’ 등이 있으며, 북한에서도 음료경연과 차음식을 개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동신문 20150.4.12: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역사를 전하는 은정차, ‘은정차집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차있을 리용하는 룝차새우튀기, 참깨룝차 튀기와 같은 룝리들과 차에 곁들이는 음식들도 다양하게 만들어 봉사하고 있으며, 새로운 종류의 맛있는 차를 개발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리고 있다’; 로동신문 2017.2.10.: ‘제7차 광명성질 룝리기술경연 진행, ‘은정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료들의 고유한 향기와 색깔, 맛을 잘 살리기 위한 접대원들의 봉사기술을 보여주는 음료경연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하였다.

북한에도 요리경연대회와 남한의 요리관련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차와 차음식을 적용한 공동의 콘텐츠개발도 가능하다.

### (3) 차 관련 공예품 공동 제작

차문화와 공예는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 즉 차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차주전자, 찻잔, 찻잔받침, 찻상, 차포, 차건 등 여러 가지 다구(茶具)<sup>255)</sup>들이 필요하다. 다구(茶具)들에 대한 남북 공동 제작이 가능한 조건은 차문화 공동의 역사와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차문화 유물<sup>256)</sup>의 존재이다. 한국에서 청자의 시작은 중국 월주요의 기술진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은 찻잔 제작임을 발굴조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고려시대의 화려하고 정교한 청자문화는 차문화의 차제구에 대한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sup>257)</sup> 북한은 고려청자에 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보이며, 청자에 대한 연구 개발과 창작이 왕성한 것<sup>258)</sup>으로 전해지고 있다.

- 
- 255) 차도구, 차제구라고도 하는데, 차를 마시는 일과 차를 만드는 일이 분리된 때로부터 차제구라는 말 대신 다구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였다.
- 256) 경향신문2108.12.03.: 통일의 유전자를 고려에서 찾는다-고려건국 1100주년 특별전, 개성부근에서 출토된 은제주전자와 그릇받침.; MBC뉴스2018.07.25.  
<http://imnews.imbc.com/index.html>: 인천 검단시도시서 고려청자 등 유물 다수 출토, “인천 북부 검단신도시 사업 현장에서 9백 년 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청자와 자기 등이 다량으로 출토됐습니다.”; 교통뉴스2017.12.13.<http://www.cartvnews.com/경기·서울·강원·통일부>, 개성만월대 특별展,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사업 현황- 금속활자, 원통형 주전자, 용두기와 등 13,500여점의 유물 발굴; 강진일보2015.12.04., ‘만월대는 청자의 역사와 관련해서 더 없이 중요한 곳이다. 이번에도 청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만월대 부근 어디를 파도 청자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월대는 고려청자의 성지였다.’고 전한다.
- 257) 김완주(2008). 차문화가 동아시아의 공예문화관 및 조형성에 끼친 영향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4, 155: 초기 청자 가마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용인 서리 가마터의 경우 자기를 굽다 실패하여 버린 폐기장의 크기가 직경 50-80미터, 높이 3-5미터의 규모로 마치 작은 동산을 방불 한다. 이곳에서 제작된 청자 가운데 50퍼센트 이상이 찻잔이란 사실은 찻잔을 제작하기 위한 고려인들의 노력이 얼마나 지대하였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 258) 민플러스 2018.07.04. <http://www.minplus.or.kr/> ‘창립60주년 미술창작의 산실, 만수대창작사’, 고려청자상감기법을 완성해 ‘고려청자의 대가’로 유명한 우치선은 “은근하면서도 깊이 있고 아름다운 색조와 세련된 형태, 독특한 장식기법 등으로 국보적 작가”라고 평가받고

청자와 백자, 분청자기로 만들어지는 도자기 공예품에 관한 남북 교류협력은 더 많은 교류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며,<sup>259)</sup> 중국 의존적인 차생활에 필요한 제반 도구들에 관하여 남한과 북한의 교류뿐만 아니라 공동의 협력에 의한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남북한 ‘차전문점’의 개설이다.

북한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차를 마실 수 있는 은정차집<sup>260)</sup>과 커피숍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북이 상호 교류·협력하여 남한과 북한에 각각 상대방의 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공동 투자 운영 방식이나 남북한이 각각 지원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차전문점의 개설은 남북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 내에 식당과 커피숍이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대상의 교류

- 
- 있다. 도자기창작단에는 그의 아들인 우철룡과 외동딸인 우복단이 대를 이어 활동하고 있다. 2014년 상해국제도자기예술박람회에서 우복단은 ‘잉어무늬투각장식꽃병’으로 최우수창작상을, 우철룡은 ‘포도무늬호로주전자’로 백옥관동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통일뉴스 2015.08.25. ‘북 만수대창작사에서 빛을 내는 고려청자개발’; <https://www.youtube.com/> 2017.11.28: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할 수 있는 나노분무화학 도금시약들을 우리 식으로 완성하고 제조공정을 새로 확립하였다.
- 259) 연합뉴스2019.06.24. ‘양구군, 북한·중국과 도자기 문화 국제 교류전 추진’: 양구군은 북한의 중국 베이징 만수대창작사 미술관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 도자 문화교류를 통한 통일 백토, 백자 제작과 도자교류전시회, 남북 도자 역사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 미술 분야 최고의 집단창작단체로 산하에는 조선화창작단, 공예창작단, 산업미술창작단, 산업미술창작단, 조각미술창작단 등 10여 개의 창작단이 있다.
- 260) 로동신문 2015.4.12: ‘농업성의 적극적인 지도방조 밑에 여러 가지 차원료를 확보하여 연풍과학자휴양소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봉사단위들에 보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차문화의 보급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로동신문2017.10.07: 사과맛 품평회 진행, ‘올해에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생산한 사과들에 대한 맛품평회가 6일 은정차집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기사들을 보면 차를 마시는 공간 외의 다양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라서 향후 차전문점(tea-cafe)과 같은 공간이 북한에 개점된다면 서양의 살롱처럼 차를 마시는 공간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2. 결론

본 연구는 남북문화교류에 있어서 차문화교류를 통한 민족공동의 문화유산으로 민족문화의 복원과 생활문화정서적 공감의 형성, 그리고 교류·협력사업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았다.

북한 지역 사회에서의 차문화에 대한 현상과 그들의 정서와 차문화교류의 가능한 조건들을 살펴본 결과 북한 사회에서도 차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활문화로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헌고찰과 면접조사를 통하여 남북한에서는 차문화 개념과 향유의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에 대한 정의를 보면 좁은 의미의 차로써 잎차와 넓은 의미의 차로써 대용차를 포함하는 기의의 확장이 일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커피에도 차<sup>261)</sup>를 붙여 커피차라고 표기하고 있다. 차의 생산은 녹차로부터 시작되어 홍차를 생산하다가 우롱차(화차)<sup>262)</sup>도 생산하게 되는 과정과 차를 마시는 이유와 필요성이 미용과 건강을 위한 것으로 차의 성분과 효능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유사한 측면이다. 차(茶)가 건강을 보조하는 약의 대체음료 기능을 하는 것으로 차를 대하는 의식을 살펴보면 은 건강과 미용<sup>263)</sup>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삼차는 개성을 중심으로 다양

261) 리명철, 정윤호(2013). 천연건강음식. 평양: 인민보건사, 46.

262) 리기순(2010). 건강음료.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121, 우롱차를 화차로도 표기하고 있다.

263) 노컷뉴스 2015.09.29: 北, '장미꽃차' 인기... "건강과 미용에 효과", 평양시민들 사이에 '장미

한 형태로 여러 회사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sup>264)</sup> 이러한 인삼차 등의 생산 현황을 볼 때 북한의 차문화는 간편성과 편리성, 합리성, 기능성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문화 역사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함께 해왔던 민족으로서의 공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공동의 역사는 헤어져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만나서 한 민족이었음을 알게 하는 중요한 민족정서로서 문화정서이다. 이는 차문화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국가의 정체성에 고려를 바탕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고려시기 이전의 역사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한다. 우리 차문화 역사 중에서 가장 활발한 차문화의 시기였다고 하는데 남한의 차 연구자들의 차문화사 연구는 고려시기 차문화에 대한 연구보다는 조선시기 차문화에 집중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 있는 차 관련 유물·유적 등의 자료는 우리 차문화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개성지역에서의 유물·유적 발굴 사업에 차 연구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데 고려시대 차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다면 그러한 사업에도 참여하여 차문화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20세기까지는 생활 필요적인 상품이 가치를 창출하고 형성했지만 향후 21세기 이후 인류사회는 그간에 누적된 과학정보통신과 기술을 바탕으로 ‘문화’가

---

꽃차’가 건강과 미용에 좋은 차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9일 보도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류경장미가공공장에서 생산한 ‘장미꽃차’는 독특한 향기와 부드러우면서도 순한 맛으로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활발히 해준다”고 소개했다. 또 “얼굴의 검은 반점과 주름을 없애고 피부탄성을 높여준다는 ‘장미꽃차’는 특히 여성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조선신보는 “‘장미꽃차’의 특효는 어혈과 입냄새를 없애고 불면증도 해소시켜준다”며 “80℃의 더운물 한컵에 2~3송이의 장미꽃봉오리를 넣고 기호에 따라 설탕이나 꿀을 두어 마시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미꽃차’는 올해 5월에 있는 제 1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서 첫 선을 보인데 이어 지난 21일 열린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다시 출품됐다. 류경장미가공공장은 평양 교외에 100여ha의 장미꽃밭을 꾸리고 장미꽃을 따들이고 있으며, 그것을 가공하는 시설도 일떠서(준공해) 올해 봄부터 제품생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264) 김금성, 최돌진, 장향옥, 전선일(2018). 조선상품. 평양: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2018.;외국 문출판산 인쇄공장: 인삼차뿐만 아니라 장미꽃차, 홍차, 커피 등 다양한 차의 상품화를 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필요적 소비의 차원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문화 창조가 일어날 수 없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아직 차문화가 활성화되고 융성하다고 할 수 없지만 오히려 남북이 차문화에 있어서는 한국의 차문화를 서로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차문화역사에 대한 연구 시 차문화가 융성했던 고려시대의 차문화에 대한 공동의 연구는 서로 공감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차문화콘텐츠의 원형으로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평양냉면 한 그릇으로 적대감과 혐오의 감정이 완화되어 호기심과 관심으로 표출되었던 것은 우리의 문화DNA에 있는 정서가 교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양냉면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념과 국경을 초월한다. 공연예술이나 음악 등도 자유롭게 초월하여 넘나들지만 직접적이지 않으므로 자칫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기 쉬우나 물 한잔, 차 한 잔을 나누는 일은 직접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공감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다져 나갈 수 있는 실천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는 먹고 살만할 때, 인간의 삶이 필요적 거리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두어졌을 때 여유로운 문화정서로서 즐길 수 있으므로 문화의 척도가 된다. 분주한 일상에서도 여유로운 정서를 가질 수 있는 차 한 잔의 시간은 마음의 여유를 준다. 차를 매개로 차와 자신과의 관계, 차와 타인과의 관계, 차와 사회와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펼쳐나갈 수 있다.

남북문화교류에 있어서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 전체가 교류의 주체<sup>265)</sup>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통일과 평화로운 한반도의 지향성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교류의 매개체에 대한 준비가 필요

---

265) 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와 제18조에서 교류의 주체를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과 이산가족을 상정하고 있다.

한 시점이다.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 전체는 통일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의 당사자들이다. 교류의 주체로서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로와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교류의 주체는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교류의 속성상 쌍방향의 상호작용이므로 교류의 대상도 교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교류하는 가운데 상호 수월하고 간단하게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정서가 바탕이 되었을 때 다양한 매개물을 통한 교류가 활성화 되고 확장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매개체는 부르디외가 말하는 각종 자본<sup>266</sup>)에 해당되는데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일반 국민(인민)이 남북문화교류에 있어서 소유할 수 있는 자본에는 한계와 제약이 뒤따라왔고 향후 얼마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화교류라는 장이 교류의 공감장이 되려면 정부의 정책마련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가령 접경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이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일시적 사용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공간에 해당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생활문화에 바탕을 둔 차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서로 달라진 언어와 문화가 있을 지라도 통할 수 있는 차문화를 매개로 한 정서적 공감을 찾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건을 나누는 것은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이다. 비록 차 한 잔이 먹고 사는 사활이 걸린 생존의 필요가치는 아닐 지라도 문화욕구에 대한 충족을 줄 수 있다.

일상적 삶 속에서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근거 없는 감정에 휩싸여 괴물을 낳을 뿐이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정서의 교감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문화가 인간의 일상적 삶을 둘러싼 총체적인 복합체라는 대 전제를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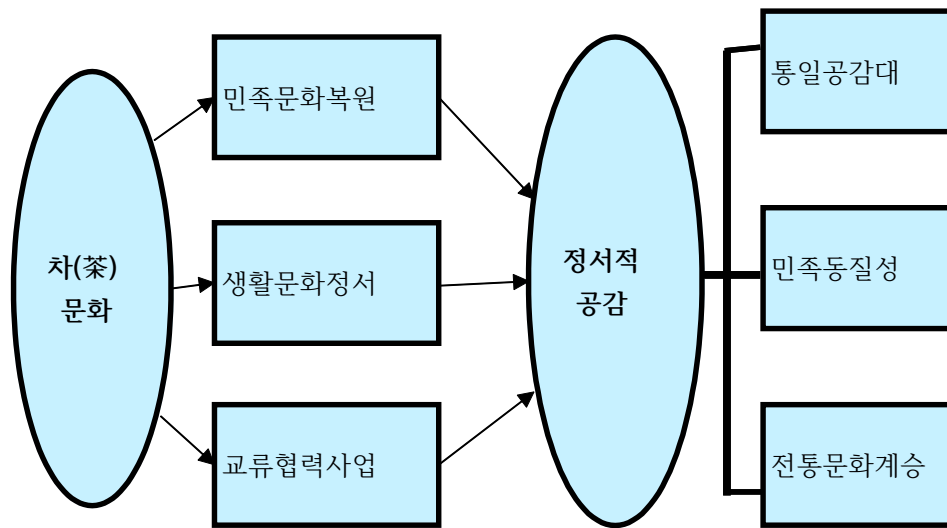
---

266)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응용하여 다양한 영역에 자본의 이름을 붙여 사용한다. 자본으로 명명하는 것은 힘과 영향력행사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고, 각 장에서의 힘과 영향력은 상대적이라고 여겨진다.

문화로서 상징되는 차문화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생활문화로서 설득력을 가진다. 차를 매개로 친밀해지고 소통하는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정서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소하고 작은 생활로 여겨지는 ‘차 한 잔의 마음’을 나누는 차문화교류를 통한 남북의 문화적 정서의 공감대를 발견하고자 했다. 통일의 시대적 과제를 담당하는 현시점의 남북 주민들 간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차문화교류의 근거를 과거 차문화를 함께 향유했던 역사와 함께 현재 향유하고 있는 차문화 속에서 정서적 유사점을 발견하고, 창조적 계승을 위한 미래지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남북 차문화교류를 통해 단절되었던 고려시대 이전 차문화역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차문화유적, 유물 등 차관련 문화의 스토리텔링도 풍부해 질 것이라 기대되며, 차문화가 각 교류 주체의 삶으로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쉬운 차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면접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남북한의 격차는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그러한 현실에서 기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고 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차문화의 역사를 새로이 써나갈 수 있는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후속 연구에서는 통일공감대와 민족동질성회복,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관하여 학제간의 융복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교류의 공간에 관한 연구와 교류의 다양한 매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단절되었던 고려시대 이전 차문화역사에 대한 연구, 차문화 유물, 유적 등 차문화연구와 실천적 통일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 구안에 대하여 생활문화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를 기대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제안을 도식화하여 다음 <그림5-1>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5-1> 남북 차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 형성 연구와 기대 효과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강무학(2000). 아리랑 : 우리정서. 우리문화. 서울 : 서문문화사.
- 강성원 외(2006). 북한문화, 들이면서 하나인 문화. 파주: 한울.
- 강원택(2011).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서울 : 나남출판사.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2017). 코리언의 정서소통과 통일문화. 서울: 한국문화사.
- 계선자 외(2009). 가족과 문화. 서울: 신정.
- 고유환 외(2013).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파주: 한울.
- 권현익, 정병호(2013). 극장국가 북한. 파주: 창비.
- 김경희(1995).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양희(2009). 가족과 생활문화. 파주: 양서원.
- 김병로, 서보혁(2016). 분단폭력. 파주: 아카넷.
- 김병로 외(2017). 북한주민의 통일의식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용학(2003).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
- 김외숙 외(2008). 가정관리학 연구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종은 외(2008). 관광지리학. 서울: 형설.
- 김진숙(2014). 다경(茶經). 서울: 국학자료원
- 농림축산부(2018). 2017 특용작물 생산실적. 서울: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비드. 호우; 이진경 옮김(2103). 공감의 힘 . 서울: 지식의 숲.
- 류건집(2009). 한국차문화 상,하. 파주 : 이담북스.
-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 옮김(1993).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을유문화사.

- 문화체육관광부(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민성길, 전우택, 윤덕용(2002).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민경환(2013). 한국인의 정서적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인은 누구인가. 과주: 21세기북스.
- 박광무(2010). 한국 문화정책론. 과주: 김영사.
- 박기봉(2016). 다정의 티 스케치. 부산: 무량수.
- 박명희 등(2003). 한국의 생활문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과주: 교문사.
- 박성희(1996).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순성 외(2010). 북한의 일상세계. 과주: 한울.
- 박영정(2005). 남북문화교류채널의 제도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박영정 외(2007). 남북문화교류 정책과제 개발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영정 외(2012).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통합의 방향과 단계.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정희(2015). 한국 차문화의 역사. 서울: 민속원.
- 박종훈(2015). 공동체와 정서: 윤리문화의 원천. 고양: 인간사랑.
- 송재소, 유홍준, 정해림, 조창록, 이규필, 옴김(2011). 한국의 차문화 천년3. 과주: 돌베개.
-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옴김(1995).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主流·一念.
- 앤서니 기든스, 필립서튼; 김미숙외 옴김(2018).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 염숙(2011). 다도학입문. 서울: 국학자료원.
- 오기성(1999). 남북한 문화통합론. 서울: 교육과학사.
- 유태용(1999).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학연문화사.

- 이길표, 주영애(1999).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 : 신광출판사.
- 이이화(2012). 처음 만나는 우리문화. 파주: 김영사.
- 이이화(2001). 이야기 한국사 3. 서울: 삼성.
- 이익(1989). 국역 성호사설.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임혁백(2014).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파주 : 한울아카데미.
- 장경섭(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파주: 창비.
- 장영기(2017). 기업사회공헌, 문화재와의 만남. 서울: 역사문화.
- 전영선(2005). 북한사회와 문화. 서울: 역락.
- 전영선(2009). 문화로 읽는 북한. 서울: 문예원.
- 전영선(2016). 글과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경진.
- 정근식 외(2017).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정수일(2013). 실크로드 사전. 파주: 창비출판사.
- 정영선(2007). 한국차문화. 서울 : 너럭바위.
- 정조문, 정희두 편저, 최선일 등 편역(2013). 정조문과 고려미술관. 고양: 다연.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2002). 21세기정치학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아 리서치.
- 조공호(2013). 한국 집단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인은 누구인가. 파주: 21세기북스.
- 조성희(2015). 차, 속박이나?자유냐?. 서울: 서울꼬문.
- 주강현(2006). 북한의 '우리식 문화'에서 문화적 헤게모니. 북한의 사회. 서울: 경인문화사.
- 주영애, 이현숙, 최배영, 박성선, 김진숙, 이향숙, 최진영(2011). 세계의 차문화.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주영애, 광미숙, 김우정(2018). 남북통일대비 통합문화의 모색: 세시풍속

-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코리언의 정서소통과 통일문화. 서울: 한국문화사.
- 주영애(2018). 한국가정의 생활문화. 서울: 신정.
- 주영애, 김선주, 김효주, 박영숙, 홍영운, 문지예, 박영자, 박인선, 원미연 (2018). 생활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한국생활문화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 최성애, 조벽(2018). 정서적 흡수지와 정서적 금수지. 서울: 해냄.
- 통일교육원(2018).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관점,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2017). 2018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2017). 2018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부(201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201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하상복(2006). 세계화의 두 얼굴, 부르디외 & 기든스. 파주: 김영사.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2018). (변화하는 사회의)가족학 . 파주: 교문사.
- 한기정(2014). 조선후기 지식인의 차문화 연구. 서울: 보고사.
- 홍성민(2012). 취향의 정치학: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읽기와 쓰기. 서울: 현암사
- 황태연, 엄명숙(1992). 포스트사회론과 비판이론. 서울: 푸른산.
- 황태연(2015).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1, 2. 파주: 청계.
- Bourdieu, Pierre(1979). *La distinction :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下』. 최종철 옮김. 서울: 새물결, 2005.
- Bourdieu, Pierre·Loïc Wacquant(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부르디외 사유의

- 지평』. 이상길 역. 서울: 그린비, 2015.
- Bourdieu, P(1996). *Sur la television*. 『텔레비전에 대하여』. 현택수 역. 서울: 동문선, 1998.
- Bourdieu, P (1976). *Sociology in questions*. 『혼돈을 일으키는 과학』. 문경자 역. 서울: 솔, 1994.
- Burke, Peter (2004). *What is cultural history?*. 『문화사란 무엇인가』. 조한욱 옮김. 서울: 길, 2005.
- C.A.반 퍼슨; 강영안 번역(1994)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서울: 서광사
- Matsumoto, David Ricky ,Juang, Linda P(2013). Culture and psychology, 『문화와 심리학』. 신현정, 이재식, 김비아 옮김 . 서울: 박학사.
- Matthews, Gerald ,Zeidner, Moshe ,Roberts, Richard D(2009). *Emotional intelligence : science and myth*. 『정서지능: 그 오해와 진실』. 문용린 외 공역. 서울: 학지사, 2010.
- Olivesi, Stephane(2005). *La communication selon Bourdieu*.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 이상길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Pinto, Louis(1998). *Pierre Bourdieu et la theorie du monde social* .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 김용숙·김은희 역. 서울: 동문선, 2003.
- Tony Bennett, Culture: A Reform's Science, London, Sage, 1998; 팀 에텐서, 박성일 옮김,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이후, 2008; Raymond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NewYork, Broadview Press, 2001.

<논문>

- 강석승(2007). 문화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 10, 111-151.
- 강봉수(2007). 통일교육의 생활문화적 접근 모색. 윤리교육연구, 14, 1-24.
- 고유환(201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평가와 계승 발전방안.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33-44.
- 고유환(2015). 분단 70년 북한연구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24(1), 29-54.
- 고인환(2005). 남북 문학의 이질성과 문학 교류의 방향. 문학과 경계, 5(4), 240-260.
- 고정희(2010). 정서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20, 33-66.
- 공귀옥(2012). 차생활이 청소년의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MMPI-A(다면적 인성검사)결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문완(2013). 창과 방패의 대결. 북한, 2013(6), 120-127.
- 곽미숙, 주영애(2016). 통일대비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차문화콘텐츠 적용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6(5), 267.
- 곽미숙, 주영애(2017).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와 차문화적 용탐색. 한국콘텐츠학회지, 17(6), 272-286.
- 구광모(1998).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목표와 특성 -80년대와 90년대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12(0),
- 김구희(2013). 정부와 민간단체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비판적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귀옥(2008). 이산가족의 범주화와 공동체 형성 방안 .역사문제연구, 19(0), 313-354.

- 김규원(2015). 문화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북 Issue & Trend, (19), 28-29.
- 김덕삼, 최원혁, 이경자(2017). 동서양 문명 교류에서 본 '공감'. 중국과 중국학, (30), 105-131.
- 김동일(2017). 복합장으로서의 공감장을 위한 제언-공감장이란 무엇인가-감성인문학 서론에 대한 사회학적 독해. 감성연구, 15(0), 31-55.
- 김명식(2015).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을 위한 심리학적 고찰. 디지털융복합 연구, 13(1), 555-562.
- 김민수(2016). 인간안보의 헌법적보장과 국가안보와의 조화. 법학논집, 21(1), 129-161.
- 김민지(2016). 사회적 행동주의 예술의 미학적 함의- 부르디외의 장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로(2014).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26(1), 1-33.
- 김병욱, 김영희(2009). 남북한과 통독 전 동서독의 이산가족교류 비교 연구. 현대북한연구, 12(1), 173-215.
- 김봉국(2018). 해방 직후 민주주의 공론장의 안과 밖. 감성연구, 16(0), 137-178.
- 김상준(2004). 부르디외, 콜만, 펄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63-95.
- 김상철(2003).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와 동질성 회복방안. 복지행정연구, 19(0), 0
- 김상호(2007). 부르크하르트와 문화사와 역사 수업, 역사와 역사교육, 13, 67-98.
- 김석향(2012).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6(1),

191-216.

- 김선주(2014). 보육교사의 표정언어와 대인관계문제의 상관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현(2016). 피에르 부르디외: 법률의 장과 권력의 해부. 법학논총, 33(1), 1-28.
- 김성룡(2010). 정서(情緒)와 문학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20, 5-32.
- 김순진(2005). 한국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 한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식, 윤영철, 오소현(2005). PD저널리즘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과 제작관행. 한국방송학보. 19(4), 79-124.
- 김연철, 정경환(1998). 공백의 5년: 김영삼 정부 통일정책의 반성과 비판. 한국민족문화, (12), 366.
- 김영희(2014). 탐사보도 프로그램 작가공간의 작동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부르디외의 정치적 장, 경제적 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영(2004). 작가저널리즘은 존재하는가?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10, 226-244.
- 김완주(2008). 차문화가 동아시아인의 공예문화관 및 조형성에 끼친 영향연구-한중일 차문화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범(1993). 남북한 문화교류의 단계적 추진과 민족 동질성의 회복. 계간 지역사회, 16, 88-101.
- 김종균(2017). 남북 주민의 정서 소통 기제로서 대중가요. 통일인문학, 71, 5-38.
- 김진웅(2007). 신문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 언론과학연구, 7(2), 111-142.
- 김학성(1998). 독일통일이후 '내적 통일'의 과정과 문제점.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95-120.
- 김환석(2002). 부르디외의 과학사회학 - '과학장'의 생성과 구조. 경제와 사회,

56, 242-263.

- 김효주(2013).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주(2018).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본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보자기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석(2017). 남북 이산가족문제 재정립 및 추진방안 연구. 북한학보, 42(2), 1-8.
- 김희경(2016).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529-562.
- 남근우(2014). 북한 시장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통일인문학, 58, 163-194.
- 남재일(2004). 한국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형식적 사실주의의 전략적 의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동일, 김진향(1998). 북한 연구방법론 고찰. 평화연구, 23, 77-122.
- 도홍렬(1994). 남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문화. 청소년학연구, 2, 145-160.
- 로익 바강, 이상길, 배세진(2013). 상징권력과 집단형성-피에르 부르디외의 계급문제 재구성에 관하여. 언론과 사회, 21(2), 34-69.
- 류동협, 홍성일(2013).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과 그 효과-부르디외의 저널리즘 장이론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85, 9-36.
- 문숙재(1999). 생활과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영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움, 1998(0), 15-24.
- 문태원(2006). 정서지능과 문화의 관계 정립을 통한 새로운 정서지능 연구 제시와 소비자 심리에 끼치는 시사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1), 518-519.
- 민경환(1994).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통일. 심리과학, 3(1), 84-99.

- 박명규(2015).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지식의 지평, 19(0), 1-17.
- 박민(2012).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재활심리연구, 19(3), 387-405.
- 박병준(2014). 공감과 철학상담 -막스 셸러의 "공감"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36(0), 9-40.
- 박병준(2009). 공감 발달을 위한 도덕교육 방법.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3(1), 127-144
- 박순성(2002).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과정(1988-2002).북한연구학회보, 6(2), 169-191.
- 박순성, 고유환, 홍민(2008).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11(3), 9-57.
- 박신의(2007). 남한과 북한, 통일의 문화적 조건. 국학연구, 10, 81-110.
- 박영숙(2017).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조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정(2011).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의 진단과 전망. Jpi 정책포럼, 86(0), 1-17.
- 박재영(2010). 통일을 대비한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디지털 전통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37, 157.
- 박재인(2017). '고향'으로서의 북녘, 통일을 위한 정서적 유대 공간으로의 가능성. 통일인문학, 71, 39-74.
- 박재호(1987). 장이론과 Kurt Lewin 에 대한 소고. 인문연구, 8(2), 335-349.
- 박춘호(2012). 한국근대미술사 담론의 인식론적 계보학- 시각체제의 변동과 장개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치현(2016). 탈콧 파슨스 초기 사회학에서의 '사회' 개념. 사회와이론, 29, 757.
- 배성인(2002). 남북한 민족문화 건설과 문화통합 모색. 통일정책연구, 11(1),

199-228.

- 배영동(2017). 근현대 생활문화 조사와 연구의 방향. 민속학연구, 41, 5-31.
- 변창구(2014). 국민통합과 통일기반의 구축-남남갈등의 극복을 중심으로-통일 전략, 14(4), 77-102.
- 서문기(2015). 문화적 가치체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9(2), 78-102.
- 서진석(2007).에스토니아 민요에 등장하는 전통정서 바엡(Vaev)-리투아니아 정서 시엘바르타스(Sielvartas)와의 비교를 바탕으로-.동유럽발칸학, 9(1), 117-143.
- 손정아, 하용용(2017). 부르디외의 장이론으로 본 서울발레시어터의 변천과정. 체육사학회지, 22(1), 107-122.
- 송영섭(2012). 남북한 통합을 위한 "화해된 민족 동질성"에 대한 논의. 개혁논총, 21(0), 45-70.
- 송윤경(2007). 새터민의 적응과 구별짓기-계층의 재생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1153-1163.
- 신종대, 최은석(2007). 체제전환국의 사회적 약자 보호 법제. 경희법학, 42(1), 339-374.
- 신현욱, 박영정(2014).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국민요학, 41, 127-151.
- 심상민(2016). 신라문화콘텐츠 디지털플랫폼 활용 방안. 인문과학연구, 34, 317-352.
- 안장혁(2018). 공감정서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리인류학회지, 2(1), 1-9.
- 안택식(2010). 남북한 사회통합과 법적 과제. 한양법학, 29, 13-39.
- 양영식, 김경웅(1991). 독일통일을 전후한 문화교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의

- 시사점. 문화정책논총, 3, 19.
- 양정훈(2011). 남북문화정책에 따른 사회문화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 8, 213-234.
- 염무웅(1990). 남북 문화교류에 대하여. 실천문학, 22-28.
- 오양열(1995).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50년. 문화정책논총, 7, 29-74.
- 유영옥(1997). 남북한 이질성 극복을 위한 심리사회적 조망. 한국정치학회보, 31(2), 173-201.
- 유영옥(2007).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국학연구, 10, 153-198.
- 유찬기, 남기범(2018). 사회과학의 공감연구 동향과 특성. 문화콘텐츠연구, 13, 75-100.
- 육서영, 윤석민(2012).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에서 구성작가의 역할. 방송통신연구, 81, 127-155.
- 윤민재(2017).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특징: 세대별 통일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8(5),
- 윤인진, 윤여상, 송영호(2010). 이산가족의 유형화와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263-1275.
- 이강형, 최현주(2011). 방송작가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 : 방송작가의 고용 및 계약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언론과학 연구, 11(2), 477-509.
- 이경국, 배성인(2003).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과정과 특징 -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7(1), 273-30.
- 이경희(2008). 한국차문화전승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광우(2013). 문화매개자로서 미디어 생산자의 아비투스 형성과 실천에 대

한 연구: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2000).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V): 탈북인의 남한생활적응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8(4), 1-20.
- 이기춘, 나종연(2007). 북한이탈주민의 북한과 남한에서의 소비생활경험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3(2), 101-122.
- 이명호(2017). 공감의 구조변동, 관계지향적 삶의 실천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0(4), 65-90.
- 이명희, 서주환(2016). 한국적 정서와 감성을 통한 스토리텔링과 문화 콘텐츠. 조형미디어학, 19(4), 141-147.
- 이상길(2005).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와 미디어 실천. 한국언론정보학보, 29, 147-188.
- 이상길(2010). 문화매개자 개념의 비판적 재검토: 매스미디어에서 온라인 미디어까지. 한국언론정보학보, 52, 154-176.
- 이상신(2001). 부르크하르트 문화사의 과제. 서양사론, 69(0), 5-34.
- 이상호(1994). 부르디외의 새로운 사회이론: '아비투스'와 '상징질서'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5, 79-115.
- 이석범(2015).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확보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시(2009). 한국사의 동질성 담론과 다양성에 대하여. 통일인문학, 47, 41-57.
- 이성희(2013).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장·자본의 상호형성 메커니즘-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의 활성화 방안. 교육사회학연구, 23(2), 151-171.

- 이소영(2010). 해방 후 남·북한의 혼종적 음악하기. 한국민요학, 29, 1-72.
- 이수지(2017). '공감'기반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숙, 한영선, 정민영(2016). 통일대비 남북한 가정생활 용어 비교 분석: 소비자가정경영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2), 119-141.
- 이영재(2012). 현대공감이론을 통한 공맹철학의 재조명. 정신문화연구, 35(2), 413-445.
- 이우영, 손기웅, 임순희(2001).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1-128.
- 이우영(2002). 제3장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비교사회, 69-89.
- 이은영, 김대년, 박영숙, 이기춘, 이기영, 이순형, 최연실(1999).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3)-북한의 의·식·주 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 15-28.
- 이은주, 김종덕(2014).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TV광고 캠페인의 기호학적 분석과 의미 변화.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7(3), 153-173.
- 이재수(2009). 불교문화원형,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정토학연구, 12, 263-300.
- 이종은(2005). 한국전통적 소재를 활용한 광고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19(1), 35-48
- 이종하(2012). 아도르노와 부르디외의 비판적 미디어론의 친족성과 차이. 철학연구, 124(0), 321-345.
- 이중환(1991). 어떻게 문화적 정서를 가꾸어 가야 하나. 문화정책논총, 3, 95-104.
- 이지연(2000). 한국방송기자 장의 작동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수(2012). 차문화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차문화산업학, 17, 65-88.
- 임상선(2007). 고구려·발해 역사의 공동연구를 통한 남북한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 10, 229-260.
- 임종섭(2017). 언론사 및 뉴스 생산 요인에 관한 인식이 디지털 뉴스 활동에 미치는 관계성 : 부르디외의 장 이론과 루만의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7(2), 193-228.
- 임태희, 최배영(2017). 커피에 대한 문화적 인식 및 소비가치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7(5), 249.
- 전미영(2018). 김정은시대 북한 민족주의: 담론·문화·정책. 북한학보, 43(1), 166-183.
- 전병곤(2012). 양안 교류협력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통일정책연구, 21(1), 187-212.
- 전영선(2006). 북한 초점: 2000년 이후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월간 아태지역동향, 169(0), 15-23.
- 전영선(2015). 남북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통일인문학, 63, 71-98.
- 전웅(2004).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44(1), 25-49.
- 정광진(2016). 통일준비차원에서 북한주민의 법 인식 교정을 위한 지향점 도출 연구. 한양법학, 27(4), 223-246.
- 정동준, 김선, 김희정, 나용우, 문인철, 송영훈, 최규빈, 임경훈, 이정옥(2019). 2018 통일의식조사. 통일의식조사, 2018(0), 1-397.
- 정은미(2013).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변화, 통일과 평화. 5, 74-100.
- 정은이(2017). 북한돋보기 북한 장마당 인사이드 : 북한 주민이 최고로 꼽는 커피믹스?. 통일 한국, 398(0), 42-43.
- 정용하, 강성훈 (2015).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대학생의 남북관계 인

- 식변화. 한국민족문화, 55, 137-168.
- 정은찬, 문철훈(2017). 남북 문화유산의 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과학 연구, 3(1), 91-113.
- 정창현(2012).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통일인문학, 53, 223-251.
- 정철현(2006).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37(2), 9-10.
- 정철희(2016). 과학장이 공론장을 만났을 때. 사회와이론, 28, 7-32.
- 정호섭(2013). 민족공동 문화유산관련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평가. 한성사학, 28(0), 3-35.
- 정태현(2018). 1970년대 이후 한국 비판적 지성의 남북 ‘차이의 공존’ 인식과 방법론 성찰 과정. 동양학, 72(0), 55-76.
- 조명선, 최배영(2009). 차생활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의 주의 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차학회지, 15(2), 53-64.
- 조영승(2000). 남북화해와 협력에 있어서 남북청소년교류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논문집, 44(1), 285-307.
- 조종혁(2007). 미디어 아비투스와의 상징적 폭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5(1), 31-62.
- 조한범(1998).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와 시민단체의 역할.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 학술회의, 15-31.
- 주강현(1999).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 역사민속학, (8), 226-250.
- 주소정(2007). 요한 호이징하의 문화사적 역사인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영애, 조선주(2009). 차문화교육의 효과성 연구의 동향. 생활문화연구, 24(1), 1-12.
- 주영애, 광미숙, 김우정(2017). 남북통일대비 통합문화의 모색-세시풍속 생활

- 문화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9, 399-433.
- 최기숙(2016). 지속 가능한 "감성-성찰" 자원 구축을 위한 한국 "고전/전통" 자원의 재맥락화. 동방학지, 175(0), 25-55.
- 최배영(2019). 소비자의 녹차 관련 상품정보 인터넷 검색 실태 연구. 차문화산업학, 43, 107-143.
- 최셋별(2006). 한국 사회에 문화 자본은 존재하는가?. 문화와 사회, 1, 123-158.
- 최성철(2002). 문화로서의 역사?. 역사학보, 174(), 263-29
- 최성철(2005). 문화사에 나타난 '문화' 개념의 어제와 오늘. 역사와 문화, 10, 41-66.
- 최영태(1999). 부르크하르트: 위기의 대안으로서 문화사. 세계 역사와 문화연구, 3(0), 43-68.
- 최용기(2007). 남북의 언어 차이와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 10, 199-228.
- 최용익(2012).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PD저널리즘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석(2011)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북한연구학회보, 15(1), 309-335.
- 최은석(2011).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공법연구, 39(4), 341-367.
- 최은석(2018). 북한돋보기 북한法 통일LAW : 남북 정상 합의, 국회동의 긴급...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해. 통일한국, 413(0), 48-49.
- 최천운(2017),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교류범위에 관한 연구: 북한인권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2017, 270-293.
- 최현주, 이강형(2011). 방송작가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1(2), 469-500.

- 최현호(2005).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 분석. 국민윤리연구, 58, 287-311.
- 최혁수(2018). 시각적 수사 유형에 따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팽원순(1984). 사회고발저널리즘의 역사적 고찰. 방송연구, 1984, 136-145.
- 국방송작가협회 (2002). 방송작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한국방송작가협회.
- 한성열(2000). 북한의 문화적 특성과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0(1), 131-153.
- 한순미(2018). 공감장, 그 고요한 소용돌이 -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 인문학 서론(2017). 감성연구, 16(0), 5-41.
- 현인애(2015). 남북한 생활양식. 지식의 지평,(19), 1-19.
- 홍성민(1999). 문화와 상징적 권력. 한국정치학회보, 33(3), 59-76.
- 홍영아(2011).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TV구성작가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권순(2011). 북한 무형문화유산 현황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91, 127-151.
- 황병기(2014).일상에서 읽는 한국인의 정체성. 국학연구, 24, 429-466.
- 황태연, 이영재(2012). 현대공감이론을 통한 공맹철학의 재조명. 정신문화연구, 35(2), 413-445.

#### < 신문, 잡지 >

- 강진일보 <http://www.nsori.com/> 2015.12.04.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2108.12.03.
- 교통뉴스 <http://www.cartvnews.com/> 2017.12.13.
-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2015.06.10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 2015.05.26., 2015.07.17., 2015.09.29.,  
2016.07.26.

뉴스시스 <http://www.newsis.com/> 2014.10.21.

테일리안 <http://www.dailian.co.kr/> 2018.11.26.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2005.06.11.,2014.12.01., 2015.02.26.,  
2015.04.03.,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2018.12.26.

민플러스 <http://www.minplus.or.kr/> 2018.07.04.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 2018.10.13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13.10.16., 2019.06.2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2019.03.04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 2009.09.29

NK조선일보 <http://nk.chosun.com/> 2014.05.26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2014.09.24.,2018.03.29. 2018.06.15.  
2015.08.25.

통일신문 <http://www.unityinfo.co.kr/index.html>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 2018.01.04

한겨레 <http://www.hani.co.kr/> 2013.10.16.

MBC뉴스 <http://imnews.imbc.com/index.html>, 2018.07.25.

YTN NEWS <https://www.youtube.com/user/ytnnews24>, 2015.04.03

## 북한자료

### <단행본>

- 김금성, 최돌진, 장향옥, 전선일(2018). 조선상품. 평양: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2018.:외국 문출판산 인쇄공장
- 김일성저작집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김정일선집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1993.
- 동식 외(1998). 생활과 건강장수 I. 평양: 의학과학출판사.
- 리기순(2010). 건강음료.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 리득우(2003), 위인과 정서, 평양: 평양출판사
- 리명철,정운호. (2013). 천연건강음식. 평양: 인민보건사.
- 박승길, 김지원(2015). 민속음식과 식생활. 평양: 평양출판사.
- 안병식 외(2009). 식물성분편람. 평양: 농업출판사
- 조대일(2013). 조선민족의 음식문화. 평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 조희승(2014). 차문화의 력사. 평양: 평양출판사.
- 최기환(2004). 6.15시대와 민족공조. 평양: 평양출판사.

### <북한의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로동신문: 1989.05.08., 1989.11.05., 2009.07.05., 2009.08.30., 2011.02.21.,  
2012.06.03., 2012.08.13., 2013.03.30., 2013.04.15., 2015.04.12.,  
2015.04.18., 2016.12.04., 2017.10.07, 2018.06.10

천리마: 2006.9호, 2009.5호, 2009.9호

력사과학: 1989년 2호.

### <기타 기관 및 홈페이지>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경기도박물관 <http://musenet.ggcf.kr/>

나무위키 <https://namu.wiki>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다음 한국어사전 (<http://dic.daum.net/index.do>),

대법원 <http://www.scourt.go.kr/supreme/>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index.do>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북한연구학회 <http://www.kanks.org/>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2017. 11.28.

이용웅 교수 네이버블로그 <http://blog.daum.net/nkchosun-nkculture/11784214>  
,2009.10.09.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s://unibook.unikorea.go.kr/>

통일부 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uniedu/home/main/uniedu.do>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s://www.tongtong.go.kr/person/main/personMain.do>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s://www.kcti.re.kr/>

한국차학회 <http://www.teasoc.com/>

## ABSTRACT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Emotional Sympathy through the Inter-Korean Tea Cultural Exchange**

Kwag, Mi Sook

Dep.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and various laws, the Republic of Korea's unification policy is the co-prosperity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based on the principles of self-reliance, peace and democracy, and the "restoration of national homogeneity"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unification.

The reality of the prolonged division of the country and the disjointed and intermittent exchange have not kept the national homogeneity firm and have led to many meetings on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This paper is based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xisting intercultural, academic,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ere actively pursued by actors. The exchange as a stepping stone for the restoration and growth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of peace and prosperity is very important as a foundation stone.

However, it can not be denied that inter-Korean exchanges are often mobilized when the relationship is favorable. Nevertheless, in the midst of

disconnection and refraction, continuous efforts for exchange have accumulated, and research and practice capacity has matured and expanded into various fields. In other words, the researchers of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social scientists pay attention to everyday life as a concern about concrete practice and research and present various contents of unified culture while they are not living culture researchers. However, among unified culture contents researchers, There are those who raise. In this research environment, it seems that the task of cultural integ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should have a little bit of explosive influence on the responsibility of life culture research

Humans grow and develop, forming various relationships not only in personal relationships but also in social relationships. This is possible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sentiment formed around the daily living environment of an individual or group, and through the design of specific programs, which can ensure more reality and practice in the study of living culture, and facilitate the formation of emotional empathy.

In this paper, we wanted to look at the formation of emotional sympathy through differential cultural exchanges from the point of view of everyday research and the point of view of life culture, and to this end, we could see that there is a similarity between the concept of tea culture and flavor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view research methods. Regarding the emotional sympathy formed in the practice of daily life, we looked at the mood formed by the combination of living conditions, liv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s the main conditions of exchange by borrowing Habitus and Champ theory by Bourdieu Abitus,

which are the conditions in which each Habitus belongs, to facilitate the formation of sympathy among the alternates.

The principal agent of the alternating current is the action, but the nature of the alternating current requires bilateral interaction, so is the subject of the alternating current. Since the entire South-North Korean national membership can be the main body of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efforts are needed to find a medium of exchange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the course of unification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orientation, as the main body of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is desperately needed.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exchanges through various mediums can be activated and expanded if cultural sentiment that can be easily and simply shared with each other is based on the exchange.

If the two Koreas want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interests, they should focus on similarities rather than differences and implement exchange policies. Even if the entire nation does not become a direct subject of exchanges right now, it needs to find out what formable medium of emotional sympathy is. A bowl of Pyongyang naengmyeon eased feelings of enmity and disgust, which were expressed in curiosity and interest, because it was able to communicate the sentiments of our culture DNA. Performing arts and music can be freely traversed across ideology and borders, but they are not direct objects, so eating and drinking can be a practice that facilitates sympathy and communication and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 this paper, based on the grand premise that culture is a holistic complex surrounding human daily life, we wanted to discover the

consensus of the North-South sentiments through the tea cultural exchange, which is symbolized as a culture.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find emotional similarities in the current tea culture with a history of enjoying tea culture together with the basis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at this time in charge of the tasks of the era of unification, and to explore the future of creative succession. In other words, it was predicted that the restoration of national culture, the formation of living cultural and emotional sympathy, and the possibility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s cultural heritage of the common people through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The gap between the two Koreas in selecting candidates for interviews is a reflection of reality. Acknowledging that there is a limit to staying at the level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such a reality, we hope that there will be a study in the near future that can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rewrite the history of Korean tea culture.

In the following researches, I expect that the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on the unification sympathy, restoration of national homogeneity, and creative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 will boost research on the space of various exchanges and the various mediums of exchange.

I would like to expect active research of living culture researchers on the study of tea cultures before the Koryô period, the tea cultures such as tea cultural relics and relics, an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actical and unified cultural contents programs.

<부록1>

## 연구동의서

**연구제목: 남북 차(茶)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 형성 연구**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사이의 생활문화와 정서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남북 차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 형성 연구로서 남한의 차전문가와 북한 전문가인 연구 참여자들과 면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참여자의 정보는 실명으로 거론되지 않으며, 연구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 진술한 내용을 녹취하고 기록함을 알려드리며, 연구 참여의 중단에 관한 결정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특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생활문화전공 박사과정  
지도교수: 주 영 애  
연구자 : 곽 미 숙  
E- mail: kwag21@hanmail.net

본인은 연구 참여에 대한 위의 내용을 잘 읽고 숙지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인은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면담내용을 녹취하고 기록하는데 동의합니다.

날짜:    년    월    일

연구 참여자:                   (인)



<부록2>

<남북 차문화교류에 관한 질문지>

대상	질문내용	
남한	차문화교류 인식	남북 공동의 생활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북문화교류의 한 부분으로 차문화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문화교류 전망	남북의 차문화가 한국차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문화교류 기대 효과	차문화교류가 생활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남북 주민이 함께 차를 마시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남북 주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문화교류 협력사업	차문화교류를 통해 남북이 교류·협력사업을 한다면 어떤 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문화교류 정책	남북 차문화교류 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차문화교류 인식	북한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어떤 음료를 마시지요? 북한에서 차를 언제 어디에서 접해보셨는지요? 남북 공동의 생활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북이 차문화교류를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문화교류 전망	남북의 차문화가 한국차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문화교류 기대 효과	차문화교류가 생활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남북 주민이 함께 차를 마시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남북 주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문화교류 협력사업	차문화교류를 통해 남북이 교류·협력사업을 한다면 어떤 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문화교류 정책	남북 차문화교류 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록3>

< 북한차문화 현황 >

◆ 북한에서의 차 재배와 생산

1982년 9월 중국 산둥성 방문한 이후 김일성 주석은 같은 위도상의 강원도 고성과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차를 재배하도록 지시.

1989년 온실에서 재배하던 차나무를 야산에서 재배하는데 성공,  
3만 그루의 차나무.

2009년 영하19도에서도 겨울나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 품종 선발 성공,  
차나무 재배 기술과 번식 방법, 차잎 가공 방법에 대한 연구 사업의 큰 진전  
차나무가 수십만 그루로 늘어남.

2011년 강령 은정차재배원에서 10여만 그루의 방품립.

2017년 강령 은정차재배원, 30정보 면적 늘림.

2009년부터

은정차 개발하여 봉사. 매대에서 강령록차와 강령홍차로 만든 은정차 봉사 시작.

강령 은정차 재배원은 외국의 차 재배지에 비해 위도상 높은 곳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차의 맛과 향기가 독특하다고 한다.

은정차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카데킨을 비롯한 여러 성분과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C, E를 비롯한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가열하여 발효시키지 않는 강령 녹차와 완전 발효차인 강령홍차로 나눈다.

은정차는 강령군에서 재배하는 강령녹차와 강령홍차,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에서 재배하는 고성녹차와 고성홍차 등 4종류로 나누는데, 수확한 차잎을 가열하여 발효시키지 않는 것이 녹차, 완전히 발효시킨 것은 홍차가 된다. 반(半)발효차는 오롱차로 구분한다.

금동 은정차재배원의 한 관계자는 "은정차의 특징은 구수한 맛과 진한 향기, 독특한 색깔에 있다. 그 비결은 재배와 가공의 전 과정에 유기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통일뉴스 2018.08.30)

◆ 북한의 차음용 실태

은정차 애호가라고 하는 김철명씨(47살, 국토환경보호성 부원)는 “차의 향과 맛이 독특하다. 은정차를 마시면 하루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머리도 맑아진다”고 소감을 이야기한다. (통일뉴스 2009.06.16)

최근 은정차(홍차와 녹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 평양의 영광 거리에 있는 차집을 비롯한 여러 차집들에서 은정차의 향기로운 맛을 보며 흐뭇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가정들에서도 손님이 오면 의례히 은정차를 대접하고 있다. (통일뉴스 2009.11.3)

北 자체 생산하는 '은정차' 수요 높아져

북한에서 은정차(茶)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평양 창광거리 은방울 차집에는 감미로운 차를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흥성이고 있다”며, “차집에 들어서니 흰 김이 서린 차를 조금씩 마시며 차 맛을 느끼는 노인들도 보이고 동료들과 한담하면서 차를 마시는 청년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온다.”고 차집 풍경을 소개했다.

이곳 봉사원은 은정차를 맛보기 위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고 단골손님들도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통일뉴스2014.09.24)

- 강령녹차 시음기

양각도 국제호텔 정문을 들어서면 2층의 로비 오른쪽 철갑상어가 헤엄치는 수족관 안쪽으로 '양각도호텔 차집'이 있다. 차집 간판을 걸어 들만한 곳에 큰 글씨로 '강령녹차'와 '은정차'라고 써 놓았다.

말이 차집이지 이곳에선 수준급의 에스프레소도 맛볼 수 있고 칵테일과 양주, 대동강 맥주와 평양주, 참새구이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곤 다 있었다. 정작 강령녹차란 무엇이고 은정차란 무엇인지 궁금증이 일었다.

판매원(Salesman) 이름표를 달고 차를 끓여 내어 준 함영수씨는 강령녹차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황해남도 강령에서 재배한 녹차인데 맛이 아주 구수하다고 하였다.

찾잔 가득 은은한 향이 풍기는 차에 어린 찻잎 몇 장을 띄워 차받침에 스틱 설탕, 스푼과 함께 차를 내는 것이 이색적이었다. 가격은 1달러보다 싼 티백 녹차보다는 비싸고 1달러 조금 넘게 받는 커피보다 높은 2.8달러를 받았다.

◆ 차 마시는 공간

창전거리에 위치한 은정차집은 2012. 7월에 개업하여, 지금은 영광거리, 창광거리 등 평양시내에 은정찻집과 거리의 매대가 성업 중이다.

양각도 국제 호텔과 연풍 과학자 휴양소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일뉴스 2018.08.30)

◆ 차의 활용

명절요리축전서 선보인 ‘건강약차’ 인기몰이

지난 6~8일 평양시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제15차 4월의 명절요리축전에서 출품됐던 건강약차들이 당시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은정차(강령녹차)에는 약리작용을 하는 알칼로이드류와 각종 필수아미노산 등이 포함돼 있어, 머리를 맑게 하고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비대 등을 막으며 피로회복, 이뇨, 해독, 항암, 노화방지에 좋다.(통일뉴스 2010.04.13)

2015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 시 메뉴에 포함.

메뉴판에 크림과자, 남새합성(야채모듬, 상추·고추·토마토·양파 등), 배추통김치, 색찰떡, 닭편구이, 청포종합랭채, 밥조개 마요네즈무침, 찻죽, 쇠고기 흰소스곰, 생선낙화생튀기(튀김), 버섯고기 완자볶음, 볶음밥, 닭고기 완자 맑은국, 과일사탕줄임 등의 음식과 함께 은정차도 적혀 있었다.

제공된 주류 및 음료는 들쭉술·대동강맥주·배향단물·금강산샘물·인풍포도술 등이었으며, 들쭉술은 미리 잔에 따라 놓았다.

북측 접대원들은 메뉴판에 나오는 ‘은정차’에 대해 “원래 록차(녹차)인데, 원수님께서 은혜로 돌려주셔서 은정차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하며 남측이 내놓은 코카콜라와

북측의 배향단물(배맛주스)을 비교하면서 북에서 나는 고유의 맛을 대접하는 것을 강조하였다.(통일뉴스 2015.10.21)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등장했던 북한의 룩차 ‘은정차’

2018.09.18.,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공식음료로 ‘은정차’를 제공했다. 2018.04.27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당국은 은정차를 관문점으로 직접 가져와 공식 만찬 자리에 내놓았다. 북한의 은정차에 대한 자신감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시사저널2018.10.13)

◆ 북한 차문화산업

- 녹차 평양냉면
- 조선의 차문화 우표발행
- ‘은정차잎 따는 처녀들’ 공연
- 과자류

< 부록4 >

《북한의 『차문화의 역사』에 기술된 차 일반》

구분	내용		
차의 개념	·차나무잎을 가공하여 만든 음료, 록차를 차라고 함. ·여러 가지 나뭇잎, 열매, 풀뿌리와 낱알, 과일 등을 말리워 우리거나 달여 마시는 음료도 차에 포함(감나무잎차, 인삼차, 구기자차 등)		
차나무 원산지 및 종류	원산지	인디아, 중국의 운남성	
	종류	중국종, 중국대잎종.인디아앗쌈종, 상종.	
차나무 형태 및 특징	차나무는 자연상태에서 7~8m, 재배상태에서 1~1.5m인데 인디아의 앓쌈차나무는 10m. 지난해 달린 열매들과 함께 흰 꽃이 피어남.		
차나무 성장 조건	N42°로부터 S30°의 지역에 걸쳐 분포. 년 평균기온 12°C이상, 년 강수량 1,400mm. 비물이 인차 빠지는 지대 또는 구릉지대. 종자번식법과 영양번식법의 재배방법.		
채엽시기, 횟수	보통 5월 상순 채엽은 1번차, 7월 상순 채엽은 2번차 8월 상순 채엽은 3번차라고 함. 년 3~4번 채엽.		
차의 분류	발효시키지 않은 차: 록차.		
	완전발효차: 홍차와 홍전차.		
	절반 발효시킨 차: 우롱차와 포종차.		
차의 제차방법	록차	증열법	열을 가하여 차잎을 지면서 가공처리하는 방법
		부묘법	가마안에 넣고 닦으면서 만드는 방법
	홍차	탄닌산 보존 목적으로 차잎을 가열하지 않음. 산화발효.	
우롱차	록차와 홍차의 중간제조과정에 만들어짐. 발효시키던 도중에 꺼내어 가마 안에 넣고 닦은 다음 잘 건조시켜 완성.		
차의 성분, 효능	성분	카페인, 탄닌, 방향성휘발유 비타민C, 폴리페놀, 카테킨, 테아닌 등.	
	효능	각성작용, 위액분비 억제, 정신적 안정감, 기억력, 판단력, 지구력 높여줌. 혈관확장, 고혈압, 동맥경화예방, 피로방지, 강심작용. 알츠하이머병 예방, 항산화효과, 유선암세포성장 억제, 비루스나 세균작용 억제, 이뇨작용, 니코틴해독 등.	
차문화와	차문화란 차 한잔에도 인간의 지혜와 노력, 감정정서, 례의 등 많은 것이 담겨		

차의 구성요소	<p>저, 차잎생산과 가열건조 및 보관, 차끓이기용 물의 선택과 온도 및 시간조절, 차잔과 차마시기풍습(차마시는례절과 방식) 등 차의 생산과 리용의 전 과정.</p> <p>차의 구성 3요소: 차 잎과 수질, 찻잔.</p>
------------	-----------------------------------------------------------------------------------------------------------------------------

※ 조희승(2014). 차문화의 역사. 평양: 평양출판사, 7-30본문의 내용을 발제하여 표로 정리

### 《북한의 『차문화의 역사』에 기술된 세계차문화사》

구분	내용
중국	<p>차는 중국의 전한(B.C. 202-A.D.8년) 말경에 차를 마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장읍(張揖)의 &lt;광아(廣雅)&gt;와 곽박(郭璞)의 이아(爾雅)에 차를 끓여 마신 기록을 기준으로 차의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p> <p>중국에서 차가 일반화된 시기를 수나라 양제가 대운하를 건설하여 이를 통해 남중국의 차가 북중국으로 보급되었으며, 당나라에 이르러서 급속하게 퍼질 수 있었고, 당나라 ‘륙우라는 사람이 『차경(茶經)』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은 중국에서 차에 대하여 가장 체계적으로 서술된 귀중한 책으로 인정되어 8세기 이후 유럽사람들은 차에 관한 유일한 전서로 삼았다’고 소개하고 있다.</p> <p>송나라의 차문화에 대해서는 중국에서의 차의 생산과 보급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이며, 고급차인 룡봉차가 많이 제조되었다. 편차와 산차로 나누어 편차는 덩어리차로 산차는 엽차를 가리킨다. 송나라 시기에는 몽골과의 말무역을 차로 하였는데 이후로도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p> <p>중국에서의 차는 소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전매제에 의하여 관리되었다.</p> <p>중국에서 차가 기후 풍토와 기름진 음식위주의 식생활풍습과 관계되어 오늘날에도 생활에서 중요한 음료로 되고 있다</p> <p>※장읍(張揖)의 &lt;광아(廣雅)&gt;와 곽박(郭璞)의 이아(爾雅)는 잘못된 것으로 김진숙(2014). 다경(茶經). 서울: 국학자료원, 217-219에 보면 육우의 다경에서 ‘주공(周公)의 &lt;이아(爾雅)&gt;에는 “가(檟)는 고도(苦茶)이다”라고 하였으며, 곽박(郭璞)은 동진(東晉)사람으로 &lt;이아(爾雅)&gt;에 주석을 달아 &lt;이아주(爾雅注)&gt;를 저술하였다. &lt;광아(廣雅)&gt;의 저자는 장읍 또는 장즙이라고 한다.</p> <p>※ 룡봉차는 근으로 무게를 재었고 산차는 되 또는 각으로 재었다.</p>
일본	<p>일본차문화는 ‘조선차로 시작된 일본차문화’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차문화 발전은 백제 이후 조선의 영향을 계속 받아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p> <p>『일본서기』에서 백제가 불교와 관련된 물품과 경전을 일본에 보내주었는데 당연히 차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 불교의 시작과 발전은 백제뿐만 아니라 불교 보급에 필요한 사람, 물품을 보내준 신라와 고구려에 의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속일본기』는 차에 관한 첫 문헌기록이다. 차아일본왕이 차장</p>

	<p>려정책을 펼친 후 급속히 퍼지다가 쇠퇴하였다. 그러다가 가마꾸라막부시대부터 부흥하기 시작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p> <p>전국시대를 포함한 무로마찌 막부시기에는 차마시는 풍습이 대중화되며 점차 사치하는 차관(차그릇)의 소유가 취미로 나타나, 사무라이들은 전장에 나가서도 하인들에게 차잔을 비롯한 차도구를 가지고 다니게 하여 틈틈이 차를 마시며, 차그릇을 돌도 없는 보물로 여겼다. 일본에서는 차그릇(차잔)을 차완(茶碗)이라고 부른다. 차완이란 오늘날에 와서 일본말처럼 되었으나 그 원류를 따져보면 그것은 조선말에서 유래되었다. 중략. 차가 맨 처음 조선에서 건너갔고 차그릇 역시 조선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p> <p>일본의 차정신은 센노리큐에 의해 ‘와비’의식으로 강조되었다. 이 ‘와비’정신은 차그릇에 표현되어 차도에서 분출된다. 이때 고려의 차완을 ‘와비차’에 적합한 것으로 여겼다. 센노리큐는 차정신과 더불어 차도에서 차완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여 차완의 가치를 크게 높였다.</p> <p>차마시는 행사와 함께 그릇감상 그리고 정숙과 정신안정 등의 차도가 이미 성숙되어 있던 고려의 다례행사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으며, 그릇감상으로 반영된 민족적 향기와 정서는 일본의 이른바 차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어 일본의 차도가 발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p> <p>일본이 조선 차그릇에 매혹된 원인을 ‘조용하면서도 역센 기상, 웅건하면서도 굳센 의지, 역사적으로 내려온 슬기롭고 찬란한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소박한 속에 끝없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와 매력의 약동하고, 또한 고향산천과 조국을 사랑하는 도자기공들의 미의식이 도자기들에 반영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p>
아시아	<p>‘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류포된 차문화’에서 아랍 나라들과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중국의 차가 전해졌고, 토번에도 불교의 보급과 동시에 차마시는 풍습이 전해졌다. 티베트 사람들은 단차에 버터를 넣어 마시고 몽골 사람들은 염소젖을 넣어 마신다. 유럽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인도네시아 자와섬, 인디아의 앳쌌지방, 스리랑카에서 차를 재배하여 홍차를 생산했다.</p> <p>※토번: <b>토번</b>(吐蕃)은 티베트고원의 중앙에 성립된 고대 왕국으로 티베트의 통칭으로 사용.<a href="https://ko.wikipedia.org/wiki/">https://ko.wikipedia.org/wiki/</a></p> <p>※자와: 인도네시아의 <b>섬</b>으로 수도인 자카르타가 이 <b>섬</b> 서쪽 끝에 있다. 영어 이름은 “자바 <b>섬</b>(Java)”이다. <a href="https://ko.wikipedia.org/wiki/">https://ko.wikipedia.org/wiki/</a></p>
유럽	<p>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를 통해 동양의 차를 유럽에 보급하였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판매되고 상류층만 마시다가 18세기 민간인들에게 일반음료로 보급되었다.</p> <p>프랑스에서는 네덜란드사람들에 의해 보급된 차는 문학가들에게 인기가 높았으나 커피에 밀려났다.</p>

	<p>스칸디나비아반도의 여러 나라들과 독일도 역시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 차가 보급되었으나 독일에서는 커피애호가들이 많아서 차는 유행하지 않았다.</p> <p>영국은 유럽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이다. 차마시는 시간을 따로 두고 마실 정도로 즐겨 마셨는데 홍차는 일반가정에서도 정상적으로 마시는 음료로 취급되게 되었다. 중국에서의 차에 대한 수입이 증대되어 무역불균형이 발생하자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팔게 되면서 제1차 아편전쟁이 일어났다. 결국 청나라의 굴복으로 남경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을 그치게 된다.</p>
러시아	<p>로씨야는 1576년에 중국의 차마시는 풍습을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17세기에 중국차가 유입되었다. 1689년7월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대상무역을 통한 차의 수입을 시도하였고 1727년 7월 카프타조약에 따라 민간의 대상무역이 활발해지고, 씨비리철도부설로 차수입이 보다 쉽게 되었다. 고기음식을 위주로 하고 풍토상 추운데서 사는 로씨야 사람들에게 차는 인기있는 음료였는데 이를 상징하는 것이 물끓이개인 싸모와르였다.</p>